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진로상담을 위한
명리학의 적용가능성 탐색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성과 대운·세운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하 은 희

2015년 8월

<국문초록>

진로상담을 위한
명리학의 적용가능성 탐색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성과 대운·세운분석-

하 은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명리학(命理學)을 진로상담에 활용한 연구로 명리학이 실증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으로 진로상담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상담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진로지도를 안내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명리학을 바탕으로 계획하였으며 진로상담을 위한 이론적 설득력을 갖기 위해 서양의 진로상담 이론인 Holland이론과 Super의 생애 주기이론을 적용하였다. 인간 각자의 개인적 환경이 진로와 직업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가설 하에 사주원국의 재성과 더불어 대운(大運)·세운(歲運)이 환경으로 기능을 갖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바탕으로 돈과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인 재성(財星)과 개인의 처해진 환경으로써, 대운(大運)·세운(歲運)에서의 변화와 길·흉을 살피고자 하였다. 중화(中和)와 균형을 위해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日干)에게 가장 필요한 오행인 용신(用神)의 변화를 살펴 폐업한 자영업자의 폐업시기를 예측한 연구다.

명리사주 분석은 서양의 Holland 직업흥미·적성검사와 함께 Super가 언급한 개인이 처해진 환경을 통해 진로를 선택하는 횡적, 종적인 접근에 대한 방안을 갖는다. 돈과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인 재성(財性)이 환경에 해당하는 대운·세운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폐업한 자영업자의 사주팔자를 비교분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1> 사주원국에서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성(財星)은 약한 사주일 것인가?

가설1-1.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성(財性)은 약한 사주일 것이다.

<연구문제2> 폐업한 자영업자의 용신(用神)이 대운(大運)·세운(歲運)에서 합(合)·형(刑)·충(沖)되어 대운(大運)은 흉(凶)하게 작용할 것인가?

가설2-1. 폐업한 자영업자의 용신(用神)이 대운(大運)·세운(歲運)에서 합(合)·형(刑)·충(沖)되어 대운(大運)은 흉(凶)하게 작용할 것이다.

<연구문제3> 폐업한 자영업자의 용신(用神)이 대운(大運)·세운(歲運)에서 합(合)·형(刑)·충(沖)되어 세운(歲運)은 흉(凶)하게 작용할 것인가?

가설3-1. 폐업한 자영업자의 용신(用神)이 대운(大運)·세운(歲運)에서 합(合)·형(刑)·충(沖)되어 세운(歲運)은 흉(凶)하게 작용할 것이다.

<연구문제4> 폐업한 자영업자의 월지(月支)가 대운(大運)·세운(歲運)에서 합(合)·형(刑)·충(沖)이 될 것인가?

가설4-1. 폐업한 자영업자의 월지(月支)가 대운·세운에서 합·형·충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눈덩이 표집으로 폐업한 자영업자 10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명리사주분석을 위한 필수사항인 폐업한 자영업자의 생년·월·일·시중 태어난 시(時)를 모른다고 기재하거나 폐업년도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는등 설문지의 물음에 불응한 부적절한 설문지들을 제외하고 100명의 대상자를 확보하였다. 100명의 폐업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명리사주분석에서 가장 필요한 생년·월·일·시등 인구학적 질문과 함께 20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의 설문지에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 통계처리 하였다.

자료분석은 설문지 20문항을 바탕으로 SPSS Windows 18.0에 의해 백분율을 내어 통계처리 하였고, 빈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각 문항을 비교분석 하였다. 명리 사주분석은 본 연구자 이외의 3명의 명리전문가가 블라인드방식으로 명리사주 분석표에 개별적으로 질적분석을 하였다. 연구자 삼각기법(triangulation)으로 4인의 공통된 내용만을 엄선하여 수합하였다. 부록에 대표로 5명의 사주분석표와 질적분석 방법을 예시로 제시하여 내용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이 돈과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인 육진중 재성(財性)이 약한 사주였으며, 그들의 대운(大運)·세운(歲運) 즉 일간(日干)이 처해진 환경과 조화롭지 못하고 용신(用神)이 대운·세운에서 합(合)·형(形)·충(沖) 됨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폐업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6
3. 용어의 정의	7
가. 명리학(命理學)	7
나. 재성(財星)	7
다. 용신(用神)	8
라. 대운(大運)과 세운(歲運)	8
마. 합(合)·형(刑)·충(沖)	9
바. 월지(月支).....	10
사. 사주원국과 대운(大運)·세운(歲運)과의 관계.....	10
4. 연구모형.....	12
II. 이론적 배경	13
1. 서양의 진로 상담	13
가. Holland직업.흥미검사	13
나. Super의 생애주기이론	18
2. 명리사주학적 진로상담	23
가. 명리사주학적 상담의 역사	23
나. 명리학(命理學) 선행연구	26
다. 사주원국에서의 재성(財星)	29
다. 환경으로의 대운(大運)과 세운(歲運)	34

Ⅲ. 연구방법 및 절차	41
1. 연구대상	41
2. 연구절차	44
3. 설문지	46
4. 자료분석 및 처리방법	48
Ⅳ. 연구결과 및 해석	49
1. 폐업한 자영업자의 기술통계 분석	49
2. 연구문제 및 가설검증	56
3. 연구결과 해석	67
Ⅴ. 논의 및 결론	73
1. 논의	73
2. 결론	75
참고문헌	78
<Abstract>	84
부록목차	86

표 목 차

< 표 II- 1 > 명리학(命理學)의 선행연구	28
< 표 III- 1 > 폐업한 자영업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징	43
< 표 III- 2 >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45
< 표 III- 3 > 설문지 문항 내용	47
< 표 IV- 1 > 격(格)에 대한 빈도	49
< 표 IV- 2 > 성별과 격(格)에 대한 교차분석	50
< 표 IV- 3 > 성별에 따른 신강·신약 교차분석	51
< 표 IV- 4 > 폐업이유 조사	52
< 표 IV- 5 > 명리사주분석에 대한 생각	53
< 표 IV- 6 > 진로상담 조언자 조사	54
< 표 IV- 7 > 재성이 약한 사주	56
< 표 IV- 8 > 신강재강한 사주 빈도	57
< 표 IV- 9 > 대운·세운에서 용신의 합(合)·형(刑)·충(沖)의 빈도	58
< 표 IV-10 > 용신(用神)의 합(合)과 대운의 길·흉(吉凶)의 빈도	59
< 표 IV-11 > 용신(用神)의 형(刑)과 대운의 길·흉(吉凶)의 빈도	60
< 표 IV-12 > 용신(用神)의 충(沖)과 대운의 길·흉(吉凶)의 빈도	61
< 표 IV-13 > 용신(用神)의 합(合)과 세운의 길·흉(吉凶)의 빈도	62
< 표 IV-14 > 용신(用神)의 형(刑)과 세운의 길·흉(吉凶)의 빈도	63
< 표 IV-15 > 용신(用神)의 충(沖)과 세운의 길·흉(吉凶)의 빈도	64
< 표 IV-16 > 대운·세운에서 월지(月支)의 합·형·충의 빈도	65
< 표 IV-17 > 신약재약사주와 대운·세운의 관계	68
< 표 IV-18 > 군겁쟁재사주와 대운·세운의 관계	69
< 표 IV-19 > 재다신약사주와 대운·세운의 관계	70
< 표 IV-20 > 신강재강사주와 대운·세운의 관계	71

그림 목차

[그림 I - 1] 사주원국과 대운·세운	11
[그림 I - 2] 연구모형	12
[그림 II - 1] Holland 유형	17
[그림 II - 2] Super의 생애 진로 무지개	22
[그림 II - 3] 명리학(命理學)을 구성하는 원리	25
[그림 II - 4] 재다신약(財多身弱) 사주	30
[그림 II - 5] 군겁쟁재(群劫爭財) 사주	31
[그림 II - 6] 신약재약(身弱財弱) 사주	32
[그림 II - 7] 신강재강(身強財強) 사주	33
[그림 II - 8] 박OO 전 대통령 인생 4계절	38
[그림 III - 1] 성별과 격(格)의 교차분석	50
[그림 III - 2] 본인이 생각하는 폐업이유 조사	52
[그림 III - 3] 명리학에 대한 인식조사	53
[그림 III - 4] 진로상담 조언자에 대한 조사	54
[그림 III - 5] 재성(材星)이 약한 사주 분포도	57
[그림 III - 6]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성(財星)과 대운·세운의 관계 검증모형	6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흔히 하고자 하는 일이나 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운대가 안 맞는다"고 하며,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내면, "운이 좋았어!"라고 흔히들 말한다. 이 때 우리에게는 그 의미를 모른 채 운(運)이라는 이름을 자연스럽게 거론하게 된다. "영웅호걸이 때를 만나면 절반의 노력으로 곱절의 능력을 발휘하고, 때를 잘못 만나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기 힘들다"(심효침, 자평진전). 즉, 사람의 명(命)이 좋고 훌륭한 격(格)을 이루었다 하여도 시기를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명성을 떨칠 수 없다는 의미이다(최찬주, 2013).

남녀가 처음 결혼을 할 때 신랑측이 신부측에게 사주단자를 보내게 되는데 그 사주단자 안에는 신랑의 사주팔자인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적어 보내도록 되어있고 그 풍속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유지 되고 있다. 이처럼 사주팔자는 운대든 결코 낯설지 않은 단어들인 여전히 실생활속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이 어디에서 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명리학(命理學)적 용어들의 기원은 수천년 전의 중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명리사주분석은 특히,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을 보면, 정6품의 관상감을 두어 농사를 업으로 삼던 그 시절에 기후의 예측이나 왕족과 양반들이 자신의 신수를 점칠 때, 소수 권력자들의 전유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 역사와 함께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속에 뿌리 박혀있는 명리학적 용어들을 대중들이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속인들이 신(神)이 들려 점을 치는 것이 사주팔자라고 알고 있다.

명리학은 출생순간부터 타고난 생·년·월·일·시만으로 성격, 지능, 적성, 흥미, 직업, 가치관, 가족간의 친밀성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오랜 기간 우리사회에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명리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편견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나경미, 2014). 명리학은 중화(中和)와 음양오행을 그 근본으로 삼으며 한의학, 명상, 유교, 노자사상, 논어, 맹자, 증용, 풍수, 관상, 주역과 함께 동양철학의 한 분야로서 무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명리학은 눈앞에 벌어지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여 전진해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잘 알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명리학 용어해설 부록 참고.

(고순택, 2012).

그러나 오랜 역사와 경험과학의 결과인 동양사상으로써 명리학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실증적 보편성의 원리”라 평가되는 임상 통계학적 검증방식의 논리에 밀려 미신이나 허황된 학문으로 취급받아 왔다. 21세기는 융합과학(fusion science)의 시대다. 뉴턴의 물리학에서 카오스 물리학으로의 이념발전은 복잡계 이론(method of complexity)인 다각적 구성요소간의 관계성 파악을 추구하기에 동양사상의 원리와 논리체계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최성수, 2010). 정신역동과 핵심감정을 다루었던 정신과 전문의 이동식(1969) 박사 역시 동양의 도(道) 사상등이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양의 상담·심리치료자들이 이제는 서구식 접근 방법의 모방에서 탈피하여 동양문화에 바탕을 둔 주제적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논의한다.

명리학은 단순히 점복술수가 아니라 운명적 현실의 파악과 극복할 수 있는 현재의 의지를 추동시키는 실사구시적 특징을 가진 논리적인 학문이다(김기주, 2012). 먼저 사주원국에서는 인간의 생·노·병·사와 더불어 직업적성, 흥미, 성격뿐만 아니라 개인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초기의 명리학 연구들은 문헌을 중심으로 한 반면 요즘은 구체적으로 문헌을 바탕으로 실증적 검증을 통한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동양학이나 미래 예측학과에서 서양의 상담이론을 접목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명리학을 활용한 선천적성검사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김기승(2010)은 기존의 적성검사가 가진 한계를 초월하여 조기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타고난 생년·월·일·시등 출생정보를 가지고 인간의 본성에 깔린 성격(personality)과 흥미와(interest)와 재능(talent)을 분석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선천적성검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적성은 검사할 수 있으나,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주어지는 가족사항 및 교우관계, 출생지역의 영향 및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하여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는 동기 등과 같은 외적인 영향은 검사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선천성외에도 개별적 개인사를 참고 해야 하는 상황이 있게 됨을 아쉬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흡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연구들 또한 속속 등장하고 있다.

명리학적 사주분석은 사주원국과 대운·세운의 구조를 살피는 것으로 특히 대운·세운은 삶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김배성, 2006) 구체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알게 한다. 과거 명리학의 선행연구들이 사주원국만을 연구주제로 다루었다면, 요즘은 대운과 세운 등 개인의 환경적 측면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박성희(2012)는 세운해석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계절의 주기성과 함께 구체적인 환경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운과 명에

관한 몇몇 연구에서 대운과 세운의 중요성을 언급한다(최찬주, 2013). 그러나 개인의 환경으로서의 대운과 세운의 중요성에 비해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아 그에 대한 보완의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미비점들을 학문적을 보완하면서 예로부터 상담적 기능을 담당해 왔던 명리학의 활성화를 바라며 본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우리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훌륭한 학문이면서도 침체되어 미신으로 떨어지면서 학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명리학을 제도권의 학문으로 과학화하고자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한편, 2013년 11월 일자리 동향(경제활동 인구조사, 11월 자료)에서 고용률은 60.4%, 실업률은 2.7%, 고용률과 실업률은 전년동월 대비 각 0.7%p증가, 0.1%p감소하였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고령층(55-79세)실업자 8만 4천명, 실업률 1.4%로 전년 동월대비 0.3%p 감소하였고, 청년층(15-29세)실업자는 30만 9천명, 실업률은 7.5%로 전년 동월 대비 0.8%p증가 하였다.(통계청, 2013)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지속률을 보면 1년 후에 자영업을 이탈하는 비율이 28.5%, 3년 동안 유지한 비율은 50%도 안된다. 특히, 월 순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의 자영업 지속률이 비영세 자영업자(45.2%)보다 낮다. 과잉 자영업 비율을 고려할 때, 자영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창업실패는 더 심각한 빈곤을 야기하기 쉬우므로 적정사업 유지를 위한 정책 및 진직 지원서비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지은정, 2014).

IMF 경제 위기이후 대졸자의 취업난은 더욱 가중되어 2010년도 4년제 대학졸업자 280,341명중 진학자 24,879명, 입대자 760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254,702명 중 취업자는 50.7%인 129,130명에 불과하여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불안은 계속되고있다(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2011; 이대용, 류동희, 김인환, 고태용, 2011). 진로의 문제는 전 생애에 걸쳐서 끊임없이 대면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활성화는 진로 및 직업상담 분야에 있어 더욱 절실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에는 노인인구 14%이상인 고령 사회로, 2026년에는 노인인구 20%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장선철, 2008).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사회가 부양할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들의 100세 시대를 맞이한 제2의 직업전환 및 재취업 문제는 심각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적성과 흥미, 직업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과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이론에서 처럼 각자의 재능이 중요하며 수업개선을 위한 교과과정개발이나 수업설계를 함에 있어서 환경교과에서도 다중지능이론의 적극적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김성봉, 2004). 특히, 요즘은 특성화된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특성화 고등학교 등 실천적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다. 유아기 때 부터 조기 진로지도가 필요함을 알게 된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고민을 다루는 연구에 의하면 주로 진로, 생활태도, 학업문제중에서 성격이나 외모보다 진로나 삶에 대한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청소년 상담원, 2008).

한편, 명리사주분석은 어린 유아나 신체 부자유자에게 글을 통한 자기 보고식 검사지가 아닌 타고난 사주팔자인 생년.월.일.시만으로 개인의 직업적성과 성격, 심리등을 다룰 수 있어서 유아부터 진로에 대한 상담자료로 쓸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나 지적장애가 있는 피검사자에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이문정, 2007).

유년기로부터 청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타고난 기질을 명리사주분석의 격국과 용신, 사주의 대운·세운, 청탁등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으며, 그 기질이 계열(학과)에 반영되고 있다(정성택, 2011). 새롭게 명리이론을 분석한 자료들을 토대로 학생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에 활용해 왔다(이문정, 2007). 뿐만 아니라 명리학의 바탕인 음양오행론을 접목하여 오행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에도 응용하고 있다(김성준, 김성봉, 박정환, 2009). 요즘은 타고난 선천지능에 기초한 선천 적성검사 도구 개발과정인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과정을 거쳐 시안구성을 통해 타당한 도구를 개발하는데 이르렀다(김기승, 2010). 또 다른 방면으로는 명리학을 심리분석, 성격과약등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융(Jung)의 분석심리학에 바탕을 둔 MBTI 성격유형론의 척도들과의 비교를 통해 명리학을 성격 유형 분류도구로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정하룡, 2010).

반면, 서양의 진로상담은 진로의 기본이 되는 홀란드(Holland) 직업적성이나 에니어그램(enneagram), 엠비티아이(MBTI) 성격유형처럼 일반적인 성격유형과 직업적성을 보여주지만 Super가 언급한 대로 자신의 생애주기에서 부모, 자녀, 직업인으로서, 학생, 사회인으로서 각자 처해진 환경을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진로선택시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게 됨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명리학은 기존 서양의 성격및 심리검사와 더불어 개인의 특별한 환경이라 할 수 있는 틀을 세부적으로 갖추고 있다. 대운, 세운, 월운, 일운이 있다. 대운(大運)은 10년을, 세운(歲運)은 1년을, 월운(月運)은 한달을, 일운(日運)은 1일을 기준으로 인간 역시 자연으로 인식하여 각자마다 우주의 기운을 천간과 지지로 나타낸 것이다. 대운과 세운, 월운, 일운은 운명학적으로 구체적인 개인의 환경을 설명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명리사주분석은 인간의 생·로·병·사(生老病死)와 더불어 직업과 진로에도 도움을 주는 유용한 자료들이 많다. 개인의 성향만을 나타내는 Holland, MBTI enneagram이 한국사회의 특성과 적합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김봉환외, 2010).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과 함께 Super의 말대로 환경을 감안한 진로

상담의 구체적 대안으로서의 활용도가 있음을 알게 된다(박상운, 2011). 기존의 holland, MBTI등 서양의 도구지에 비싼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진로 상담에 대한 이해의 부재가 심각하며, 진로상담의 현장에서 진로지도 예산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명리사주분석은 기존 서양의 진로상담에서 빠뜨리기 쉬운 개인이 처한 자신만의 상황, 즉 환경인 대운·세운의 적용과 함께 새로운 진로상담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학도로서 늘어나는 실업률과 폐업률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진로상담의 대안으로 명리사주분석을 진로상담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사주원국상 폐업한 자영업자의 돈과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인 재성(財星)과 개인의 환경인 대운·세운의 실증적 명리사주분석을 통해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직업적성과 운대가 맞지 않아서 사업에 실패했음을 예측하고자 한다. Holland의 진로흥미·적성을 사주원국에서 Super가 언급한 환경의 의미를 대운과 세운에서 찾고자 한다. 서양의 Holland와 Super의 진로탐색을 위한 두가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명리학적 사주분석의 활용되기를 바란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특성상 사주원국에서도 재성이라는 그릇 자체도 작고, 나 자신인 일간(日干)에게 중화(中和)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용신(用神)이 개인의 환경인 대운(大運)·세운(歲運)에서 합(合)·형(刑)·충(沖)등 불리하게 작용하여 폐업을 했을 것이라는 가설과 함께 사주원국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으로 대운·세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 하였다.

<연구문제1> 사주원국에서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성(財星)은 약한 사주일 것인가?

가설1-1.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성(財星)은 약한 사주일 것이다.

<연구문제2> 폐업한 자영업자의 용신(用神)이 대운(大運)·세운(歲運)에서 합(合)·형(刑)·충(沖)되어 대운은 흉(凶)하게 작용할 것인가?

가설2-1. 폐업한 자영업자의 용신(用神)이 대운(大運)·세운(歲運)에서 합(合)·형(刑)·충(沖)되어 대운은 흉(凶)하게 작용할 것이다.

<연구문제3> 폐업한 자영업자의 용신(用神)이 대운(大運)·세운(歲運)에서 합(合)·형(刑)·충(沖)되어 세운은 흉(凶)하게 작용할 것인가?

가설3-1. 폐업한 자영업자의 용신(用神)이 대운(大運)·세운(歲運)에서 합(合)·형(刑)·충(沖)되어 세운은 흉(凶)하게 작용할 것이다.

<연구문제4> 폐업한 자영업자의 월지(月支)가 대운(大運)·세운(歲運)에서 합(合)·형(刑)·충(沖)이 될 것인가?

가설4-1. 폐업한 자영업자의 월지(月支)가 대운·세운에서 합·형·충이 될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가. 명리학(命理學)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시(年月日時)의 간지(干支) 여덟 글자에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배합을 보고 그 사람의 부귀와 빈천, 부모, 형제, 배우자, 질병, 성격, 직업, 소질, 성공, 길흉등의 제반사항을 판단한다(네이버,백과사전). 또한, 명리학은 정보를 분석하고 삶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학문임을 말하고 있다(김배성, 2006). 본 연구에서는 타고난 생년·월·일·시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작업을 “명리사주 분석”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나. 재성(財星)

재성(財性)은 돈과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이다. 명리학의 고전에 의하면, 돈과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인 재성(財性)이 약한사주 일명, 가난한 사주로써 다음과 같이 재다신약(財多身弱) 사주, 군겁쟁재(群劫爭財) 사주, 무재성(無財星) 사주를 일컫는다(신약재약 사주 포함)(삼명통회).

재다신약사주는 재물은 많으나 내가 약하므로 그 많은 재물을 내것으로 가질 수 없는 형국이다. 군겁쟁재 사주는 나의 힘은 비대한데, 재물의 크기는 너무 작아 재물이 들어오는 즉시로 비견·겁재들의 다툼속에 처해지는 형국으로 이 역시 내 것이 될 수 없는 재성구조다. 신약재약사주나 무재성사주 역시 나의 재물을 다룰 힘도 부족하고 재물도 없는 구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명리학의 고전인 연해자평, 적천수천미, 자평진전평주, 삼명통회, 궁통보감의 내용을 위주로 다룰 것이다. 재성은 돈과 재물뿐 아니라, 정부인과 애인, 아버지를 일컫는다. 사주팔자 여덟 글자에는 인간관계의 모든 속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인, 애인 혹은 아버지에 대한 개념 분석은 보류하고 연구의 목적과 대상의 특성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돈과 재물의 의미로만 재성(財星)을 파악할 것이다. 특히, 사주원국에서 고전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물이 없는 가난한 사주인 군겁쟁재, 재다신약, 신약재약(무재성사주 포함) 사주임을 살펴 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財)가 암장되었거나, 사주원국에 있으나 그 힘이 약한 사주는 신약재약한 사주로써 다루고 무재성 사주도 그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다.

다. 용신(用神)

용신(用神)은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日干)이 사주내에서 중화(中和) 즉,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길신(吉神)이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오행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운(運)에서 용신운을 만나면, 학생은 성적이 오르고 수험생은 합격하고 실업자는 취직이 된다. 직장인은 승진하고, 사업가는 사업을 확장하고, 매출이 증가 되고 매매는 성사되고, 미혼자는 결혼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성취하는 인생의 황금기가 된다(김철화, 2007).

본 연구자는 명리학의 고전인 연해자평, 적천수천미, 자평진전 평주, 삼명통회, 궁통보감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후, 현대이론을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종합분석 할 것이다. 또한 월지(月支)를 중심으로 월지에서 투출한 육신을 격으로 정하고 일간의 신강·신약을 살펴 억부, 조후, 병약, 통관, 전왕용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사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용신(用神)과 용신을 돕는 회신, 용신과는 달리 운을 나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신과 구신을 구별하고자 한다.

라. 대운(大運)과 세운(歲運)

대운과 세운은 개인이 처한 운명적인 환경이다. 대운(大運)은 10년을 단위로, 세운(歲運)은 1년을, 월운(月運)은 1개월을 단위로, 일운(日運)은 1일을 단위로 변하는 개인만의 환경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운과 세운에서의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성의 변화와 일간에 가장 필요로 하는 용신(用神)의 희비를 살피고자 한다. 운에 관하여 언급한 여러 명리서적이 있다. 그러나 각기 주장하는 학설의 내용을 열거하다 보면 운에 관한 명리학의 지침에 혼란이 있게 되고,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더하게 되어 가급적 대표적인 명리학서로 평가되는 연해자평, 적천수, 명리정종, 삼명통회, 자평진전을 참고하였다.

대운(大運) 보는법은 천간과 지지의 비율을 5년-5년, 6년-4년, 7년-3년등 천간과 지지의 비율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지(地支)를 위주로 볼 것이며, 기본 5년, 5년으로 보되 절각과 절두를 고려하고 여러 지지의 주변의 형국을 살피면서 보완할 것이다. 사주원국에 의해 행하여 오는 지지의 운은 암장된 천간이 있으므로 어느 천간이 득기 하는지를 살펴보고 지지끼리 합·형·충하는 관계를 살펴 희기를 논 할 것이다. 대운(大運)은 천간 보다 지지(地支)가 중요하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다(최찬주, 2013). 또한 대운은 십년을

단위로 운을 논하며, 지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천간과 지지의 경중을 신중히 고려하여 반드시 사주 원국에 부합하여 길흉을 논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또한 세운(歲運)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운의 희기를 판단할 것이다. 명리약언에서는 “매 년을 유년이라 하고 있는데 비록 대운(大運)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없으나 사주원국과 대운을 능히 억부할 수 있다.” 고 본다. 그 보는 법은 천간과 지지를 구분하지 않고 사주원국과 대운의 생극관계를 해석할 것이다.

운(運)에는 대운·세운·월운·일운등으로 개인의 환경을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0년 단위로 바뀌는 대운과 1년마다 바뀌는 세운(歲運)의 관계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월운이나 일운은 전체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의 큰 궤도속에 존재하고 그 작용이 미약하므로 대표적인 대운과 세운만을 다룰 것이다.

마. 합(合)· 형(形)· 충(沖)

1)합(合)

합은 우호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상호간의 협조와 조력의 관계를 긴밀히 도모하여 대외적으로 그 목적인 바를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합으로 인해 묶인다는 의미로 작용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된다.

2)형(刑)

형은 형벌과 같은 뜻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규범이나 제재조치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써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수술과 같고, 가정이나 조직사회등의 단합을 해치는 것이다.

3)충(沖)

충은 충돌과 파괴 방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하고자하는 본질적인 속성을 지니며, 분리. 상처. 손실. 파괴등이 발생되는 부정적인 의미가 부여된다(김성, 2006).

본 연구에서는 고전명리서인 삼명통회, 명리정중, 자평진전평주, 적천수천미, 연해자평 평주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용신(用神)은 일간에게 있어서 중화(中和)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합·형·충이 되면 묶이거나 속성이 변하거나 상실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사주원국과 대운·세운에서 일간이 중화(中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용신(用神)의 합·형·충을 통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합·형·충은 운(運)의 길흉(吉凶)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불황시점을 예측하고 통변함에 있어서 중대하게 활용되어야 할 이론임을 말하고 있다(김재성, 2004). 선행 연구에서 파(破)나 해(害)와 원진, 겁재등의 기타신살은 그 작용력이 미흡하게 작용한 전례(김재성, 2004)가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재성(財星)과 용신(用神)의 대운과 세운에서의 합·형·충의 관계만을 살필 것이다. 천간의 극은 자극 정도로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기로 한다.

바. 월지(月支)

월지는 일간의 격(格)을 구분하는 중요한 자리다. 명리사주분석에서 직업을 볼 때 월지의 향방을 주로 살피게 된다. 대운과 세운이 월지또는 일지와 합이나 충 등이 될 경우 직업적, 사회적, 가정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순택, 2012).

사. 사주원국과 대운(大運)·세운(歲運)과의 관계

사주원국이 나무의 품종과 크기, 모양등으로 비유하자면 운(運)은 그 나무를 꽃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및 계절의 기후환경과 같은 것으로 나무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 주 원 국	정인	일원	식신	편관												
	甲	丁	己	癸												
대 운	辰	巳	未	丑												
	상관	겁재	식신	식신												
	96	86	76	66	56	46	36	26	16	6						
세 운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巳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3	癸	壬	辛	庚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己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38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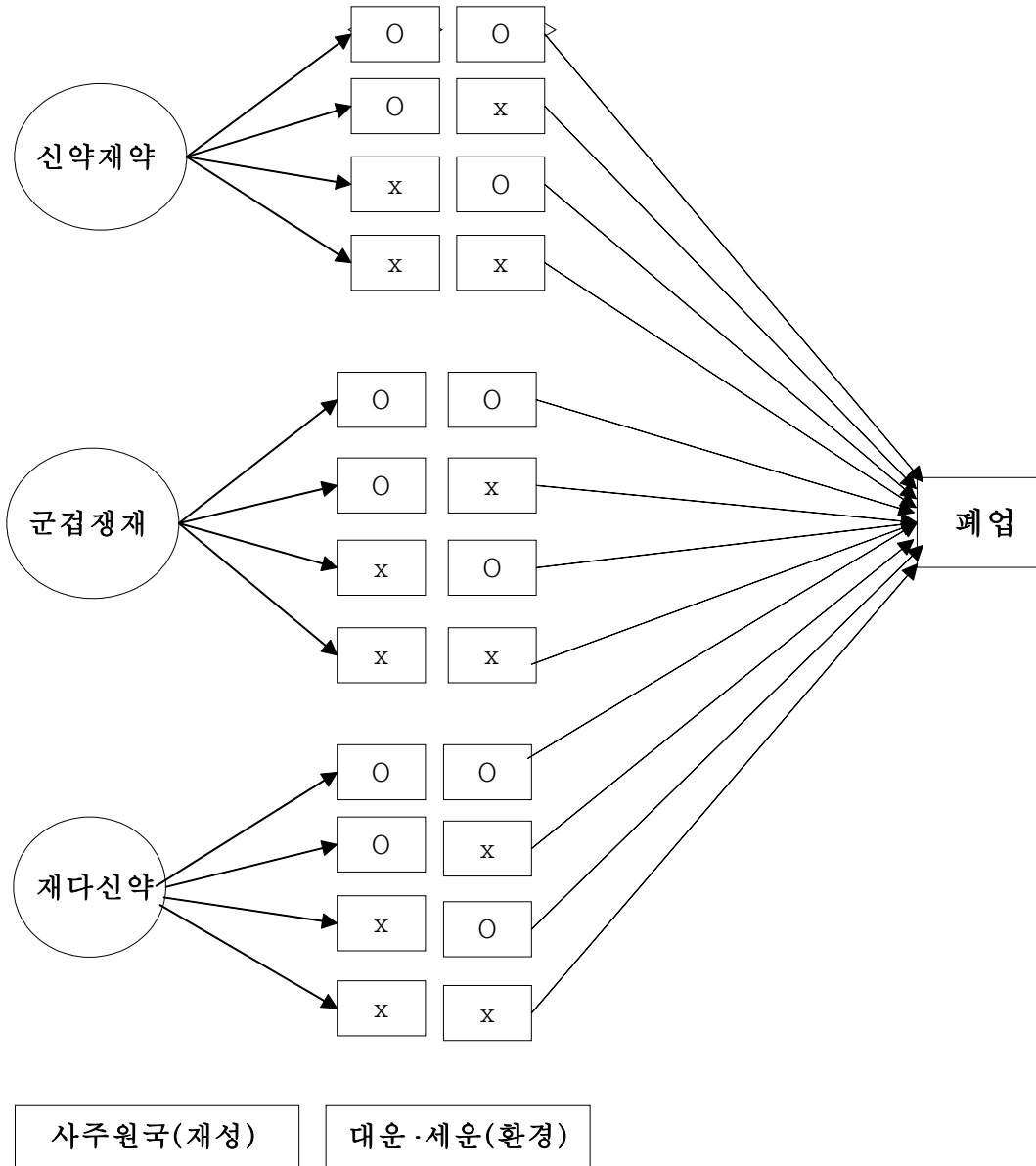
[그림 I - 1] 사주원국과 대운과 세운

명리사주분석을 위해서는 크게 사주원국과 대운·세운을 살펴야 한다. 사주원국은 생년·월·일·시를 기준으로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진다. 사주(四柱)는 네 기둥이라는 의미로 년주, 월주, 일주, 시주를 말하며, 여덟 글자에 해당하므로 팔자(八字)라 한다. 이를 합하여 사주팔자라 흔히 일컫는다. 천간은 하늘의 기운을 지지는 땅의 기운을 일컫는다.

대운은 10년의 개인의 환경이고 세운은 1년의 환경으로 인간도 자연이라는 전체하에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나타낸 것이다. 대운·세운에서 개인의 운명적인 환경과 운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마. 연구모형

<연구문제 1> 재성이 약한사주	<연구문제2> <연구문제3> (대운길=O,대운흉=x)(세운길=O,세운흉=x)
----------------------	---



[그림 I - 2]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명리학(命理學)을 진로상담에 응용하고자 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를 고찰해 봄으로써, 본 연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서양의 진로상담

가. Holland 흥미·적성

Holland 흥미·적성검사는 가장 대표적인 진로 이론중의 하나로 국내외적으로 그 어떤 이론보다도 상담연구와 실제에서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Super의 진로발달에 대한 종적이고 발달적인 접근과는 대조적으로 Holland의 이론은 진로선택 및 결정에 대해 유형론에 입각하여 횡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Holland모형은 개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일의 세계의 이해 및 그 둘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25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진로지도 장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Holland이론이 간결하고도 쉽게 이해된다는 점에서 상담장면은 물론, 학교, 기업체, 공공기관, 사설기관등 다양한 장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Holland의 직업모형은 생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 직업흥미 검사와 함께 최근 개인의 중요한 정보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형론의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가설들은 보다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즉, 개인적인 발달과 변화에 관한 설명에서 보다 종합적인 검증을 필요로 한다.

국내에서는 Holland 흥미·적성검사에 대한 타당화 작업들이 많았다. 한국 스트롱 직업흥미검사의 표준화 연구(김정택, 김명준, 심혜숙, 2004), 5요인 성격모형과 성격검사 관련연구(민병모외,1997), MBTI 성격유형과의 관계연구(탁진국, 2003), 문화적 타당도 및 구성 타당도 연구(김정택외, 2004)에서 Holland의 6가지 성격유형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가 비교적 분명히 드러나는 요인은 R·I·A·S이며 E와 C가 한 요인으로 묶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김정택외, 2004; 서민희외, 2001; 성태제외, 2001). 대체적으로 흥미의 순서는 지지 받지만, 흥미유형간의 동일한 거리, 즉 육각형의 구조는 대상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가설은 아시아계 미국인, 일본의 대학생,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지지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는 흥미구조가 육각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에 따른 선호유형의 차이를 연구한 논문(안창규, 1996; 최동선, 정철

영, 1997; 황매향, 2004)으로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남자는 R과 I, 여자는 S와 A를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성역할 사회화에 따른 결과임을 도출해 냈다. 육각형 모형에 관한 연구(이재경, 2008)에서 남자는 R·I·A·S·E·C으로 나타났지만, 여자의 경우는 I·R·A·S·E·C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인하였다. 김안성, 허창구(2005); 김희정(2007); 이상희외(2008)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남자는 S·E를 여자는 R·I를 유사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R과 I가 매우 가깝게 모여 나타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남녀가 가지는 직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각자 사회문화적으로 성역할과 직업에 대한 이해가 다르게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olland의 이론이 한국 문화권에도 적용가능성이 있음은 탁진국(1995)의 연구에도 확인되었으나, 임언과 진미석(2001)의 연구에서도 6가지 성격유형의 순환순서가 Holland가 제시한 그것과는 부분적으로 상치되기는 하지만 Holland의 육각형 모형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Holland의 모델이 많은 진로관련 성격검사의 기초가 되고 있지만 위에 언급한 대안적 모델의 검증 또한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곽필순, 김봉환, 2005). 각각의 성격유형의 동료, 생물학적 유전, 부모, 사회계층, 문화,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 개인적인 요인과 다양한 문화간의 독특한 상호작용의 결과를 지적한다.

성격유형의 발달과정은 유전상의 차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강화를 받을 것인지 영향을 주게 되며, 이들의 초기 활동은 장기적으로 흥미와 역량을 만들어 가며 그런 경험을 통해 독특한 자아개념, 외모, 기질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람은 6가지의 성격유형 R·I·A·S·E·C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유형론에 입각하여 지나치게 단순히 해석되거나 적용되는 측면이 강하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나 이론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김봉환외, 2010). 또한, Holland의 직업적인 성격유형과 MBTI에 의한 심리유형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가 보고 되었다(신영옥, 1998).

이러한 연구들은 흥미의 측정과 성격 유형의 측정은 모두 직업적인 성공을 예측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다. Holland의 일치 이론은 다양한 장면에서 내담자가 자신에게 최적의 선택 및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인과 환경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자기 탐색, 자기 이해, 자기인식을 높여주기 때문에 과정중심의 발달적 접근을 취하는 Super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진로선택 및 결정의 정확성과 실용성의 결여라는 제한점을 다소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Rounds와 Tracey(1996)는 Holland 모델의 다양한 문화 집단들 간의 차이에 대해 교차문화적 타당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내놓았다. 96개의 미국 내외의 R·I·A·S·E·C 상관관계 매트릭스와 미국표준집단의 매트릭스에 대한

구조적 메타분석(structural meta-analysis)을 실시하여, 표준집단이 아닌 다른 문화집단들은 Holland의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김희정, 2007). 선행연구들은 미국외의 국가에서의 Holland 구조모델의 교차 문화적 구인 타당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몇몇의 연구들의 대부분은 남녀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흥미와 직업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전통적이고 여성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Given,1998). 남녀의 가장 큰 차이는 현장형(R)에 있다고 한 Found (2002)는 남성은 보다 실제적인 활동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반면, 여성은 사람들을 돕거나 예술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여섯 개의 유형들이 같은 거리에 위치하는 정육각형모델은 입증되지 않았다. 즉, 남성들은 거의 육각형에 가까운 모양이었으나, 여성들은 육각형에서 많이 벗어난 모양이었다(Hansen et al, 1993). 미국내의 연구에서 보다 다른나라 혹은 문화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Holland의 모델적 역할과 진로에 대해 서구와는 다른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도 성별에 따라 직업흥미유형이 이루는 구조는 Holland가 가정하는 모델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날지도 모른다(Kang, 2002).

우리나라에서도 Holland 모델의 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개발된 종합 진로적성 검사를 사용하여 Holland의 원형순서모델과 정육각형 모델이 발견되는지를 검토하였다(서민희, 2001).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에게서 두 모델 모두 적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술형(A)과 진취형(E), 사회형(S)의 위치가 바뀌어 R·I·A·S·E·C의 형태가 발견됨으로써 여섯 개의 직업흥미는 존재하지만 Holland 모델은 지지 되지 않았다. 허창구(2002)는 적성 탐색검사와 자기탐색검사, 노동부의 직업선호도 검사를 종합하여 한국판 검사를 제작 Holland의 두 모델을 검증한 결과 모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어판 Strong직업흥미검사를 제작한 한국 심리검사 연구소의 김정택, 김명준, 심혜숙(2004) 고등학생과 일반인 자료를 사용하여 Holland 모델을 검토하여 일반인에게 특히 현장형(R)-탐구형(I), 예술형(A)-사회형(S), 진취형(E)-사무형(C)이 매우 근접하게 나타남으로써 정육각형 모델이 나타나지 않음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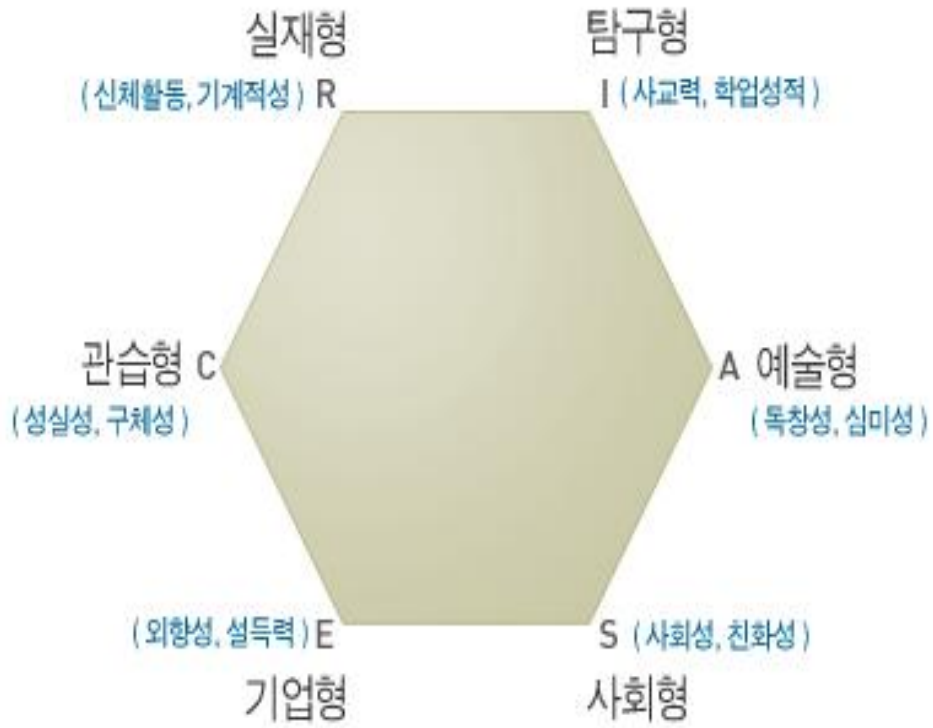
한국에서의 Holland의 정육각형 모델에 대한 타당도에는 여전히 연구의 여지가 남아있다. Holland이론에서 직업흥미 유형과 직업환경 유형이 일치해야 한다는 가설은 여섯 개의 흥미유형이 같은 거리에 위치하는 정육각형 모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분석방법을 통해 Holland모델의 구인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한다(김희정, 2007). Holland가 제안한 여섯가지 일반 직업분류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와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문화별 차이를 분류하기 위하여 Hofstede(1980)는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

-여성성을 기준으로 문화를 분류하였는데, 집단 주의적-남성적 문화일 수록 남녀 성역할에 대한 차이가 더 명확히 달라진다고 하였다. Diener et al(1995)의 연구는 개인주의-집단주의를 1-10점 척도로 평가하고 있는데, 미국은 10점인 반면, 한국은 3점으로 평가하였다. Hofstede의 남성성-여성성에 따른 문화분류에서는 100점만점중 일본이 95점, 미국과 스웨덴은 각각 62점과 5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비슷한 남성적 문화에 속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사회의 성에 따른 삶의 역할에 대한 구별이 직업흥미구조에 있어서 남녀 대학생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말한다(김희정, 2007).

이처럼 Holland의 정육각형 모델과 그에 기초한 직업 흥미검사만을 가지고 내담자를 돕게 된다면, 개인이 처한 형벌, 인종,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변인에 따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김희정, 2007). 그러므로 직업흥미검사는 Holland모델에만 제한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담자의 직업흥미구조에 맞게 문화적 차별성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Holland가 가정된 사람-환경 일치 (person and environment fit)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 또한 진로상담 학자들이 다양한 대안적 직업 흥미 유형 모델을 제안 하였는데, 서구의 이론적 모델이 아닌 우리 문화와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직업 흥미이론 및 모델의 확립이 주장한다(김희정, 2007).

내담자가 만족스런 사회생활, 여가활동,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정보제공보다는 내담자의 독특한 상황이나 요구에 적합한 구체화되고 개별화된 상담이 되어야 한다(임은경, 1997).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로 만족이나 안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일생을 통해 겪게 되는 직업및 진로선택, 여가및 취미활동, 봉사활동, 노후 생활등에 있어서 자신의 성격과 적성을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이해, 자기만족, 자기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Holland의 이론은 내담자의 진로 관련 성격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이론이다. 또한 개인의 흥미구조를 경제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매칭(matching)이론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맥락사회인 한국의 실정을 고려 한다면, 한국사회의 남녀 성별의 차이와 성에 따른 삶의 역할에 대한 구별이나 남성성과 여성성에 따른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Fitzgerald & Betz (1994)는 주요 진로이론들이 사람들에게 유용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어떠한 이론도 지지와 아울러 비판을 받지 않는 이론이 없는 만큼 각 이론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진로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문화적으로 우리의 특성에 맞게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매칭(matching)이론과 함께 개인만이 가진 환경을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안을 명리학의 사주원국과 환경인 대운·세운에서 서양이론에서 미비한 두가지 측면을 찾고자 한다.



[그림 II - 1] Holland 유형

나. Super의 생애주기이론

과거 Parsons나 Holland는 직업적성이나 흥미만을 위주로 한 특성요인을 위주로 한 매칭이론을 말했다. 그러나, 최근 진로 상담의 경향은 진로성숙, 생애역할의 중요성, 업적 흥미와 성격등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들 수 있다. 과거의 직업상담으로 시작한 Parsons가 말하는 진로발달이론은 직업특성과 개인 특성과의 매칭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진로의 선택과 몰입이 일련의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보는 이론이다. 한편 Super는 Holland의 직업성격, 진로적응성의 세가지 이론을 결합한 진로구조이론(Career Construct Theory; CCT)을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직업행동을 개념화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진로상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검사는 다목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바람직하다(Watkins, 1993).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검사들에는 적성검사, 흥미검사, 진로성숙 검사, 성격검사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고안된 진로 관련검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김은실, 2014).

Super의 진로발달이론에서 생애주기는 연령에 따른 발달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Super는 진로발달에 있어서 단일 선택에 의한 개인 직업 연결식 접근을 거부하고,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강조 하였으며, 개인은 일생을 통해 연령별 혹은 단계별로 차별적인 진로문제를 경험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중재방법도 다르다는 것에 전제를 둔다(Jepson, 1996). 과거에는 산업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것을 아동기나 청소년등 특정 시점의 진로 문제만을 다루고 있으며, 진로 결정이라는 목표에 도달 하기까지의 과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이지원. 송보라. 이주연. 이지향. 이기학, 2014).

생애주기는 Super의 이론을 바탕으로 성인 초기단계에 포함하는 20대(탐색기), 성인 중기단계(확립기), 성인 후기단계에 포함되는(유지기)로 구분하며, 이러한 구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물학적 발달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사회적 발달로써의 지속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꼭 정해진 나이에 각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주기의 특징적인 발달 과업의 수행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 의사결정 및 구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탐색기를 20대로, 자신의 직업에서 정체성과 책임감을 확장시켜나가는 확립기를 30-40대로, 일을 지속하며 새로운 수준의 과제를 수행하고 도전하는 유지를 50대 이후로 구분하였다(이지원.송보라.이주연.이지향. 이기학, 2014). 개인이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에 의해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조성연, 문미란. 정진선, 2005; Savickas, 2005) 현대사회에서의 진로발달은 개인의 내적구조의 성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외부환경 및 맥락에의 적응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진로적응 인식구조를 개념화하는데 있어 전 생애 발달 단계라는 시간적 축과 외부환경으로서의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한다. 평생직장이 사라진 지금 청년기의 일회적인 진업선택의 개념을 초월하여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 까지 일생동안 당면하는 여러 가지 진로관련 문제들을 적응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스스로 계획해 나가는 진로모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Super의 생애 발달이론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Super는 전 생애 진로 발달을 Life-span theory와 Life-space theor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 생애에 대하여 ‘기간(span)’이라는 종단적 측면과 ‘공간(space)’이라는 역할적 측면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즉, 생애기간 이론과 공간이론을 주장한다(Super, D. E. 1990). Super의 경우 진로를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직업과 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다양한 삶의 역할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그는 한 개인이 감당하는 삶의 다양한 역할이 그의 생활양식을 구성하며 그러한 전체적인 역할의 구조가 진로 양식을 구성한다고 보았다(Super, 1980). 생애 역할들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들 각각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은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역할들의 결합과 그에 부여하는 중요성이 개인의 생애구조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Super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9가지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연대기적 순서에 따르면 이러한 역할은 자녀, 학생, 여가인, 시민, 근로자, 배우자, 주부, 부모, 은퇴자등이다. 생애역할은 특정한 개인 극장에서 수행되는데 이러한 극장은 가정, 학교, 직장, 지역, 사회등 4가지의 극장으로 보았다. 그러나 한 개인이 전 생애 중에서 여러 가지 생애역할에 우선권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진로적응개념은 각 개인이 일의 세계와 자신의 개인적 환경사이에서 추구하는 균형에 초점을 맞춘다(김봉환외, 2010). 진로적응은 Piaget의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의 두 가지 과정에 근거한 적응(adaptation)과 개념적으로 상응한다(Niles & Hennis-Bowlsbey, 2005). 또한, 생애진로 무지개를 사용하여 내담자의 생애구조를 구성하는 주요한 생애역할을 드러나게 한다(Super, D. E. 1990). Holland나 enneagram, MBTI 일반적인 성격유형과 직업적성을 보여주지만 Super가 언급한 대로 자신의 생애주기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업인으로서, 학생으로, 사회인으로서 각자 처해진 환경을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하는데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직업선택시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직업선택에 이르게 됨을 언급한다(김봉환외, 2010). 오늘날의 자아개념은 어떤 역할, 상황, 지위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련의 복잡한 관계속에서 자신의 상을 제공하며, 진로성숙은 진로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도달하는 위치를 뜻한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연령수준에서 주어지는 진로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라 정

의하고 있다. 성인기의 의사결정 준비도에서 진로성숙대신에 진로적응이라는 개념이 쓰이며, 각 개인 일의 세계와 자신의 개인 환경사이에서 추구하는 균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진로는 일생을 통해 발달하고 변화해간다(Super,1990). 이전의 행동은 이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각기 다른 연령 혹은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진로관련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임은경, 1997).

고학력 기혼여성의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Concept Mapping) 연구에서 고학력 기혼 여성들이 경험한 진로단절 위기에 대한 이면의 개념적 구조는 육아, 일의 병행갈등, 진로 포부의 하향조정, 전통적인 성역할 수용과정, 진로개발 의지의 부족, 직업인의 역할 수용과정으로 해석했다. 우리나라 고학력 기혼여성들은 진로 지속과 중단 사이의 갈림길에서 진로단절 위기와 타협하는 방법으로서 직업적 포부수준을 낮추는 경향이 탐색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과 직업인의 역할 사이에서 여성들이 진로 지속과 중단을 결정할 때 의미있게 경험한 것으로 '남편 또는 가족과 환경의 지지'였다고 말하고 있다(최윤정, 김계현, 2007).

진로를 중단한 여성들은 자신의 진로 목표가 대체로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으며, 특히 결혼후,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엄마의 역할을 진로 대안으로 고려하여 진로개발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산출된 기혼여성들의 진로 단절위기상황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자 대학생을 위한 진로발달 전략으로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며 여성의 삶속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진로 단절 위기 상황에 대해 사전에 대응할 준비를 하도록 돕는 것이 상담전문가들의 역할을 밝힌다(최윤정, 김계현, 2007).

역시 Super이론에 대한 평가는 자아개념과 지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진로선택보다는 진로 발달을 강조한다. 남성쪽에 치우친 이론이라는 비판(이현림, 1991)과 함께 안정적이고 전통적인 진로를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산층의 가치에 편중된 이론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개인의 진로 발달과정을 자기 실현과 생애발달 과정으로 본 점과 자아개념의 직업 자아개념으로의 전환, 진로유형, 진로성숙, 진로 발달단계에 초점을 두어 진로 발달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다(임은경, 1997).

개인의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발달과정에 초점을 둔 Super의 생애 발달적 접근과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간의 일치를 추구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 이해와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Holland의 일치모형과의 통합은 진로결정및 진로 발달에 대한 설명력을 증가 시키고 진로상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Super의 전 생애 진로발달이론에서 탐색기의 발달과업이 자신과 진로에 대한 선호가 결정화되고 점차 분명하게 드러남에 따라, 특정한 직업선호로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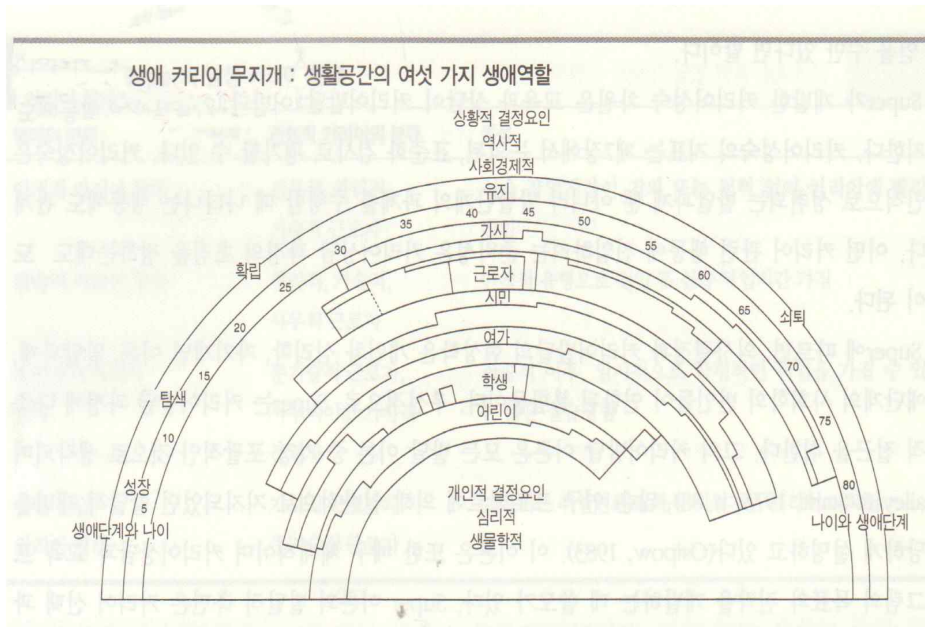
(Specification) 되는 것을 거쳐 특정 진로에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향하여 몰입하는 '실행단계'에 들어선다는 것과 Holland의 일치모형과의 통합은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한다.

진로발달의 과정은 자아개념의 발달 및 수행과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진로지도에 있어서의 선택 및 할당을 중심으로 하는 일치모형을 수용하기를 고무하였다. 그는 끊임없이 개인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치이론에 입각한 연결식 접근은 결코 완전할 수 없음을 말한다(Super, 1953). 그러므로 Super의 종적인 역동적인 관점과 Holland의 횡적이고 다소 정적인 관점의 통합에 의해 개인의 일생에 걸친 진로발달과 진로 관련 문제들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본다(임은경, 1997).

Super의 모형과 개인과 직업의 연결 및 선택에 초점을 두는 Holland의 모형을 통합하여 내담자에게 보다 초점을 두어 내담자의 요구, 특성, 역할, 신념등을 충분히 고려한 최적의 상담모형을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임은경, 1997). Super의 생애발달이론과 Holland의 유형론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는 질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Super, 1992). 상호 분리되어 존재하기 보다 둘을 통합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설명력이 보다 증가될 수 있다(Haward&Bray, 1998). 진로연구 및 진로교육은 삶의 영역과 인생의 주기를 통합하는 전 생애적 차원에서의 진로개발을 모색할 수 있어야만 한다. 즉, 직업선택과 진로발달이 인생의 한 시기에 결정되어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광범위한 생애영역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 이해 되어야만 한다. 이처럼 현재의 진로상담의 대안으로 개인이 처한 각자의 환경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므로써, 환경에 맞는 적절한 진로지도와 탐색을 위한 진로상담의 방향을 갖게 된다.

본 연구자는 서양의 진로상담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진로지도나 진로상담의 현장에서 과거에는 Parsons나 Holland 적성검사에서 주로 다루고자 했던 특성·요인이론이나 직업흥미·적성만의 매칭(matching)이론으로 횡적인 접근을 하였다. 요즘은 이에 더불어 Super가 생애 주기이론에서 언급하듯, 자신이 처해진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한다고 제안한다. 이것은 진로발달이나 진로선택시 종적인 접근 개념을 수반하는 구체적 진로 지도와 탐색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랜 역사를 갖고 우리의 상담기능을 맡아온 명리사주학적 접근을 통해 이 두 가지 진로에 대한 횡적, 종적인 개념을 찾을 수 있다. 요컨대, Holland의 흥미·적성이나 직업적성은 사주원국에서, Super의 개인적 환경은 대운과 세운의 관계속에서 이 두 가지 개념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 고로 본 연구자는 진로상담의 도구로서의 대안을 위해 명리사주학적 접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Development” by D.E.(Super,1965)



[그림 II- 2] Super의 생애진로무지개

2. 명리사주학적 진로상담

가. 명리학(命理學)의 역사

역의 유래는 삼왕오제시대의 복희씨(BC1195-1080)로부터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설에 의하면 5600여년 전 황하(黃河)에서 나타난 용마의 등에 있는 그림의 형상을 보고 팔괘를 만들었다는 사마천설이 있다. 우리나라 주역이 처음 시작된 것은 한무제 원년(BC108)에서 서진 말까지 400년간 중국의 군현이었던 이 무렵 아주 일찍 전해졌을 것으로 보인다(심경호, 1994).

고대 우리나라의 교육형태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한 실제교육과 이론교육이 결부된 생활교육이 대두하여 고대사회의 주류를 이루었다. 주역이 실제로 학교교육의 주요과목으로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태학이 세워지면서 시작되었다. 통일신라 학교 교육은 31대 신문왕 2년 682년 처음으로 당제를 모방하여 경주에 국학을 세워 주역을 주교재로 교육하였다. 고려왕조 때 국학을 확충하고 철제를 설치하여 주역을 러택제라 하여 경학의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그 뒤 제생의 과목으로 규정하여 2년간 공부하도록 하였고 독서출신과 등급중에서 특품에 오경삼사를 시험과목으로 과거시험에 포함시켰다.

조선시대에는 성균관에서 태조 7년(1398)에 주역을 가르쳤는데 대학 1개월, 중용 2개월, 논어와 맹자를 각각 4개월을 가르친데 비하여 주역을 7개월이나 가르쳤으니 우리의 조상은 주역을 얼마나 중요시 했는가를 알 수 있다(신상춘, 1991). 역을 역사적으로 엄밀하게 연구할 때는 역, 주역, 역경의 명을 혼동해서는 안 되지만, 역 전체의 원리를 연구하여 인간사의 천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자할 때는 명칭을 혼용해도 무방하다(심경호, 1994).

선현들은 주역을 풀이한 학문으로 명리사주학이란 역서를 만들어 내었으며 약 1000년 전 중국의 송나라 때 서자평(본명 서거이)에 의해 지금의 음양오행을 이용한 명리사주학이 최초로 정착되었다. 이에 앞서 낙낙자와 귀곡자가 명리사주학의 시원이라 볼 수 있고, 서자평은 일간(日干) 중심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새로운 법을 창안하여 근래까지 활용되므로 자평명리학의 시조로 보는 것이다(이영일, 2006). 우리나라 사주명리학이 언제 전래되었는지를 명시하는 정확한 자료는 현재 알 수 없으나 조선 초기에 편찬된 조선 왕조법전인 <경국대전>을 보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고려조에서는 서운관이 있었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1430년 세종12년에 서운관을 관상감으로 고쳐 불렀다. 관상감에 종사하는 기술관에는 잡과가 있었는데 잡과에는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 4과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음양과>내에는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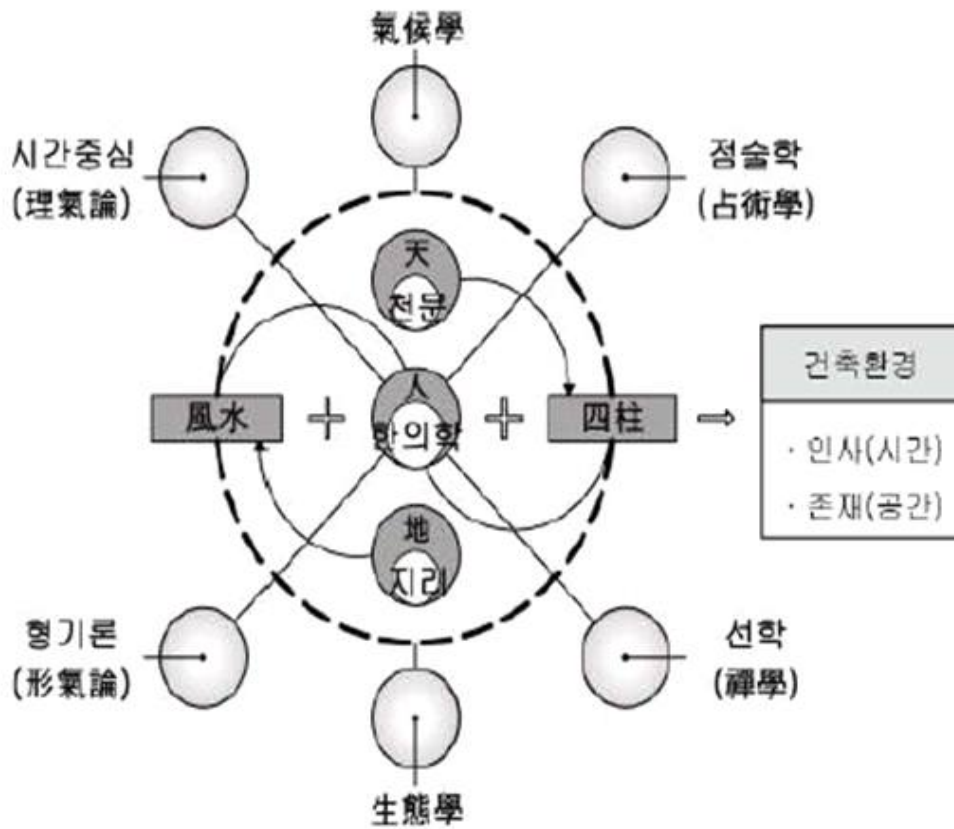
문학, 지리학과 함께 명과학이 포함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명과학은 사주명리학을 지칭함은 물론이다. 전문적으로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을 국가에서 과거시험으로 선발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1460년 세조6년). 요즘식으로 전문기술직이었다. 초시 1차에서 천문학 10명, 지리학 4명, 명과학 4명을 뽑았고 복시 2차에서는 천문학 5명, 지리학 2명, 명과학 2명을 뽑았다. 사주팔자에 능통한 자를 관료로 최종 2명을 등용해서 종7품내지 9품의 벼슬을 주었다. 중인 계급들이 응시를 했고 3년에 한번씩 자·오·묘·유년(子午卯酉年)에 2명으로 적은 인원만을 선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이영일, 2006). 명과학을 담당하고 교육했던 관직의 명이 명과학 훈도와 명과학 교수였다(이희승, 1996).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개인이나 부족, 국가의 미래를 알기위한 노력은 여러 수단과 방법으로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다. 초기에는 자연의 변화현상이나 법칙을 통해 영감이나 직관, 초 자연적 현상이나 신의 존재에 의존하며 시도되었다.(조규문,2005) 그러나 동양과 서양은 각기 다른 학문의 체계를 정립하여 이를 발전시켰다. 특히 동양은 일정한 변화를 거듭하는 대 자연의 이치를 응용한 음양오행의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예측의 이론적 근거를 정립하여 왔다(조용준, 2012). 운명학이란 단지 명을 판단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을 개선할 방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정년현, 사주추명학 입문).

명리학은 현존하는 최고의 명리학서인 연해자평을 쓴 서공승에 의해 본격적인 이론체계를 갖추게 된다. 서공승은 자평이란 이름으로 더 알려져 흔히 자평명리학이라고 한다(김경희, 2006). 그 후, 장남이 쓴 명리정종과 명나라 만민영이 쓴 삼명통회가 있었고, 명조 초기 유백온에 의해 적천수가 약 4-5 백년동안 비전으로 내려오다가 청나라 때 알려지면서 사주명리학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이선중, 1994).

명리학(命理學)이란 음양오행에 기초를 두고 한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천간과 지지의 8개의 글자로 부호화하여 그 운과 명을 풀이해보는 첨단 과학이다(이문정,2007).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진시황 26년에는 강력한 국가의 통치를 위해 이용 되었으며, 서양의 점성술과 천문학의 기초가 되었다. 고대 중국인들도 3천년 전부터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출생에서 우연한 동기를 찾아 필연적 결과로서의 인간의 운명인 사주를 통해 관찰하기 시작했고, 농사나 정치를 위한 방법으로도 접근한 것은 물론이며(이문규, 1997), 명대와 청대를 거쳐 가장 발달해 왔다(장샤오위엔, 2008). 이렇게 명리학은 정보(information)를 분석하고 삶의 방향성(direction)을 예측하는 학문이다(김배성,2006).

앞서 언급했듯이, 오랜 역사와 경험과학의 결과로 발전한 동양사상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실증적 보편성의 원리” 라 평가되는 임상 통계학적 검증방식의 논리에 밀려 미신이나 허황된 학문으로 취급 받아왔다. 반면, 최근 상담분야에서는 서양의 인간중심적 접근에 따른 감정반영(reflection) 특히, 내담자의 부정적



[그림 II- 3] 명리학을 구성하는 원리(최성수, 2010)

감정은 내담자가 대단히 당혹스러워 하는등 장애요소가 수반된다고 말한다.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동양문화의 생활 습관을 지적하며 서양적 상담지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이장호, 1986).

특히,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담문화는 상담실을 찾는 것보다는 철학관이나 무속인을 찾는 경향이 많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에게서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동양적 상담문화가 있었다. 점복의 이용률을 볼때, 상담사를 찾는 비율보다 철학관이나 무속인을 찾는 비율이 높다(이영일, 2006). 그 만큼 철학관이나 점복을 치러가는 우리문화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특성상 상담으로서의 기능을 해왔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명리학의 재인식을 위한 작업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나. 명리학(命理學)의 선행연구

이렇게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우리의 서민사회에 뿌리 박고 있는 명리사주 분석의 구조는 크게 사주원국과 대운·세운으로 구성된다. 사주원국은 사주팔자 여덟글자로 천간과 지지를 하늘과 땅의 기운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개인이 처한 환경인 대운(大運), 세운(歲運), 월운(月運), 일운(日運)의 구조로 되어 있다. 사주원국은 태어 나면서 받는 변하지 않는 구조가 된다. 그러나 대운·운등의 환경은 주기적인 싸이클을 갖고 있어 사주원국에서의 정해진 명(命)이 주기와 희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먼저 사주원국에서는 인간의 생·노·병·사와 더불어 직업적성, 흥미, 성격뿐만 아니라 개인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명리학의 직업이론과 적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명리학에서 전통적으로 직업판단이 용신(用神), 격국, 오행이 다른 것들보다 직업판단에 대한 적용률이 높았다고 말하고 있다. 1인당 10가지 직업판단을 측정하여 얻은 순위는 용신오행(6.26), 오행일간(5.99), 격국(5.91), 격국월지(5.67), 오행최강(5.77), 일주중심(5.53), 용신육친(5.30), 십이운성(5.25), 일지(4.92), 일간월지(4.38) 순으로 말한다. 이 중에서 7-8가지 정도만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한사람의 직업적성을 파악한다면 어떠한 검사보다도 더 정확할 것 이라고 본다(정의록, 2010). 명리학 용신도출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에서 명리학의 직업론에 의하면 직업은 용신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십신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과 오행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유경진, 2008).

더불어 직업적 진로적성이나 흥미뿐만 아니라, 명리사주분석에서는 성격유형도 알 수 있다. 성격특성과 예측을 위한 명리학에 관한 연구에서 서양의 성격 이론에 의한 성격특성과 사주명식에 의한 성격특성은 매우 유사하며, 사주명식에 근거하여 개인의 성격특성을 예측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정국용, 2003.) 그리고 명리학의 십성의 성격과 에니어그램의 성격심리와의 비교(김경희, 2008)를 통해서도 명리학의 사주원국에서 분석 가능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방면으로 명리사주분석에서는 육체적 질병, 정신분열증(schizophrenia)과 같은 정신병리 현상도 분석 가능하다(송병근, 2006). 명리사주학과 서양의 심리학자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flow)이론과 함께 사주의 십성에 의해서 학습몰입의 중요한 변화작용이 일어난다는 서양심리를 접목시킨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나경미, 2014).

이처럼 사주원국 자체에 성격적성과 직업흥미와 더불어 분석 가능한 많은 내용들이 있음을 알았다. 근래 들어 사주원국의 중요성과 함께 개인이 처해진 환경으로 인한, 대운·세운의 주기성과 방향성이 현실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고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운·세운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서양의 진로상담에서 Super가 거론하고 있는 개인이 처해진 환경에 의해 진로가 결

정될 수 있다는 경향과 함께 한다. 사주팔자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이 두가지의 기능을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배현배(2008)는 사주의 대운 및 세운이 직업변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의 연구에서 직장 다변론자의 명조의 특성이 갖는 일반적 경향에 중점을 두고 격국, 관성의 형태와 그의 태과불급, 형충회합, 신살중 역마와 지살등 이상의 네 가지 관점에서 도출된 결과를 각각 정량적 수치로 변환하고 합산된 모형으로 개량화하여 직장다변론자의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직장이동에 있어 용신의 합이 충에 비해 직장이동에 더 중요한 요소이며, 세운보다는 대운이 중요함을 거론한다. 특히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대운 및 세운이 직업변동의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행복한 개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직장이동에 있어 용신의 합이 충에 비해 직장이동에 더 중요한 요소이며, 세운의 합 보다는 대운의 합이 중요하고 세운보다는 대운이 중요함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명리학적 측면에서 직장인의 직업 선택시기에 있어 자신의 사주와 운에 적합한 이직결정으로 기대수준과 취업환경의 불일치에 따른 개인의 불행 및 사회적 낭비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명리사주분석이 개인의 직업 선택시기 및 이직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배현배, 2008).

김경희(2006)는 자영업 종사자 사주와 재운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자영업 종사자의 사주가 소득에 의한 재산형성과 상관관계가 있고, 사주에 따른 사업업종을 하고 있음을 검증했다. 사주의 생김새에 따라 부의 그릇의 차이가 나고, 운의 흐름에 따라 타사업종은 재성에 관계되고, 원국에 재성이 없더라도 대운에서 재성운이 오면 그 사업업종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사주 원국에서 “신왕재왕”의 경우에는 그 그릇만큼의 부를 가질 수 있으나, “신약재약” 또는 “신약재왕”일 경우에는 대운에서 재성이나 인성 또는 비겁의 운이 와야 부를 가질 수 있다. 사주원국에서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대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운(運)이 와야 하고, 그 대운이 지나가면 부를 지키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운이 어떤 시점에 있느냐에 따라 부의 크기가 다르게 된다. “신약재약”에서는 일간의 힘이 재의 힘이 미약하여 그릇의 크기가 크지 않은 상태이므로 어떤 운이 온다 해도 일간과 재가 균형을 이룰 수 없으므로, 많은 부를 갖지 못하며 유지도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김경희, 2006).

이처럼 다각적으로 명리학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사주원국이 아무리 좋아도 환경인 대운·세운에서 유리하게 흘러야 좋은 명(命)으로서의 구실을 한다. 불리한 대운·세운의 환경을 갖게 된다면, 사업자에게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주원국에서는 중화를 이루지 못하여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용신운(用神運)이 대운·세운에서 도와준다면 사업자에게는 좋은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처럼 사주원국과 함께 환경으로서의 대운·세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표 II - 1 > 명리학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주제	비고
김기승	명리이론을 활용한 선천적성검사 도구개발에 관한 연구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0)
박영창	진로지도에 있어서 명리학적 보완 가능성에 관한 연구	공주대 박사학위논문(2011)
정하룡	명리학의 성격유형 분류연구 MBTI유형별 사주분석을 중심으로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
송병근	정신분열병에 관한 명리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Schizophrenia 와 전광을 중심으로	원광대 석사학위논문(2006)
이문정	명리이론을 활용한 초등학생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7)
박성희	사주명리의 세운(歲運)해석 방법에 관한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2)
배현배	사주의 대운·세운이 직업변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
최찬주	명리학(命理學)의 명(命)과 운(運)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2013)

다. 사주원국에서의 재성 (財星)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명리학에서는 그 관계성을 육신(六神)이라는 이름으로 가깝게는 부모, 형제를 비롯한 혈연관계부터 친구를 비롯한 선배, 후배등의 관계들이 두루 포함된다. 명리학에서 세상을 잘 살아감에 있어서는 환경을 잘 만나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건이다. 더불어 인간적인 환경요건을 잘 타고 태어나는 것 또한 지극히 중요하다. 일간(日干)은 사주팔자의 주인이며 주인공을 뜻하므로 나 또는 일간이라고 한다. 명리학은 사주팔자 상호간에 음양오행이 생·극·제·화·회·합·형·충하는 관계와 구조를 가지고 한 개인의 길흉화복과 빈부귀천과 주변환경을 판단하는 학문이다. 특히 일간이 나머지 일곱자와 맺는 관계를 비롯해 각각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용어가 육신(六神)이며 일명 십신(十神)이라고 한다(박영창, 2007).

본 연구에서는 육신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육신이란 사주팔자의 주인공인 일간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일간과 다른 천간(天干) 지지(地支)와의 상생 상극관계와 음양의 차이를 가려 부모형제와 배우자, 자식 같은 혈연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명예, 대인관계, 지식과 기술, 권리와 의무, 의·식·주와 재산등을 구분한 것이다. 십성은 육신을 세분화한 명칭이다(김기승, 2008). 이러한 육신에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재, 편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이 있다. 다시 재성은 정재와 편재로 구분되는데, 고전 명리서에서 정재는 본처와 고정적인 재물로, 편재는 첩과 대중적인 재물로 이해된다.

육신의 표출법은 일간과 나머지 오행과의 생극제화에 따라 판단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여러 육신의 작용중 재성의 크기와 재성(財性)의 중화(中和)를 위한 대운·세운에서 재성의 불균형을 돕기 위해 필요한 용신(用神)이 합·형·충등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과 함께 재성의 향방을 주로 다루게 된다. 재성은 식신의 기운을 흡수하고, 관살을 생하며 인성을 제압한다. 일간이 강하면 재성(財性)을 도와야 하고 일간이 약하면 재성은 흉신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재성(財性)은 돈과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다. 현대사회에서 특히, 재물은 사회적인 존재의 토대가 되며, 의·식·주를 넘어서 사회의 한 분야로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운명의 지표이다. 또한 과거에는 관성(官星)과 인성(印星)을 으뜸으로 보고 재성(財性)은 관성과 인성을 생하고 조절하는 부수적인 육신으로 판단했지만, 현대는 재성이 주체가 되고, 관성과 인성이 보좌의 별로 판단되기도 한다(박혜영, 2014).

사주원국에서 “신왕재왕(身王財王)”일 경우에는 자신의 그릇만큼 부를 가질 수 있다. ”신약재약” 또는 “재다신약“일 경우에는 대운·세운에서 재성을 돕는 용신(用神)운이 와야 부를 가질 수 있다(김경희, 2006). 즉, 사주원국에서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대운·세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운이 와야 하고, 그 대운이 지나가면 부를 지키기 어렵게 된다(김철화,2007). 명리학의 고전에 의하면 돈과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인 재성(財性)이 약한사주 일명, 가난한 사주로써 다음과 같이 재다신약(財多身弱) 사주, 군겁쟁재(群劫爭財) 사주, 신약재약(身弱財弱) 사주를 일컫는다(민나영, 삼명통회). 본 연구에서는 폐업자라는 특성상 재성이 약한사주일 것이라는 가설과 함께 사주원국에서 가난한 사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재다신약 (財多身弱) 사주 (심재열, 상계서)

丙丙乙庚 대운 壬辛庚己戊丁丙 (男)
 申申酉申 辰卯寅丑子亥戌

사주원국의 명(命)이 삼신(三申)의 재성을 만났으니 미상불(未尙不) 가명(嘉命)이다. 그러나 병화는 계수로써 관성을 삼고 신금(申金)으로 재를 삼는 바 삼신일유(三申一酉)의 재가 지지에 전유(全有)하다. 병(丙)은 신(申)에 병(病)이 되고 유(酉)에 사(死)하였으니 신주는 무기하고 재성은 태왕한테 운이 다시 금수(金水)의 절기로 행하니 신약함이 태기(太基)하다. 재왕(財旺)하여 귀살(鬼煞)을 생하므로 신주를 패극해 오기 때문에 재를 얻을 수 없으니 소이(所以)로써 가난한 명이 된다.



[그림 II- 4] 재다신약 사주

재다신약(財多身弱)사주는 재물은 많으나, 내가 약하므로 그 많은 재물을 내것으로 소화시킬 수 없는 형국이다. 결국 많은 재물을 내 것으로 갖을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예컨대, 벼락부자가 되었으나 재물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보니, 돈에 치여 사업투자는 안하고 여자와 주색잡기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2) 군겁쟁재 (群劫爭財) 사주 (김배성, 2003)

丙癸壬丁	대운	乙丙丁戊己庚辛	(男)
辰丑子亥		巳午未申酉戌亥	

이 사주는 계수 일주가 해자축(亥子丑) 수국(水局)을 이루어 비겁이 태과하다. 연간 정화와 시간 병화의 재물이 있으나, 모두 절지에 풍전등화의 모습이다. 보잘 것 없는 재물을 놓고 여러 형제가 서로 차지하려고 투쟁하는 모습으로 곤궁함이 끊이지 않는다. 한 겨울에 입을 것도 없이 구걸만 하는 거지의 사주이다.



일간(강)



재성(약)

[그림 II- 5] 군겁쟁재 사주

군겁쟁재(群劫爭財)사주는 나의 힘은 비대한데, 재물의 크기는 너무 작아 재물이 들어오는 즉시로 비견·겁재들의 다툼속에 처해지는 형국으로 내 것이 될 수 없다. 예컨대,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해야 하는데 내 힘이 너무 비대하여 작은규모의 사업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으리으리하게 사업규모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사주구조이다.

(3) 신약재약(身弱財弱)사주

1961년4월23일(음) (김경희, 2006)22시생

丁庚甲辛 대운 丁戊己庚辛壬癸 (女)
亥午午丑 亥子丑寅卯辰巳

오월(午月) 경금(庚金) 일간이 년주 신축(辛丑)과 시지 해수(亥水)로 재관(財官)에 대항력을 가지나 무력하다. 월상 재성 갑목(甲木)은 년지 축토(丑土)와 시지의 해수(亥水)에 의지하나 비겁의 극과 관설(官洩)되어 재성도 무력하다. 일간(日干)도 약하고 재(財)도 약하니 신약재약이다. 신약재약인 사주는 작은 돈에 매이게 되는데 경금(庚金)일간이 정인(正印)에 동주한 겁재(劫財)와 식신(食神)으로 왕한 관(官)을 대항한다는 것은 주인이 아닌 협조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일간(약)



재성(약)

[그림 II- 6] 신약재약사주

신약재약(身弱財弱)사주 혹은 무재성(無財星)사주는 돈과 재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도 하고, 재물운도 없는 돈과는 상관없는 사주구조다

한편, 앞의 재성(財星)이 약한 사주들과 달리 재물도 많고 나의 재물을 다루는 능력도 강한 사주를 소개한다.

(4) 신강재강(身強財強)사주 / 부자사주 (박주현, 2000)

戊癸丙壬 대운 癸壬辛庚己戊丁 (남)
午亥午申 丑子亥戌酉申未

계수(癸水)가 오월(午月)을 낳고 또 오시(午時)를 얻었으니 재관(財官)이 태왕한 데 반가운 것은 일간이 득지를 한 것이고, 더욱 묘한 것은 년간(年干)의 겁재(劫財)가 장생(長生)에 앉아 있다는 점이다. 재성(財星)이 기운이 있고 더욱 부러운 것은 오행에서 목이 없다는 것이니 그로 인해서 수(水)를 설하지 않고 또 화(火)를 돕지 않는다. 임수(壬水)를 용신으로 하는데, 더욱이 운이 서북(西北)이니 금수(金水)가 득지를 하여 부모유산도 많았고, 스스로 창업을 하여 수십억을 벌였으며 한 처와 네 첩을 거느리고 아들은 여덟이나 되었던 것이다.



일간(강)



재성(강)

[그림 II-7] 신강재강사주

위의 사례는 신강재강(身強財強)사주다. 일간인 나도 강하고 재성(財星)도 강해서 일간에게 오는 재물을 모두 내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주구조로 사업을 하면 길할 것이다. 대부분의 재벌의 사주들에서 볼 수 있다. 사주원국 자체가 중화(中和)를 이루어 오행이 골고루 평형을 이룬다면 어떠한 대운(大運)이나 세운(歲運) 등의 환경의 요인이 바뀌게 되어도 무난히 지나가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화(中和)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더욱 많다. 대운·세운이 자신에게 용신(用神)이나 희신(希神)으로 올 때는 다행이지만, 기신(奇神)이나 구신(求神)이 올 경우 편중되거나 오행이 균형을 잃은 사주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진소암, 명리약언) 즉, 삶의 기복이 심한 경우가 된다.

이처럼, 재성(財性)의 태과불급(太過不及)이 심할수록 재성에 대한 미련이나 더욱 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나타나며, 재성(財性)이라는 그릇크기에 걸맞지 않게, 대운·세운이 협조하지 않는 한, 즉 용신운이 오지 않는다면 사업은 백전백패(百戰百敗)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 환경으로의 대운(大運)과 세운(歲運)

사주원국에서 사주팔자 여덟글자에서 인간의 생노병사와 더불어 많은 정보를 준다. 더불어 Super가 말한 인간이 처해진 구체적 환경을 알 수 있다. 즉, 명리학에서의 10년주기인 대운(大運)과 1년주기의 세운(歲運), 한달주기의 월운(月運), 하루의 주기에 해당하는 일운(日運)이 개인만의 구체적 환경을 대신할 수 있다. 전통적 방법에서 운의 해석은 행위의 결과를 알 수 있으나, 시간의 주기성을 연구한 운의 해석에서는 운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차이가 있다. 불황시점을 맞이한 중소기업 CEO의 경우 본인의 대운과 세운이 모두 흉한 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대운이 흉하고 세운이 길할 경우보다는 대운이 길하고 세운이 흉할 경우가 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운과 세운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대운의 상생이 중소기업 CEO의 불황시점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세운이 대운을 충극할 때 보다는 대운이 세운을 충극할 때가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김재성, 2004).

이렇게 종합한다면, 재성(財星)에 문제가 있고 해당년도인 세운에서 합·형·충이 중복되어 나타나며 대운이나 세운이 흉운에 해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용신과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기신(忌神)이 불황시점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운과 세운중 어느 한쪽이 기신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황시점이 도래하였음을 말하고 있다(김재성, 2004). 용신과 기신이 불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운의 경우 기신으로 흉인 경우가 92.3%였으며, 대운(大運)과 세운(歲運)을 분석해 보면 재성에 문제가 있고 해당년도인 세운에서 합·형·충이 중복되어 나타나며 대운이나 세운이 흉운에 해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용신과 기신이 불황시점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운과 세운중 어느 한쪽이 기신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황시점이 도래하였음을 말하고 있다(김재성, 2004).

전통적 방법에서 운의 해석은 행위의 결과를 알 수 있으나, 시간의 주기성을 연구한 운의 해석에서는 운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명리사주분석을 통해서 항상 찾을 수 있는 것은 시간의 주기적인 반복성에 따른 운의 방향성임을 말한다(박성희, 2012).

다음사례들은 사주원국과 환경인 대운·세운의 관계속에서 일간이 대운에서 용신운을 만나거나, 용신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하는 사례들이다. 사주원국과 대운·세운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1) 사주원국에서 재성도 강하고 운도 좋게 작용한 사례 (김경희, 2006)

辛壬丙甲 대운 癸壬辛庚己戊丁 (男)
亥寅子申 未午巳辰卯寅丑

임수(壬水)가 자월(子月)에 나서 겁재가 월령을 잡고 년월(年月)의 목화(木火)는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일지의 식신은 다시 충으로 깨어지니 별 수가 없는 사주처럼 보인다. 그런데 일지는 인목(寅木)이고 시지는 해수(亥水)인 것이 반가우니 목화(火)의 생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해(寅亥)가 합(合)이 되니 목화(木火)의 기운이 더욱 단단하다. 자진(子辰)이 모여서 수국(水局)이 되니 식신은 도리어 생부를 받는다. 이른바 재물은 100억이 넘었으니, 대저 거부의 사주에서는 재성(財星)이 많은 것이 아니고 다만 생화하여 유정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재성의 기운이 문호를 통했다고 하는데, 만약 재(財)가 왕지에 임하여 관성을 보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일주가 실령했다면, 반드시 비겁을 얻어야 아름다운 것이다.

이 사주는 사주원국도 부자사주로서 중화(中和)를 이룬 사주이기도 하고 돈과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인, 재물의 그릇이라는 크기도 크고 일간(日干) 역시 재물을 지킬 수 있는 사주다. 실제로 사업가의 사주에서 흔히 볼 수 있어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실제로 재벌들의 사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즉, 명(命)도 좋고, 운(運)도 잘 맞아준 사례임을 알 수 있다.

(2) 사주원국은 나쁘나 대운·세운에서 용신(用神)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례

戊戌庚庚 대운 己戊丁丙乙甲癸壬辛庚
午辰辰申 丑子亥戌酉申未午巳辰

일간 무토(戊土)가 계춘의 오시(午時)에 생하여 왕성한 듯하다. 사실 춘의 허토는 6월이나 9월의 토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또 양진(兩辰)은 물을 머금고 습하게 되었으니 족히 화(火)를 멸하고 금(金)을 생한다. 천간에 투출한 2개의 금과 지지의 자진(子辰) 회합은 일주의 기운을 지나치게 설한다. 용신(用神)은 반드시 오화(午火)에 있다. 수목이 보이지 않음이 기쁘다. 일주와 인수가 손상을 받지 않으니 정신이 넉넉하고 순수하여 중화(中和)를 이루었다. 평생 벼슬의 바다에서 파란이

없으며 30여 년 동안 태평안상을 하였는데, 자운(子運)이 오면서 수국(水局)이 되는 바람에 죽었다. 수명은 팔십이었다(임철초, 적천수천미).

사주원국에서 “신왕재왕”일 경우에는 그릇만큼의 부를 가질 수 있으나, “신약재약” 또는 “재다신약”일 경우에는 대운·세운에서 재성을 돕는 용신(用神)운이 와야 부를 가질 수 있다(김경희, 2006). 사주원국에서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대운·세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운이 와야하고, 그 대운이 지나가면 부를 지키기 어렵게 된다(김철화, 2007). 반면, 중소기업 CEO의 불황시점에 관한 명리학적 연구에서는 원국을 돌보는 용신운이 오면 일이 순조롭게 풀려 기업은 불황을 맞이하게 되지만, 기신운(忌神運)이 오면 일이 순조롭지 못해 기업은 불황을 맞이할 수 있어서 불황시기는 대운·세운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고 판단됨을 말하고 있다(김재성, 2004).

이런 사주는 사주원국은 재성이 약한 사주이나, 다행히도 10년마다 바뀌는 환경인 대운이 재성(財星)을 돕는 형국이 되어서 그 부족함을 보충하여 대발할 수 있는 사주다. 예컨대, 초년에는 고생하다가 말년에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주를 갖게 된다.

(3) 사주원국도 나쁘고 대운·세운도 좋다가 좋지 않게 흐른 사례

재다신약(財多身弱)사주의 사례 1946년,12월,26일(음)10시생(김경희, 2006)

癸丙辛丙	대운	戊丁丙乙甲癸壬	(男)
巳申丑戌		申未午巳辰卯寅	

축월(丑月) 병화(丙火) 일간이 시지의 록을 얻었으나 재관으로 인하여 약하다. 재성(財星)은 식상이 생하고 관이 보필하여 기세가 왕하다. 신은 약하고 재성은 왕하니 재다신약사주이다. 년지의 비견은 재를 쟁합하나, 협력자적인 역할로 오히려 병화(丙火)일간의 재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으며, 시장 계수관성이 정재(正財)를 막고 있다. 재다신약사주인 사주는 대운이 인비(印比)로 오면 돈을 벌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사주의 주인공도 인성운로에 식료유통업을 하여 돈을 벌었으나, 진대운(辰大運)에 식재관(食材官)이 왕해지니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해 망하였다.

일간이 극도로 신약하면 재물로 인해 재앙이 생긴다. 또한, 불행하게도 사주원국에서 조차 사업을 해서도 안되며, 환경인 대운에서 용신운이 오지않아 사업을 할 때마다 백전백패(百戰百敗)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주구조는 사업에 불리하기도 하고, 소위 “운대도 맞지 않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사주원국에서도 재성이 약한 사주였지만 초년에 일간(日干)에게 도움이 되는 운으로 흘러가다가 다시 운대가 맞지 않아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사주구조가 된다.

(4) 사주원국은 나쁘나, 대운에서 용신운(用神運)이 와서 좋아진 사례(김철화, 2007)

丙丙戊甲	대운	戊丁丙乙甲癸壬辛庚己
申寅辰寅		寅丑子亥戌酉申未午巳

일간인 병화(丙火)가 인성인 인목위에 앉아있고, 출생한 시기가 진월(辰月)이므로 인목인성의 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토가 비록 당령하였지만, 목의 기운 역시 견고한 것이 이 사주인 것이다. 그런 사주의 시지에 있는 신금(申金)이 일지에 있는 인목을 충하게 되어 적절하게 중화를 이루게 됨으로서 신금(申金) 재성을 용신(用神)으로 할 수 있는 사주라서 아름답기까지 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못마땅한 것은 시간에 비견으로 지지에 있는 신금(申金) 재성이 압박을 당하고 있는 꼴이어서 지지에 인목을 충하고는 있지만, 무력한 충이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까닭으로 운행이 기신인 사오미의 남방화운(南方火運)으로 진행되는 기간에는 심한 고통을 겪었으나, 용신인 임신(壬神)과 신유(申酉)대운을 지나는 20년 동안은 신금(申金)이 인목(寅木)을 충거하게 되어 창업을 하게 되었고, 집안을 부흥시키게 되었다. 용신 대운에 발복하고 기신운(忌神運)에 고생을 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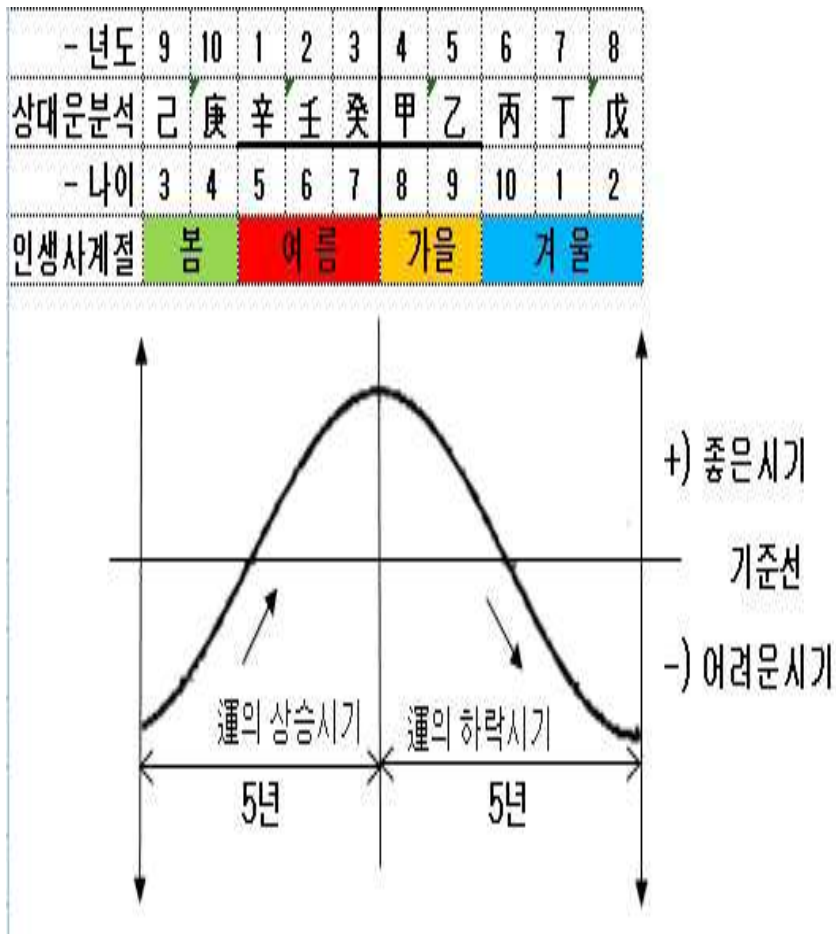
이러한 사주는 사주원국상에서는 재성(財星)이 약한 사주지만, 대운에서 없던 재성을 보좌해 주는 운이 작용해 성공에 이르게 되는 사주의 구조를 갖는다. 대운이라는 운대가 잘 맞게 흐른 경우다. 타고난 명(命)보다는 운(運)이 좋은 사주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운대가 맞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다.

한편, 최근 명리사주의 세운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계절의 주기성을 바탕으로 전체 10년을 관장하는 10년 대운이 좋아도 대운 안에서 1년씩 매년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의 주기성인 개인의 환경을 거론하고 있다(박성희, 2012). 다음 사례를 살펴보면, 세운(歲運)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박OO 전 대통령 사주 1917년 양력 11월 14일 인시(寅時)

戊庚辛丁 대운 壬癸甲乙丙丁戊己庚辛 (남)
 寅申亥巳 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이 사주에 대해 세운의 흐름을 인생 4계절로 전환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 8] 박OO 전대통령(前大統領)인생4계절 (박성희, 2012)

세운(歲運)이 上昇하는 기간은 매 9년부터 3년까지(3세~7세) 5년이고, 하락(下落)하는 기간은 매 4년부터 8년까지(8세~2세) 5년이다.
 그러나 그 운(運)을 몸으로 실제 느끼는 기간으로 구분하면
 세운(歲運)이 상승(上昇) 하여 좋은 기간은 매 1년부터 5년까지(5세~9세) 5년이고, 세운(歲運)이 하락(下落)하여
 어려운 기간은 매 6년부터 0년까지(0세~4세) 5년이다.
 이를 자연(自然)의 4계절과 같이 인생의 4계절로 구분하면,

봄은 매 9년과 0년(3세와4세)의 2년,
 여름은 매 1년부터 3년까지(5세~7세)의 3년,
 가을은 매 4년과 5년(8세와 9세)의 2년,
 겨울은 매 6년부터 8년까지(0세~2세)의 3년이다.
 가장 힘들어 하는 기간은 겨울로 매 6년부터 8년까지 3년(0세~2세)이다.

박 〇〇 前大統領의 삶을 (사)박정희대통령기념 사업회(121)를 통(通)해 알아본 결과 세운(歲運)의 상승(上昇)기간과 하락(下落)기간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세운(歲運)이 상승(上昇)하여 좋은 기간 5년(매1년부터 5년까지)의 내용을 살펴 보면

- 1932년(여름)- 大邱師範學校應試 1,070명의 응시생(應試生) 중 51등으로 합격
- 1944년(가을)- 일본 육사(日本 陸士)57기로 임관(任官)(300명 중 3등으로 졸업)
- 1953년(여름)- 육군준장(陸軍准將)으로 진급(進級)
- 1954년(가을)- 대기발령(待機發令)
- 1961년(여름)- 군사혁명(軍事革命)으로 政權掌握이양
- 1962년(여름)- 대통령 권한대행(大統領權限代行)
- 1963년(여름)- 대통령취임(大統領就任) (제3공화국)
- 1971년(여름)- 대통령당선(大統領 當選) (3선에 성공)
- 1972년(여름)- 10月 유신단행(維新短行)
- 1974년(가을)- 육영수 피살사건(被殺事件)

세운(歲運)이 下落하여 어려운 기간 5년(매6년부터 0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1939년(봄)- 만주국(滿洲國)의 군관(軍官)으로 지원(支援)했으나 탈락(脫落)
 1948년(겨울)- 여수.순천사건으로 逮捕, 死刑宣告를 받음.
 1957년(겨울)- 7사단장(師團長)
 1959년(봄)- 제6관구 사령관(司令官)
 1968년(겨울)- 김신조의 청와대 기습사건(靑瓦臺 奇襲事件)

1978년(겨울)-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를 통한
第9代大統領취임(就任)1979년(봄)- 시해사건(弑害事件)으로 사망(死亡).

운이 상승(上昇)하는 여름과 가을의 시기와 하락(下落)하는 겨울과 봄의 시기로 구분되는 삶이 나타난다. 세운(歲運)의 흐름에 관계없이 좋게 보이거나 힘들게 보이는 일이 생기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운(運)의 흐름과 일치(一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는 대운의 중요성과 함께 10년이라는 대운의 구조속에서 세운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대운 10년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사람에게도 자연의 계절변화에 따른 시차를 적용하여 인생 4계절로 구분하고 각 계절마다 나타나는 특성을 자연의 계절적 특성에 접목시키는 새로운 운의 해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태어난 시간을 간지(干支)로 표시한 사주를 분석하면 오행의 불균형 분포나 강약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오행이 불균형된 사주체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 운동을 통해 주기성을 갖고 규칙적으로 작용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행이 중화를 이룰 때와 편향되어 중화를 이루지 못할 때가 일정한 기를 갖고 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시간의 주기성이 있기에 삶에 대한 규칙적인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게한다(박성희, 2012).

위의 여러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환경인 대운·세운의 희기는 중요하다. 근래들어 명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들 중에서 예컨대, 사주의 십성과 몰입과의 상관성연구를 통해 사주원국에만 한정되어진 연구로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대운이나 세운에 따라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지 못함을 아쉬워 하고 있다(나경미,2014). 이것은 사주원국 즉, 타고난 명(命)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환경인 운(運)의 중요성을 지적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명이어도 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환경의 주기속에서의 희비를 만드시 살펴야 함을 언급하는 것이다. 사주원국에서 중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대운이나 세운에서 일간에게 필요한 용신운이 오면, 기회를 만회할 수 있다. 그러나 대운·세운이라는 환경에서 조차 도움이 없고 기신운(忌神運)으로 흐른다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백전백패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은 서양에서 말하는 Holland가 말한 진로 적성과 흥미의 중요성과 함께 자신의 주어진 개인마다의 환경에 의해 진로가 결정된다는 Super의 종적인 측면을 명리사주 분석적 접근을 통해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 선정, 연구절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사용한 연구도구,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가.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에서 2014년도 4분기에 폐업하는 자영업자들 384명을 대상으로 계획한 연구다. 2003년-2012년까지 10년간 전체 한국의 폐업자수가 백만명에 이르렀다. 그 중 제주도는 10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기준으로 99,957명의 폐업자가 생겼다(통계청, 2014.). 이 수치는 전국 폐업자수의 10분의 1의 비율을 갖게 된다. 제주도에서 매 해마다 직종에 구별없이 10,000명 정도의 폐업자가 생기게 됨을 의미한다. 전체 10년간 99,957명에 대한 모집단의 95%신뢰도와 3%오차에 대한 384명이라는 표본수가 설정되었다(GayL.R, Mills, & A irasia n, P, 2006). 제주도에 국한한 이유는 서양과학에서의 실증적 논리를 위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반화를 위한 작업으로 전체 대상자의 확보와 시간 및 경비의 절감차원에서 표본을 정립 해야만 하였다.

명리사주분석은 타고난 생년·월·일·시를 기준으로 사주팔자가 정해지는 운명 결정론적 입장을 취한다. 그러므로 여러 변인들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지역적 특성이나 남녀노소, 시기, 심리적 변화등 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없다. 전체 한국의 10년간 폐업자 전체를 분석하여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어 민원의 발생을 우려한 세무서에서의 공식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대상자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특성상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폐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을 수 있다. 이로 인한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 폐업했던 경험이 있는 가족, 친구, 지인들을 통해 비확률 표집인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최종 100명의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불가피하게 재선정하게 되었다.

나. 표집방법

첫째, 비 확률표집인 눈덩이 표집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지인들을 통해 확보된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반드시 폐업한 경험이 있고 본인이며, 생년·월·일·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상자만을 선정하였다. 특히 명리사주분석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태어난 생년·월·일·시에서 시(時)와 폐업년도를 모르는 대상자의 설문지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태어난 시(時)는 사주팔자 여덟글자에서 두자에 해당되며, 자식운과 말년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므로 정확하지 않으면 신뢰도나 타당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폐업년도는 폐업당시의 일간(日干)이 처해진 대운·세운이라는 환경속에서 돈과 재물을 벌어들이는 재성(財星)과 일간의 중화(中和)를 위해 필요한 용신(用神)이 폐업시점에서 길한지 흉한지를 판별해야함으로 그 중요성은 크다고 본다.

셋째, 비 확률표집인 눈덩이 표집은 그 특성상 일반화에 대한 한계와 대표성을 띄기 위한 접근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연구와는 달리 명리학 자체는 100년전이든, 10년전이든 지역,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운명(運命)의 결정론적 입장을 따르기 때문이다. 명리사주분석은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학문에서 범하기 쉬운 변인들에 대한 오류로부터 자유롭다. 정신적 심리적 영향이 미치지 않고 태어난 생년·월·일·시만으로도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유아나 청소년, 정신병리를 갖는 장애아동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이나 검사도구를 활용할 수 없는 대상자까지도 분석해 낼 수 있다(이문정, 2007).

100명이라는 대상자는 그 통계상 수치 확보가 미약하다. 그러나 본 연구자를 비롯한 사주명리 전문가의 블라인드식으로 100명에 대한 개별적, 질적분석이 진행되었다. 종합적으로 공통의견을 그 결과로 제시하기 때문에 대상자 한명에 대한 분석가의 이론적 합일(合一)이 이루어진다는 자체도 질적으로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으로서 연구자의 의도대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재성과 용신의 대운·세운에서의 합·형·충등 불리하게 작용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양과학의 완벽한 실증적 검증방식에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을 갖는다. 명리학(命理學)의 실증적 과학화에 대한 소명감과 일반화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 표Ⅲ-1 >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인구통계학적특징

N=100(%)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41	41.0
	여	59	59.0
업종	건축업	8	8.0
	요식업	25	25.0
	제조업	4	4.0
	유통업	14	14.0
	기 타	49	49.0
본인이 생각하는 폐업이유	사업부진	45	45.0
	건강	8	8.0
	가정문제	15	15.0
	학업	3	3.0
	기타	29	29.0

2. 연구절차

2014년 11월 초부터 2015년 3월 초까지 4개월간 직종이나 업태에 상관없이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돈과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인 재성(財星)이 약한 사주로서 사업을 하면 불리하게 될 수 있는 사주임을 밝힐 것이다. 또한, 개인의 환경인 대운(大運)·세운(歲運)에서 돈과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인 재성과 사주의 중화(中和)를 위해 필요한 용신(用神)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폐업에 이를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폐업한 자영업자들 100명을 대상으로 명리사주분석을 위해 필요한 생년·월·일·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총 20문항이다. 명리사주분석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인 폐업한 자영업자의 생년·월·일·시를 바탕으로 음력을 기입한 사람은 음력으로 윤달이나 평달을 정확히 확인하여 산출하였다. 양력으로 작성한 사람은 음력으로 환산하였다. 시간을 모르는 사람은 설문지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시간은 명리사주분석에 있어서 사주팔자중 시주(時柱)에 해당하고 자식운과 말년운을 볼 수 있다. 명리사주분석에 있어서 여덟글자중 두자에 해당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대충 해가 질 때, 첫 닭이 울 때, 점심먹을 때 등의 대략적 시간으로 알고 있는 대상자는 그 시간대에 맞는 시를 추출하였다. 단, 써머타임 대상자인 1948년-1961년생인 경우 정확한 시간을 산정하여 분석에 참고하도록 했다. 또한 폐업년도는 폐업당시의 일간(日干)이 처해진 대운·세운이라는 환경속에서 돈과 재물을 벌어들이는 재성(財星)과 용신(用神)이 길한지 흉한지를 판별해야함으로 그 중요성은 크다고 본다.

본 연구자를 비롯한 3인의 전문가들에게 블라인드 방식으로 각각 분석하게 한 후, 수합하여 일치된 부분만을 최종 분석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일치를 보지 못한 부분은 연구자 삼각기법(triangulation sampling)으로 상의 하에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였다. 폐업한 자영업자의 명리사주 분석 및 설문지 문항을 분석 한 후, 이를 수합 하였다. 명리사주 전문가들의 분석결과가 상이하거나 합일을 이루지 못한 내용은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을 하였다. 일간별 분포, 나이, 폐업이유, 사업운영 기간, 폐업년도 등의 내용을 백분율로 통계처리 하여 도표나 그래프로 표시하고 내용분석을 하였다. 대상자중 5명의 대상자에 대한 명리사주분석방법을 예시로 부록에 제시 하였다.

< 표 III- 2 >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일 정	내 용
2014년 10월 30일	-지도교수와 질문지에 대한 상의
2014년 11월 03일	-제주 세무서 방문 -2003-2012년까지 10년간 100,000명의 폐업자에 대한 자료요청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신상 협조요청 실패.
2014년 11월04일 -2014년 11월 06일	-예비조사 -5점 Likert 척도의 배열순서 정정 -문항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문장등을 -수정, 보완
2014년 11월07일 -2015년 03월 07일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대상자 모집. -120부 배포후 개별적으로 최종 110부수집. (회수율90.2%) -태어난 시(時)와 폐업년도및 불성실 질문지 10부 배제. -총 100명의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 확보. (회수율83.3%)
2015년 03월2일 -2015년 3월 31일	-명리사주 전문가들의 100명에 대한 개별적,질적분석 -질문지 정리(시와 폐업년도를 모르거나, 불성실 질문지 배제. -연구자 삼각화(triangulation)로 합의된 분석결과도출.
2015년 4월 5일 -2015년 4월 10일	-질적으로 분석한 자료와 설문지에 대한 코딩실시. -통계처리및 분석실시

3. 설문지

설문지는 총 20문항으로 5문항의 인구 통계학적 질문과 15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다. 명리사주분석에서는 타고난 생년·월·일·시만 알면 최종적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분석가의 내용에 대한 내용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완하고자 20문항의 설문지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자영업종사자 사주와 재운(財運)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김경희(2006)의 설문지를 참고로 본 연구의 핵심인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중심으로 인구학적 문항으로 1-5번 문항을 추출하였다. 가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답변을 제안하기 위해 6번-15번 문항은 폐업당시의 업종, 영업기간, 만족도, 본인이 생각하는 폐업이유등 사업의 전반적인 질문을 삽입하였다. 16번-20번 문항은 명리사주분석의 사회적 활용가치를 진로상담에 적용하고 실용화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명리학의 사회적 동향에 대한 인식조사연구를 한 이영일(2006)의 질문지 문항을 참고하여 5문항을 삽입하였다.

우선, 예비조사로 10명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어려운 내용이나 어색한 질문,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나 단어가 없었는지 예비조사 후, 최종적으로 5점 리커르트 척도지를 새롭게 편집하고 수정 보완 하였다. 지도교수와 설문지 구성에 대한 상의를 마친 후, 대상자로 부터 설문지를 작성한 후 수합하였다.

< 표 III- 3 > 설문지 문항내용

문 항 (총 20문항)	내 용
1번-5번 문항 (5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의 생년·월·일·시와 정확한 폐업년도 및 인구 통계학적 내용 -김경희(2006)의 자영업종사자의 사주와 재운과의 관계 설문지 참고
6번-15번 문항 (10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리사주분석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항을 질적으로 보충해 주기 위한 문항 선정 -실제로 분석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맞는지 본인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함 -5점 Likert 척도 -예) 본인이 생각하는 폐업이유는?
16번-20번 문항 (5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리사주분석을 진로상담에 실용화하고자 인식조사 실시. -5점 Likert 척도 -이영일(2006)의 명리학의 사회적 동향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참고.

4. 자료 분석 및 처리 방법

가. 질적 분석

본 연구자는 폐업한 자영업자의 폐업과 관련하여 재성과 대운·세운이라는 주제를 놓고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고전 명리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의 명리사주 전문가 3명의 블라인드 방식을 통해 개별적으로 분석하게 하였다. 또한, 연구자 삼각화(triangulation)방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완 하였다. 질적분석으로써, 명리사주분석을 통해 그들의 다른 관점들과 공통의견을 수렴, 보완하여 최종 분석결과를 명리 사주분석표 1에 제시 하였다.

신뢰도나 타당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과와 상응하지 않는 대상자의 결과에 다른 이견이 없는지를 검토 하였다. 예를 들어 본 연구자는 폐업의 주된 이유를 재성의 흐름이 좋지 않다고 예측할 수 있으나, 대상자중 건강이나 가족문제 등 다른 이유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 신뢰도나 타당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문항중에 6-15번 문항에 자신이 생각하는 폐업이유를 파악함으로써, 질적 분석으로 그 미흡함을 보완하였다.

나. 양적 분석

분석결과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주분석표1>과 <설문지1>을 바탕으로 코딩하여 자료처리 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특성과 각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등 카이 스퀘어(χ^2) 검증을 통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각 항목별로 통계를 내어 점유율을 산출하고 비교하여 그 결과를 백분율로서 도표화 하였다.

자료처리는 회수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기본 성향을 빈도분석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폐업당시의 사주원국, 재성과 대운·세운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통계처리된 결과는 연구문제의 가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서 진로연구에 방안이 되도록 활용자료로 제시 하였다. 또한 100명의 폐업한 자영업자의 사주중 5명의 분석방법을 부록에 제시 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폐업한 자영업자의 생년·월·일·시를 바탕으로 돈과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인 재성(財星)의 크기와 개인의 환경인 대운(大運).세운(歲運)의 변화를 통해 폐업시기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기술통계 분석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100명의 폐업한 자영업자의 표본이 성별, 용신, 격에 따라 그 분포가 균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폐업한 자영업자의 명리사주분석을 하기에 앞서 대상자의 사업적 기질에 대한 특징이나 폐업가능성, 본인이 생각하는 폐업이유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명리사주분석가의 결론과 일치될 소지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20문항의 질문지를 통해 질적분석에 대한 신뢰도나 타당도를 보완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격에 대한 빈도

격(格)은 일간의 직업구조를 보는데 있어서 알아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격의 구조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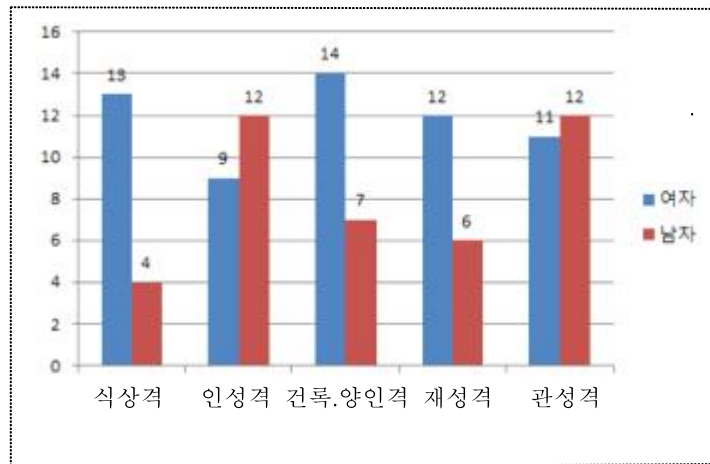
< 표 IV- 1 > 격에 대한 빈도		N=100(%)
	빈도	퍼센트
건축·양인격	21	21.0
식상격	17	17.0
재성격	18	18.0
관성격	23	23.0
인성격	21	21.0
합계	100	100.0

성별과 격(格)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남녀 모두 관성격 23명(23%), 인성격, 건축·양인격이 각각 21명씩(21%), 재성격 18명(18%), 식상격 13명(13%)이다.

〈 표 IV- 2 〉성별에 따른 격에 대한 교차분석

N=100(%)

		격					전체
		건록·양인격	식상격	재성격	관성격	인성격	
성	여 빈도	14	13	12	11	9	59
	자 전체%	14.0	13.0	12.0	11.0	9.0	59.0
별	남 빈도	7	4	6	12	12	41
	자 전체%	7.0	4.0	6.0	12.0	12.0	41.0
전체	빈도	21	17	18	23	21	100%
	전체%	21.0	17.0	18.0	23.0	21.0	100.0



[그림 III- 1] 성별과 격의 교차분석

폐업한 자영업자중 여자는 격(格)에 있어서 건록·양인격 14명(14%), 식상격 13명(13%), 재성격 2명(12%), 관성격 11명(11%), 인성격 9명(9%)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인성격, 관성격이 각각 12명씩(12%), 건록·양인격 7명(7%), 재성격 6명(6%), 식상격 4명(4%)로 나타났다. 사업에 어울리는 격(格)은 보통 식상격이나 재성격인데 비해 공부나 관직에 어울리는 관성격과 인성격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나. 일간(日干)의 신강(身強)·신약(身弱)

일간의 신강·신약은 일간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의지나 힘, 강인함을 말해 준다. 신강하면 힘든 부분도 참고 견딜 힘이 있으나, 신약하면 그 의지가 약하므로 포기하기 쉬운 구조라 본다.

< 표 IV- 3 > 성별에 따른 신강신약의 교차분석

N=100(%)

		신강·신약		전체	
		신약	신강		
성별	여자	빈도	39	20	59
		전체%	39.0	20.0	59.0
	남자	빈도	21	20	41.0
		전체%	21.0	20.0	41.0
전체	빈도	60	40	100	
	전체%	60.0	4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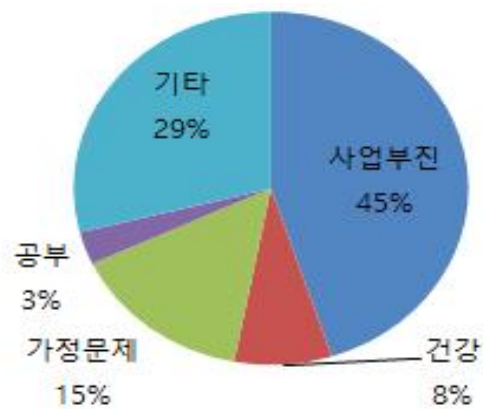
위의 결과는 총 100명의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신약사주가 60명(60%), 신강사주 40명(40%)의 비율을 보였다. 신약(身弱)사주가 신강(身強)사주보다 비율이 많다.

다. 본인이 생각하는 폐업이유 조사

< 표 IV- 4 > 폐업이유

N=100(%)

	빈도	퍼센트
사업부진	45	45.0
건강	8	8.0
가정문제	15	15.0
공부	3	3.0
기타	29	29.0



[그림 III- 2] 폐업이유 조사

100명의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폐업이유는 사업부진 45명(45%), 가정문제 15명(15%), 건강 8명(8%), 공부 3명(3%), 기타 29명(29%)의 비율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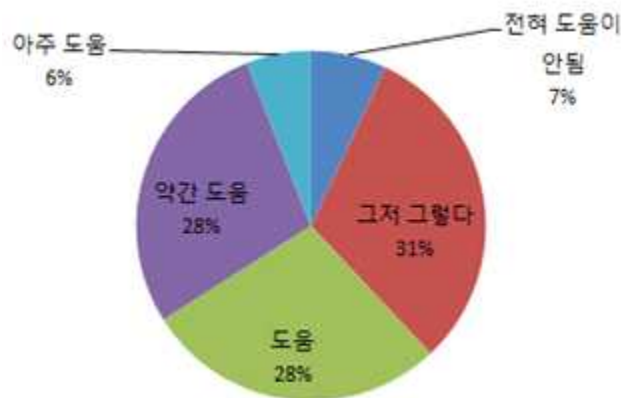
마. 명리사주 분석에 대한 생각

< 표 IV- 5 > 명리사주 분석에 대한 인식조사

N=100

	빈도 (명)	퍼센트 (%)	평균 (M)	표준편차 (SD)
전혀 도움이 안됨	7	7.0		
그저 그렇다	31	31.0		
도움	28	28.0	2.95	1.06
약간 도움	28	28.0		
아주 도움	6	6.0		

(%)



[그림 III- 3] 명리사주분석에 대한 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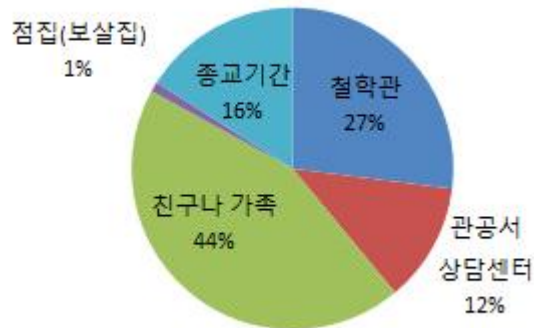
명리사주분석에 대한 인식은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그저 그렇다 31명(31%), 약간 도움된다. 28명(28%), 도움 된다. 28명(28%), 전혀 도움 안된다. 7명(7%), 아주 도움된다. 6명(6%) 도움 된다가 전체 100명중 62명(62%)로 명리 사주분석에 대해 긍정적 의식을 갖고 있었다.

바. 진로상담 조언자에 대한 인식조사

< 표 IV- 6 > 진로상담 조언자

N=100(%)

	빈도(명)	퍼센트(%)
철학관	27	27.0
관공서 상담센터	12	12.0
친구나 가족	44	44.0
점집(보살집)	1	1.0
종교기관	16	16.0



[그림 III- 4] 진로상담에 대한 조언자에 대한 조사

앞으로 진로상담을 위한 조언자는 누구를 택하고 싶은가? 에 대한 질문에는 친구나 가족이 44명(44%), 철학관 27명(27%), 종교기관 16명(16%), 상담센터는 12명(12%), 점집이 1명(1%)의 비율을 보였다. 상담기관을 찾는 비율 보다는 친구나 가족을 통한 진로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질문지를 통한 결과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직업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격국에 있어서 남녀모두 관성격과 건록·양인격의 비율이 더 많았다. 대부분 신강한 일간보다는 신약(身弱)한 일간의 비율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격국의 분포를 볼 때, 질적인 명리사주 분석을 하기에 앞서 직업의 특성상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결과다. 업종으로는 요식업이 25명(25%), 유통업이 14명(14%)를 차지했다. 운영기간은 5년 이하가 총 65명(65%)였다. 폐업이유로는 사업부진이 49명(49%)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새 직업까지의 소요시간은 3년 이내가 24명(24%), 1년 이내가 41명(41%)로 다시 재기 하고자하는 의지가 많았다. 본인의 진로에 대한 조언자로는 상담센터나 기관방문은 12명(12%)에 비해, 친구나 가족이 44명(44%)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철학관에 가서 상담을 받겠다는 대상자는 27명(27%)에 해당했다. 명리사주분석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64명(64%)으로 높게 나타났다. 명리사주분석의 운명감정에 대한 경험은 여러번 있다는 답이 30명(30%), 한 두번 있다는 답변이 44명(44%), 항상 참고한다는 대상자도 7명(7%)로 사업에 대한 진로를 철학관등 사주분석을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리 사주분석에 대한 참고 유무에 있어서 참고 하겠다는 대상자가 86명(86%)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앞으로 다시 하고 싶은 직종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답변이 59명(59%)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2. 연구문제 및 가설검증

가. <연구문제 1>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성(財星)은 약한 사주일 것인가?

가설1-1.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성(財星)은 약한 사주일 것이다.

< 표 IV- 7 > 재성이 약한 사주

N=100(%)

	명	%
신약재약	48	48
군겁쟁재	29	29
재다신약	16	16

폐업한 자영업자중 가난한 사주인(삼명통회) 신약재약(身弱財弱)의 재성구조를 가지고 있는 폐업한 자영업자는 전체 100명중 48명(48%), 군겁쟁재(群劫爭財)의 재성구조는 29명(29%), 재다신약(財多身弱)의 재성구조는 16명(16%)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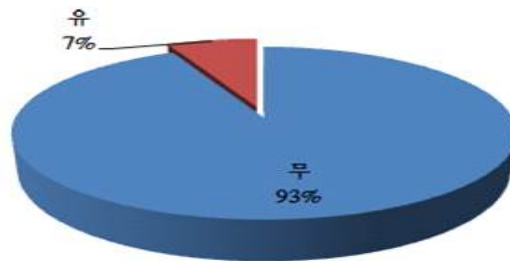
참고) 신강재강(身强材强) 사주/ 부자사주

< 표 IV- 8 > 신강재강 사주

N=100(%)

	명	%
신강재강	7	7

폐업한 자영업자중 부자사주인 신강재강(身强材强)의 재성구조를 가진 폐업한 자영업자는 전체 100명중 7명(7%)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 5] 재성이 약한 사주 분포도

<연구문제1>의 결과에서 전체 폐업한 자영업자 100명중 사주원국에서 신약 재약한 재성구조는 48명(48%), 군겁쟁재 재성구조는 29명(29%), 재다신약 재성구조는 16명(16%), 신강재강 재성구조는 7명(7%)이었다. 이 결과는 가난한 사주라 할 수 있는 재성구조로 신약재약, 군겁쟁재, 재다신약사주가 전체 93명(93%)을 차지하며, 부자사주인 신강재강 사주는 7명(7%)로 나타났다. 즉, 100명의 대상자 중 93명(93%)이 사주원국 자체에서 돈과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인 재성(財星)은 약한 사주구조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나.<연구문제 2> 용신(用神)이 대운(大運)·세운(歲運)에서 합(合)·형(刑)·충(沖)되어 대운(大運)은 흉하게 작용할 것인가?

< 표 IV- 9 > 대·세운에서 용신의 합(合)·형(刑)·충(沖) 빈도
N=100(%)

		무	유
대·세운에 서 용신이	합	44	56
	형	87	13
	충	74	26

대운·세운에서의 합·형·충의 빈도를 살펴보면, 총 100명의 폐업한 자영업자의 대운·세운에서 용신합이 있는 경우는 56명(56%), 용신형은13명(13%), 용신충은 26 명 (26%) 이다. 용신합 > 용신충 > 용신형의 비율을 차지 한다. 합이 가장 많은 비율 을 보이고, 다음은 충이며 형의 순이다. 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가설2-1 폐업한 자영업자의 용신이 대운·세운에서 합(合)·형(刑)·충(沖)되어 대운은 흉(凶)하게 작용할 것이다.

(1) 용신의 합(合)과 대운의 길(吉)·흉(凶)관계

< 표 IV- 10 > 용신의 합과 대운의 길·흉과의 빈도

N=100(%)

	대·세운에서		전체	χ^2	p
	용신의 비합	용신의 합			
대운흉	30	41	71		
대운길	14	15	29	.303	.582
전체	44	56	100		

이들 관계를 살펴보면, 대운·세운에서 용신이 합이 된 대상자는 폐업한 자영업자 100명중 56명(56%)에 해당한다. 대운이 흉한 사람은 71명(71%)이며, 대운이 길한 대상자는 29명(29%)이다. 대운이 흉한 경우 대운·세운에서 용신이 합한 경우는 41명(41%)에 해당한다. 대운이 길하고 대운·세운에서 용신이 합한 경우는 15명(15%)에 해당한다. 대운·세운에서 용신의 합(合)은 대운이 길할 때보다 대운이 흉할 때 더 작용하는 결과다.

(2) 대운·세운에서 용신의 형(刑)과 대운의 길(吉)·흉(凶)관계

< 표 IV- 11 > 용신의 형과 대운의 길·흉과의 빈도

N=100(%)

	대·세운에서		전체	χ^2	p
	용신의 비형	용신의 형			
대운흉	63	8	71		
대운길	24	5	29	.650	.420
전체	87	13	100		

이들 관계를 살펴보면, 폐업한 자영업자 총 100명중 대운·세운에서 용신이 형된 대상자는 13명(13%)이다. 100명중 대운이 흉한 사람은 71명(71%)에 해당하고, 대운이 길한 사람은 29명(29%)에 해당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운이 흉하고 용신이 대운·세운에서 형한 경우는 8명(8%)이다. 대운이 길한데 대운과 세운에서 용신이 형(刑)된 대상자는 5명(5%)다. 용신형의 비율이 전체 100명중 13명(13%)에 해당한다. 대운·세운에서 용신의 형은 대운이 길할 때 보다는 흉할 때 더 비율이 높다.

(3) 대운·세운에서 용신의 충(沖)과 대운의 길(吉)·흉(凶)관계

< 표 IV- 12 .> 용신의 충과 대운의 길·흉의 빈도

N=100(%)

	대·세운에서		전체	χ^2	p
	용신의 비중	용신의 충			
대운흉	53	18	71		
대운길	21	8	29	.053	.817
전체	74	26	100		

이들 관계를 살펴보면, 폐업한 자영업자 총 100명중 대운과 세운에서 충인 자는 26명(26%)이다. 대운이 흉한 사람은 전체 100명중 71명(71%)에 해당하고, 대운이 길한 대상자는 100명중 29명(29%)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운과 세운에서 용신이 충하고 대운이 흉한 경우는 18명(18%)에 해당된다. 대운이 길하고 대운과 세운에서 용신이 충한 경우는 8명(8%)이다. 대운·세운에서 용신의 충은 26명(26%)이며, 대운이 길할 때 보다는 흉할 때 더 비율이 높다.

<연구문제2>의 결과에서, 대운·세운에서 용신의 합(合)·형(刑)·충(沖)은 대운이 길할 때 보다는 흉할 때 더 비율이 높다. 합·형·충의 비율은 합 > 충 > 형의 순서이다. 합의 작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은 충의 작용, 형의 작용순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용신이 합·형·충이 되면 대운(大運)에서 길(吉)하게 작용하는 것 보다는 대운(大運)에서 흉(凶)하게 작용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즉, 용신의 합·형·충은 대운의 흉과 관련이 있다.

다. < 연구문제 3 > 폐업한 자영업자의 용신(用神)이 대운(大運)·세운(歲運)에서 합(合)·형(刑)·충(沖)으로 세운은 흉하게 작용할 것인가?

가설3-1. 폐업한 자영업자의 용신이 대운·세운(에서 합(合)·형(刑)·충(沖)되어 세운은 흉하게 작용할 것이다.

(1) 용신의 합(合)과 세운의 길(吉)·흉(凶)관계

표 IV- 13. 용신의 합과 세운의 길·흉의 빈도

N=100(%)

	대·세운에서		전체	χ^2	p
	용신의 비합	용신의 합			
세운흉	32	32	64		
세운길	12	24	36	2.597	.107
전체	44	56	100		

이들 관계를 살펴보면, 폐업한 자영업자 총 100명중 대운·세운에서 용신이 합된 대상자는 56명(56%)이다. 그 중 세운이 흉한자는 64명(64%)이고, 세운이 길한 대상자는 36명(36%)이다. 세운이 흉한 사람중 용신이 합한 사람은 32명(32%)에 해당하고, 세운이 길한데대운·세운에서 용신이 합한 경우는 24명(24%)이다. 대운·세운에서 용신의 합(合)은 세운이 길할 때보다는 세운이 흉할 때가 더 많다.

(2) 용신의 형(刑)과 세운의 길(吉)·흉(凶)관계

표 IV- 14. 용신의 형과 세운의 길·흉의 빈도

N=100(%)

	대운·세운에서		전체	χ^2	p
	용신의 비형	용신의 형			
세운흉	58	6	64		
세운길	29	7	36	2.066	.151
전체	87	13	100		

이들 관계를 살펴보면, 폐업한 자영업자 100명중 대운·세운에서 용신이 형된 대상자는 13명(13%)이다. 그 중 세운이 흉한자는 64명(64%)이고, 세운이 길한 대상자는 36명(36%)이다. 세운이 흉한 사람중 용신이 형한 사람은 6명(6%)에 해당하고, 세운이 길한데 대운·세운에서 용신이 형한 경우는 7명(7%)이다. 대운·세운에서 용신의 형(刑)은 세운이 흉 때보다는 세운이 길할 때가 더 많다. 본 연구에서는 형의 작용력은 작게 나왔다.

(3) 용신의 충(沖)과 세운의 길(吉)·흉(凶)관계

표 IV- 15. 용신의 충과 세운의 길·흉의 빈도

N=100(%)

	대운·세운에서		전체	χ^2	p
	용신비충	용신충			
세운흉	42	22	64		
세운길	32	4	36	6.481	.011
전체	74	26	100		

이들 관계를 살펴보면, 폐업한 자영업자 100명중 대운·세운에서 용신이 충된 대상자는 26명(26%)이다. 그 중 세운이 흉한자는 64명(64%)이고, 세운이 길한 대상자는 36명(36%)이다. 세운이 흉한 사람 중 용신이 충한 사람은 22명(22%)에 해당하고, 세운이 길한데 대운·세운에서 용신이 충한 경우는 4명(4%)이다. 용신의 충(沖)은 세운이 길할 때보다는 세운이 흉할 때가 더 많다.

<연구문제3>의 결과에서, 대운·세운에서 용신의 합(合)·형(刑)·충(沖)은 세운이 길할 때 보다는 흉할 때 더 비율이 높다. 합·형·충의 비율은 합 > 충 > 형의 순서이다. 합의 작용이 가장 비율이 많고, 다음은 충의 작용, 형의 작용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용신이 합·형·충이 되면 세운이 길(吉)하게 작용하는 것 보다는 세운이 흉(凶)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즉, 용신의 합·형·충은 세운의 흉과 관련이 있다

라. <연구문제 4> 폐업한 자영업자의 월지(月支)가 대운(大運)·세운(歲運)에서 합(合)·형(刑)·충(沖)될 것인가?

가설4-1. 폐업한 자영업자의 월지(月支)가 대운·세운에서 합(合)·형(刑)·충(沖)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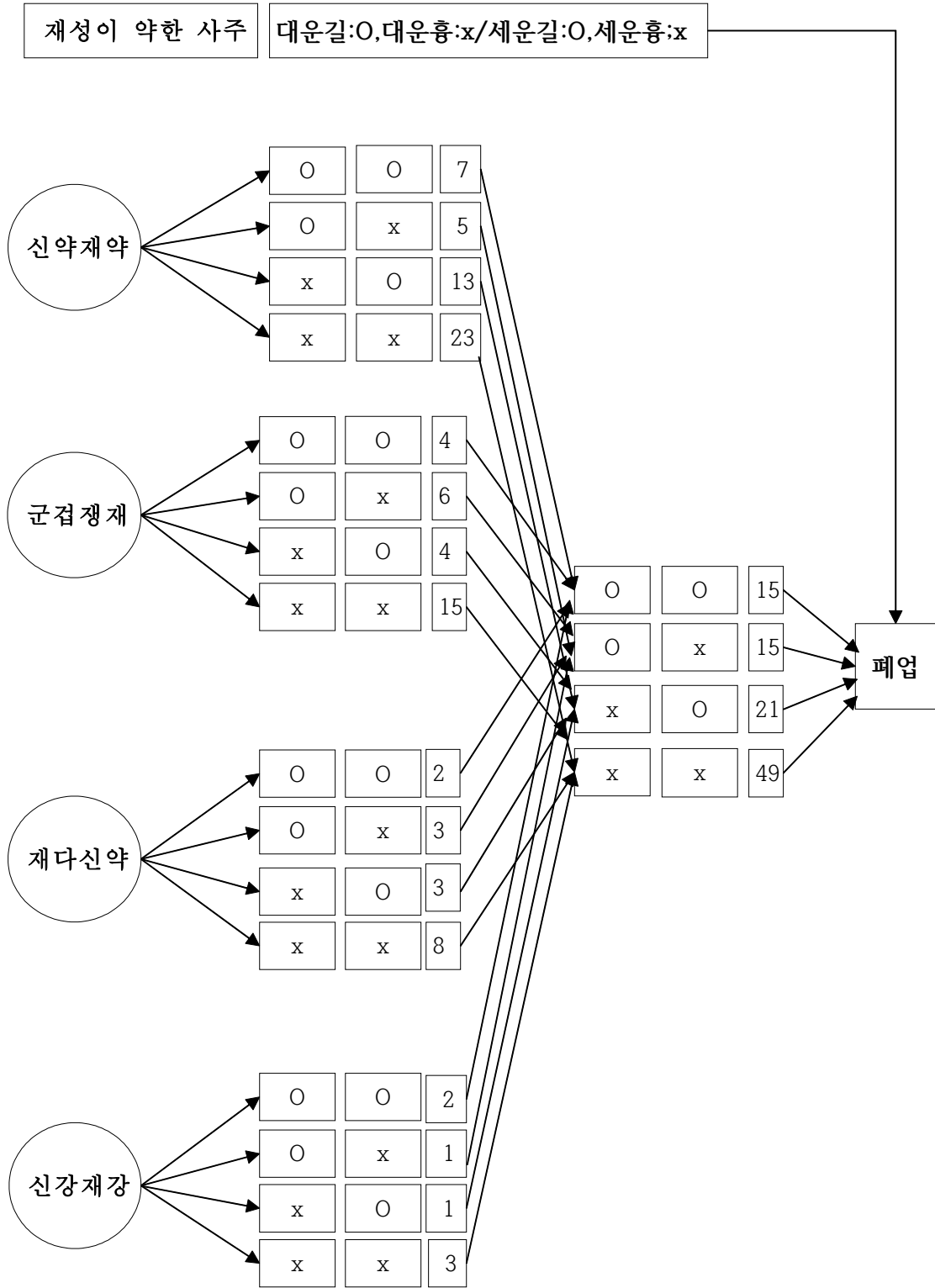
표IV- 16. 대운·세운에서 월지의 합·형·충

N=100(%)

		빈도	퍼센트
월지	합	61	61.0
	형	5	5.0
	충	9	9.0

대운·세운에서 월지의 합은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명 중 61명(61%)이다. 월지가 형이 된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명 중 5명(5%)이다. 월지의 충(沖)이 있는 사주를 가진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명 중 9명(9%)에 속한다.

<연구문제 4>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운·세운에서 월지(月支)의 합이 61명(61%), 월지형이 5명(5%), 월지의 충이 9명(9%)으로 월지에서 합·형·충이 된 자는 총 대상자 100명중 74명(74%)에 해당한다. 월지의 형이나 월지의 충은 직업변동에 월지의 합(合)에 비해 소수이다. 월지합(月支合)의 작용력이 형(刑)이나 충(沖)의 작용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월지(月支)의 합(合)·형(刑)·충(沖)된 대상자는 총100명중 74명(74%)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Ⅲ-6]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성과 대운·세운의 관계검증모형

3. 연구결과 해석

본 연구자는 연구문제와 가설검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재성(財星)이 약한 사주의 해석

본 연구에서는 재성이 약한사주가 100명의 폐업한 자영업자중 93명(93%)을 차지 했다. 자영업 종사자 사주와 재운(財運)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김경희(2006)가 말한 사주원국상의 재성의 구조에 의해 부(富)의 크기가 신왕재왕 > 신왕재약 > 신약재왕 > 신약재약의 순으로 형성한다는 가설을 확인하는 결과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신왕재왕은 신강재강으로, 신왕재약은 군겁쟁재로, 신약재왕은 재다신약으로 표현하였다. 무재성사주는 신약재약사주에 포함시켰다.

운(運)과 명(命)을 자동차와 차도에 비유하자면, 재성이라는 자동차가 어떤 차도를 달려가느냐? 는 말과 같다. 즉 차가 애초부터 달리지 못하는 차, 즉 바퀴나 엔진등 차체에 문제가 생긴 차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군겁쟁재나 재다신약구조는 균형이 심하게 조화롭지 못해서 대운과 세운이 좋게 흘러도 즉, 운대가 잘 흘러줘도 그 재물을 얻기가 사실상 힘든 형국이 된다. 그러나 사주원국 자체에 이런 약한 재성의 구조를 갖었다 해도 개인의 환경인 대운과 세운에서 용신(用神)운이 오면 발복할 수도 있다. 반대로 기신운(忌神運)이 오면 옆친데 덤친 격으로 차도 역시 벼랑길이나 낭떠러지를 만나게 되는 형국으로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이다. 사주원국에서 재성이 약한 사주라 해도 대운·세운의 흐름을 살펴 희·비를 논해야 하는 것이다(김경희, 2006).

들째, 재성(財星)이 약한 사주와 대운·세운 관계 해석

가. 신약재약(身弱財弱)사주와 대운·세운의 관계

< 표 IV- 17> 신약사주와 대운·세운의 길흉관계

N=100(%)

		신약재약		전체	χ^2	p
		무	유			
대길·세길	빈도	7	7	14	3.022	.388
	전체 %	7	7	14		
대길·세흉	빈도	10	5	15		
	전체 %	10	5	15		
대흉·세길	빈도	8	13	21		
	전체 %	8	13	21		
대흉·세흉	빈도	27	23	50		
	전체 %	27	23	50		
전체	빈도	52	48	100		
	전체 %	52	48	100		

전체 대상자 100명중 재성이 약한 사주로써 신약재약한 사주는 48명(48%)이다. 그 중 대운이 길하고 세운도 길한 경우 신약재약의 비율을 7명(7%)이다. 대운이 길하고 세운이 흉한 경우 폐업한 자영업자는 5명으로 나타났으며, 대운이 흉하고 세운이 길한 경우, 폐업한 자영업자는 13명으로 나타났으며, 대운도 흉하고, 세운도 흉한 경우, 폐업한 자영업자는 2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약재약의 경우 대운도 흉하고 세운도 흉한 폐업자가 가장 많았다. 즉, 10년의 환경인 대운과 1년의 환경인 세운 역시 도움이 없어 폐업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다.

김재성(2004)은 신약명조에서도 무재성이거나 재(財)가 2개이면서 무력하거나 약한 경우 넓은 의미에서 재성의 불급으로 간주하여 흉하다고 본다. 신약(身弱) 사주는 재성이 식신, 상관으로부터 생을 받아 강할 때 내가 힘이 약하여 아극자(我剋者)로 재물을 다스리고 사업체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흉작용을 한다고 말한다. 신약사주는 재(財) 자체가 기신이 되기 때문에 재생살(財生殺)로 금전난으로 관재소송등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며, 과중한 세금, 자금사정의 악화로 관재소송등으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즉, 사주원국상에서도 일간(日干)인 나의 힘도, 재물을 다룰 능력도 없는 사주구조로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물을 얻는 것이 어렵다.

나. 군집쟁재(群劫爭財)사주와 대운·세운의 관계해석

< 표 V- 18 > 군집쟁재사주와 대운·세운의 관계

N=100(%)

		군집쟁재		전체	χ^2	p
		무	유			
대길·세길	빈도	10	4	14	1.917	.590
	%	10	4	14		
대길·세흉	빈도	9	6	15		
	%	9	6	.2		
대흉·세길	빈도	17	4	21		
	%	17	4	21		
대흉·세흉	빈도	35	15	50		
	%	35	15	50		
전체	빈도	71	29	100		
	%	71	28	100		

총 대상자 100명중 29명(29%)이 군집쟁재 사주다. 대운이 길하고 세운도 길한 경우 폐업한 자영업자는 4명으로 나타났다. 대운이 길하고 세운이 흉한 경우, 폐업한 자영업자는 6명으로 나타났다. 대운이 흉하고 세운이 길한 경우는 4명으로 나타났고, 대운도 흉하고, 세운도 흉한 경우, 폐업한 자영업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집쟁재사주인 경우 대운도 흉하고 세운도 흉한 폐업자가 가장 많았다.

폐업한 자영업자중 군집쟁재사주가 대운·세운이 흉할 때가 많았다는 결과는 김재성(2004)이 중소기업 CEO의 불황시점에 관한 명리학적 연구에서 대상자 143명중 대운·세운의 길흉 작용에서 대운과 세운이 흉일 때는 100명(69.9%), 대운길·세운흉일 때는 32명(22.4%), 대운 흉·세운길일 때는 11명(7.7%), 대운·세운이 길일 때는 0명(0.0%)의 결과와 함께 한다. 중소기업 CEO들의 경우 본인의 대운과 세운이 모두 흉한 시기에 대부분 불황의 시점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으며 대운이 흉하고 세운이 길한 경우 보다는 대운이 길하고 세운이 흉한 경우의 비중이 높다는 결론에 부응하는 결과로 그 의의를 갖는다

한편, 대운도 길하고 세운도 길한 4명의 대상자인 경우는 재다신약과 같이 군집쟁재구조도 사주의 구조가 워낙 균형을 잃은 사주다. 운대에 있어서 용신운이 온다고 해도 발복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사주의 희기를 가려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군집쟁재인 경우는 나의 재물은 작는데 일간인 나의 힘이 너무 크고 세서 거들먹 거리는 형국이다. 이 역시 나의 것으로 재물을 만들기 힘든 형국이 된다.

다. 재다신약(財多身弱)사주와 대운·세운의 관계 해석

< 표 V- 19 > 재다신약사주와 대운과 세운과의 관계

N=100(%)

		재다신약		전체	χ^2	p
		무	유			
대길·세길	빈도	12	2	14	.255	.968
	%	12	2	14		
대길·세흉	빈도	12	3	15		
	%	12	3	15		
대흉·세길	빈도	18	3	21		
	%	18	3	21		
대흉·세흉	빈도	42	8	50		
	%	42	8	50		
전체	빈도	84	16	100		
	%	84	16	100		

총 대상자 100명중 재다신약사주는 16명이다. 대운이 길하고 세운도 길한 경우 폐업한 자영업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대운이 길하고 세운이 흉한 경우, 폐업한 자영업자는 3명으로 나타났다. 대운이 흉하고 세운이 길한 경우, 폐업한 자영업자는 3명으로 나타났고, 대운도 흉하고, 세운도 흉한 경우, 폐업한 자영업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재다신약의 경우 대운도 흉하고 세운도 흉한 폐업자가 가장 많았다.

재다신약사주는 일간인 나의 힘은 작고 돈과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너무 커서 그 재물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형국인 재성구조다. 본 결과에서 2명은 대운도 길하고 세운도 길하여 운대가 협조하는 듯하나, 재성구조가 너무 균형을 잃은 사주여서 좋은 운이 온다 해도 오히려 돈은 들어오는 형국이지만, 다시 써버리고 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복권에 당첨되어 횡재를 한다 해도 여러 이유로 해서 그 운이 지나면 다시 가산을 탕진할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사주인 것이다(김경희, 2006.)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사주원국상 없던 운이 들어와 용신운으로 작용하면 재물을 모을 수도 있다. 첫째, 재성이 식신과 상관으로부터 생(生)을 받아야 동한다. 둘째, 재성이 천간에 있을 때는 월령이나 좌하지지(坐下地支)에 통근해야 한다. 셋째, 재성이 천간이나 지지에 있을 경우 재성은 합·형·충 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사주원국상 없던 용신이 들어오면 재물을 지킬 수 있다(김재성, 2004).

라. 신강재강(身強財強)사주의 대운·세운의 관계 해석(참고)

< 표 IV- 20 > 신강재강 사주와 대운·세운의 관계

N=100(%)

		신강재강		전체	χ^2	p
		무	유			
대길·세길	빈도	12	2	14	1.382	.710
	%	12	2	14		
대길·세흥	빈도	14	1	15		
	%	14	1	15		
대흥·세길	빈도	20	1	21		
	%	20	1	21		
대흥·세흥	빈도	47	3	50		
	%	47	3	50		
전체	빈도	93	7	100		
	%	93	7	100		

총 100명의 대상자중 신강재강사주는 7명(7%)이다. 대운이 길하고 세운도 길한 경우 폐업한 자영업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대운이 길하고 세운이 흉한 경우, 폐업한 자영업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 대운이 흉하고 세운이 길한 경우, 폐업한 자영업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 대운도 흉하고, 세운도 흉한 경우, 폐업한 자영업자는 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자의 재성구조를 가진 신강재강의 경우 대운도 흉하고 세운도 흉한 폐업자가 더욱 비중을 차지 하였다. 대상자 100명중 7명은 신강재강한 부자사주에 해당한다. 사주원국상 재성이 튼튼한 사주구조다. 그러나 사주원국이 튼튼한 구조여도 대운이나 세운이 흉하게 흐르면 즉, 운대가 맞지 않으면 폐업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단, 신강재강한 사주면서 대운·세운이 모두 길하게 작용한 2명의 대상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질문지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폐업이유로 가정문제와 건강문제로 폐업했음을 보고했다. 이로써 사업 부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으며, 질적 분석시의 오류에 대한 신뢰도를 보충해줄 수 있다. 사주원국뿐만 아니라, 환경인 대운·세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세제, 월지(月支)의 합(合)·형(刑)·충(沖)으로 직업변동과의 관계 해석

<연구문제 4> 에서 본 연구의 대상자인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월지가 대운·세운에서 합한 경우가 총 100명중 61명(6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 다음은 월지의 충이 9명(9%), 월지의 형이 5명(5%)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지의 합·형·충중 합의 영향력이 가장 많이 작용하였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월지의 합·형·충은 직업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향후 진로나 직업을 연구대상으로 할 때 참고 할 수도 있겠다.

이상규(1994)는 명리학 원론에서 직업은 월지(月支)의 심천과 지장간 오행과 육신에 따라 결정되고 대운에 의해 변화한다고 말한다. 격국의 성립은 누구나 사주를 구성할 때 십간의 하나로 일간이 정해지며 격국용신은 월지(月支)와의 생극비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김기승,2013). 이렇듯 월지는 일간의 격을 잡는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월지의 지장간에서 투출한 천간을 찾아 그 천간을 일간과 대비하여 어떤 육신인가를 파악하여 그 육신의 이름으로 정한다(고순택,2012). 이처럼 월지는 직업을 알 수 있는 격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운·세운에서 월지가 합·형·충으로 합해서 묶이거나 파산, 파괴되고 형되어 이그러지면 원래의 작용력을 잃게 된다. 즉, 직업변동을 예측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배현배(2008)의 사주의 대운 및 세운이 직업변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총305명의 직업변동자중 직업변동과 이직에 있어서 충의 작용력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와 같다. 대운이 월지(月支)를 합하는 경우 월지합(月支合)이 올 때 직장을 이동하는 비율이 충이올 때 직장을 이동하는 비율에 비해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충(沖)보다는 합(合)의 영향력이 많음을 언급하는 것이다. 본 연구 역시 같은 결론을 얻어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폐업한 자영업자의 돈과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인 재성이 개인의 환경인 대운·세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대한 논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논의

첫째, 연구문제 1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들 100명중 93명이 재성이 약한 사주로 나타났다. 재다신약사주가 48명, 군겁쟁재사주 29명, 재다신약사주 16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 종사자 사주와 재운(財運)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김경희(2006)가 사주원국상의 재성의 구조에 의해 부(富)의 크기를 신왕재왕 > 신왕재약 > 신약재왕 > 신약재약의 순으로 형성한다는 가설을 확인하는 결과라 본다. 또한, 김재성(2004)은 중소기업 CEO의 불황시점에 관한 명리학적 연구를 통해 불황시점을 겪은 중소기업 CEO 143명중 재성이 강한 7명을 제외한 136명이라는 압도적인 수가 재성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로 의미가 있다.

둘째,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에서 용신의 합(合)은 합·형·충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빈도를 보였다. 대운이 길할 때 보다 흉할 때, 더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용신의 합·형·충은 대운·세운에서 흉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2와 3에서 용신의 형(刑)은 그 수가 미약하게 나타났으나, 대운·세운이 길할 때 보다는 흉할 때 더 작용의 빈도가 높았다. 단 본 연구에서는 세운에서 용신의 형의 작용은 미약했고, 용신의 형작용은 세운이 흉(凶)할 때보다 세운이 길(吉)할 때의 비율이 더 컸다. 연구문제 2와 3에서 용신의 충(沖)도 그 빈도는 적으나, 대운·세운에서 길할 때 보다는 흉할 때가 더욱 빈도가 높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합·형·충의 작용중에서 합 > 충 > 형의 순으로 합(合)의 작용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김재성(2004)이 중소기업 CEO의 불황시점에 관한 명리학적 연구에서 143명의 대상자중 불황시점에서 재성의 합·형·충의 작용은 형이 35명(24.4%), 충이 66명(46.1%), 합이 80명(55.9%)으로 형과 충보다는 합의 작용력이 있음을 언급한 연구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본수가 작아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선행연구에 같은 의미있는 연구 결과이다.

셋째, 연구문제 4에서 본 연구의 대상자인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월지가 대운·세운에서 합한 경우가 총 100명중 61명(6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

다음은 월지의 충이 9명, 월지의 형이 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지의 합·형·충중 합의 영향력이 가장 많이 작용하였다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헌배(2008)의 사주의 대운및 세운이 직업변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총305명의 직업변동자중 대운·세운에서 월지가 합이 된 경우 이직을 한 사람이 239명(78.4%), 대운·세운에서 월지의 합이 오지 않음에도 직장을 이동한 사람은 66명(21.6%)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 = 38.289, p < .001$)는 결과와 같아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운·세운에서 월지가 합·형·충으로 합해서 묶이거나 파산, 파괴되고 형되어 이그러 지면 원래의 작용력을 잃게 된다. 월지의 합·형·충은 직업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본 연구의 대상자인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두드러진 결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의 정규학과와 평생교육원, 전국의 동사무소및 문화센터에서 명리학(命理學)교육의 활성화를 바란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제도권의 사립대학은 물론 국립대학의 석사학위 과정에도 명리학이 정규과목으로 개설되어 많은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양학이나 미래예측학과에서 서양심리에 관심을 갖고 동양적 상담과 서양적 상담의 접목을 꾀하는 추세다. 오히려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있는 학과에선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것은 우선 가독성이 어렵고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터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일 것이다. 상담의 고급화를 위한 학문의 교류와 더 낫은 상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반대로 명리학을 다루는 각 대학의 동양철학과 미래예측학과 학생들에 대한 서양상담 기법의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운명을 해석할 수 있는 훌륭한 능력과 함께 내담자의 심리를 스스로 이야기하고 마음껏 한(恨)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서양심리의 장점들을 접목시켜 상담의 업그레이드 된 테크닉과 기술들을 전수 시킨다면, 명리학도들로서는 시간당 집약된 명리이론을 바탕으로 운명학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다기능을 갖는 측정도구로서의 기능과 함께 단기 해결 중심상담으로 질 높은 상담이 될 수 있다. 명리학이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들과 함께 서양상담에서 인간의 좌절되고 지친 마음을 읽어주는 기술들과 상담의 테크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논문을 마치면서 갖는 연구자의 생각이다. 명리학을 다루고 있는 미래 예측학과나 동양학과를 겨냥한 서양이론에 대한 학습의 활성화 역시 기대 한다.

둘째, 진로상담 현장에서 명리학의 진로상담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계기관의 검토를 바란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제2의 진로 및 취업을 담당하는 고용지원센터나 진로상담을 위한 기관에서 진로상담으로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진로상담의 전문지식의 결여와 능력부족에서 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서양적 진로상담과 더불어 여러 방면에서 보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돈과 재물에 해당하는 재성(財星)만을 다루었다. 자신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고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나,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인 경우는 고령자의 심리, 정서, 행동은 청소년, 성인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 및 조기 은퇴문화의 확산으로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생활에 대한 고령자의 욕구는 점차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인들은 내 의지와 상관 없이 운명적인 실패나 삶의 많은 굴곡을 겪고 고난을 넘어왔기 때문에 대운과 세운 등 자신의 환경을 운명학적인 해석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환경과 걸맞는 진로나 직업을 찾을 때, 명리학적 상담은 더욱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다. 진로상담의 대안으로 생산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방안들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와 정책적 지원을 기대해 본다.

2. 결론

본 연구자는 연구문제 1에서 폐업한 자영업자의 돈과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인 재성(財星)이 약한사주임을 밝혔다. 연구문제 2, 3에서는 10년 주기의 환경인 대운(大運)과 1년주기의 환경인 세운(歲運)에서 용신이 합·형·충되어 흉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살폈다. 연구문제 4에서는 대동·세운에서 월지의 합·형·충으로 직업변동을 예측하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요약하면,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93명이 사주원국에서 재성이 약한 사주였다. 또한 그들의 대부분이 10년의 환경인 대운이나 1년의 환경인 세운에서도 흉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월지 역시 합·형·충으로 인해 하던 일을 접어야만 하는 형국으로 직업변동을 예측했다. 명리 사주분석적으로 운명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인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돈과 재물과는 거리가 먼 재성이 약한 사주였고, 운대도 맞지 않아 폐업에 이르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들의 49명이 대운흉·세운흉에 해당했다. 뿐만 아니라 대운흉·세운길인 대상자가 27명, 대운길·세운흉인 대상자가 15명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주원국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대운·세운이라는 환경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운과 세운중 어느 한쪽이 기신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황시점이 도래하였음을 말하고 있다(김재성, 2004).

이러한 사례를 통해 서양의 Holland의 직업적성이나 흥미를 사주원국에서, Super가 언급한 환경의 의미를 명리사주분석의 대운과 세운에서 찾아 보고자 하였다. 명리학은 이렇게 대운과 세운처럼 구체적인 환경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한달의 주기에 처하는 환경인 월운(月運)과

하루의 기운을 통해 환경을 알 수 있는 일운(日運)이라는 부분도 있다. 이것은 명리학적 사주분석이 직업적성과 더불어 개인의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서양의 Holland나 Super의 환경에 의해 진로가 선택된다는 두 가지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본 연구에서 폐업한 자영업자 100명의 단편적인 사례로서 대중에게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명리학의 고전을 중심으로 일간(日干)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용신(用神)의 불리한 작용인 합·형·충의 작용만을 살폈다. 그러나 용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다른 부분으로 재성(財星)과 관련된 겁재년, 원진년, 공망등은 고려하지 않아 아쉽다.

본 연구를 통해 폐업한 자영업자의 명리사주 분석에 대한 운명론적인 결과만 운운하여 폐업시기만을 예측하는 일은 상담자에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건축가는 명리학의 음양오행과 중화론을 한옥의 설계도면으로 옮겼다(최성수, 2006). 한의사는 사상체질에 적용시켜 환자의 치료에 쓰고 있다(김홍경, 1983). 상담가의 눈에는 명리학이라는 학문속에 상담으로 접목시킬 많은 소재가 있음을 알게 된다. 개인의 심층면접을 통한 개인상담 및 진로상담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상담은 단순히 직업을 알선하는 차원을 넘어서 진로를 결정하기까지 내담자의 미해결된 문제들을 다루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업을 실패했거나 다시 펼쳐야만 하는 상황, 좌절과 포기 해야만 했던 이유, 무기력 등 심리적으로 겪게 된 문제들을 운명론적 해석과 함께 상담적 접근을 통해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폐업시기를 겪어 낼 수 있었던 긍정의 힘은 무엇이며, 지금 하는 일에 끼친 영향, 어려움과 고통의 시기를 겪고 난 후에 얻게 된 부분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운명론적 해석과 함께 긍정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서양의 상담적 접근방법을 접목한 질적 연구도 흥미로울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 상담으로 이끌지 못함이 아쉽다. 상담심리학과나 심리치료학과 차원에서도 명리사주분석을 도구로 하여 운명적 해석을 통해 실제적 상담을 접목시킬 수 있는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명리학이 실증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이며 진로상담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다. 동양의 학문인 명리학을 서양의 진로상담에 활용하고자 한 연구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명리학이 개인의 직업적성과 흥미뿐만 아니라, 개인의 고유한 환경까지도 언급할 수 있는 진로상담으로의 활용을 거론하였다. 진로상담을 위한 이론적인 설득력을 갖기 위해 Holland와 Super의 생애주기 이론을 적용하였다. 사주원국과 함께 대운·세운이 환경으로서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운명적인 해석과 함께 서양상담에서 인간 심리를 읽어주는 상담기술의 접목을 시도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오늘날, 명리학에 대한 기본인식은 연령이 높을 수록 명리학이 유서깊은 학문 중의 하나이며, 전통있는 학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명리학의 미래예측

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신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신임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명리학의 전망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유망한 직업은 아닐 것이라는 답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미래예측과 인간경영 측면에서 인정받는 직업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이영일, 2006).

명리학의 긍정적 인식하에서 제도권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간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며, 정신역동치료를 발전시킨 이동식박사는 동양의 사상에서 새로운 상담의 기술들이 나오기를 언급한다. 현존 서양의 상담지도 이론들은 주로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 양상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포함한 가족주의 문화권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이장호, 1986).

사주팔자 원국의 명(命)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불변하는 것이고 운(運)은 명(命)에 대한 후천적 영향으로 변화하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사주원국은 나무의 품종과 크기, 모양등으로 비유한다. 운(運)은 그 나무를 꽃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 및 계절의 기후환경과 같은 것으로 나무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주팔자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운(運)의 흐름에 따라 좋은 운(運)을 만나면 길할 것이고, 나쁜 운(運)을 만나면 고행과 흉화가 따르게 된다(최찬주, 2013).

비록 운(運)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도 미리 자기를 알고 분수를 지키고 수양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기관리에 충실해질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운명결정론을 운운하는 부정적 측면 보다는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무한히 바뀔 수 있는 긍정성을 포함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송지나, 2011). 본 연구자는 명리학이 장차 진로상담 분야에서 폐업자의 실업률과 폐업률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과학화된 실증적 학문으로 인정받고 진로상담의 도구로서 실용화될 그날을 기다리며 본 연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김기승(2010). 명리이론을 활용한 선천적성검사 도구개발에 관한 연구. 국제 문화 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승(2005). 사주명리를 통한 초등학생 영재판별 연구. 국제 문화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승(2013). 격국용신 정해. 다산글방.
- 김기승(2010). 놀라운 선천지능. 창해.
- 김경희(2006). 자영업종사자 사주와 재운의 상관관계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2008). 사주명리학 십성의 성격과 에니어그램의 성격심리와의 비교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규봉(2010). 서양점성학의 12사인과 사주명리학의 12지지와의 비교연구. 국제 문화대학 석사학위논문.
- 김명호(2010). 무속인 사주의 명리이론 분석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2차원적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2008.). 국가 경쟁력향상과 진로및 직업상담의 과제. 상담학연구, 9(4).
- 김유미(2014). 일자리2014년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현옥(1989). 청소년진로성과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만태(2010). 한국 사주명리학의 활용양상과 인식체계. 안동대 박사학위논문.
- 김배성(2003). 명리학 정론. 도서출판 창해.
- 김배성, 박영창 편저(2005). 적천수 강독, 명운당.
- 김성봉(2004). 다중지능이론을 활용한 환경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의 효과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준, 김성봉, 박정환(2009). 오행상담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vol 42.
- 김주현(2005).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진로교육프로그램연구.서울대박사학위논문.
- 김종만(2006). 육신의 편중에 의한 성격특성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 김재성(2004). 중소기업CEO의 불황시점에 관한 명리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김철화(2007). 사주의 용신운과 부동산 취득관계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2007). 상담학연구, vol 8, No 2, 603-619.

- 김홍경편역(1983). 음양 오행설의 연구.
- 김효중(2013). 자평삼명통변연원의 격국이론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곽필순, 김봉환(2005). 상담학 연구, vol 6, No.3,837-848.
- 권혜경, 이희경(2013).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장점과 활용 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 심리치료, 25(2), 3 -424.
- 고목승(1987). 사주 추명학. 한림원.
- 고순택(2012). 알기 쉬운 명리학 총론. 가림출판사.
- 고순택(2015). 사주통변. 해암출판사.
- 구만호(2000). 한국인의 직업선택 요인 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나경미(2014). 사주의 심성과 학습몰입과의 상관성연구. 국제뇌교육 종합 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궁상(1980). <사주학보감>. 역학사.
- 남 덕(1998). 직업과 건강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세종문화.
- 마속희(2003). 명리이론과 학업성취의 상관성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남규(2007). 21세기 명리학. 한숨.
- 박영창(2011). 진로지도에 있어서 명리학적 보완가능성에 관한연구. 공주대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창(2011). 박영창 번역(1997). 자평진전 평주. 도서출판 달과 별.격국·용신과 전공 선택과의 상관관계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영창(2007). 사주학 강의. 삼하출판사.
- 박상언(2014). 명리학에 적용된<중>사상에 관한 연구. 대구 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희(2012). 사주명리의 세운해석방법에 관한연구.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용관(2003).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중학생의 자아개념및 진로성숙간의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일우(2003). 삼명통회. 명문당.
- 박혜영(2013). 현대 명리학의 재성론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완(1985). 명리요강. 역문관 서우회.
- 박주현(2005). 자평명리학. 삼명.
- 배길수(2005). 신용평가제도에 대한 숙명론적 고찰.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배현배(2009). 사주의 대운및 세운이 직업변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 국제문화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혜숙(2011). 여명론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영관(2006). 사주정설. 명문당.
- 서락오 평주(2002). 자평진진 평주. 무릉출판 유한공사.
- 서준원(2013). 명리학의 중화론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명석(2006). 선과 선문답이 교실 상담과 만났다가 헤어지는 이유. 교육 철학, 37, pp155-173.
- 서명석(2013). 역점의 현대적 활용: 상담의 관점으로 바라 본 역점의 세계. 교육사상연구, pp.61-74.
- 소재학(2005). 다시보는 사주학 석하명리. 하원정명리 학회.
- 소재학(2008). 오행과 십간십이지이론 성립에 관한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도수(2002). 직업적성에 대한 능력형 검사와 자기평가형 검사 결과의 비교 가능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병근(2006). 정신분열병에 관한 명리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Schizophrenia와 전광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숙(1998). 고등학생의 진로포부및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유성(2012). 사주명리학의 조후론 적용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지나(2011). 자평진전에 나타난 인간의 명과 자유의지의 문제. 대전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상춘(1991). 사주가 운명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과의 관계. 세종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영옥(1999). 학생생활연구 제12집,79-88,서울여자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심규철(2002). 명리학의 연원과 이론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경호(1994). 주역 철학사. 예문서원.
- 심재열(1987). 명리정종 정해. 명문당.
- 심재열(2002). 연해자평정해. 명문당.
- 안성재(2011). 격국용신과 전공선택과의 상관관계 연구. 동방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지성(2014). 명리정종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창규(1996). 진로탐색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한국 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8(1), 169-199.
- 이경례(2007). 직장 다변론자의 명리적 고찰.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대용, 류동희, 김인환, 고태용(2011). 취업진로연구, 제1권 2호(통권2호), (사)한국
취업 진로학회, vol 1, No 2, pp41-68.
- 이동식(1986). 상담의 동양적 접근, 상담의 이론과 실제, 전국 대학 카운슬러
협의회 (편). 중앙적성출판사, pp5-327.
- 이동식(1969). 카운셀링의 철학적 접근. 학생연구(서울대), pp20-26.
- 이문정(2007). 명리이론을 활용한 초등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 국제문화
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영(2013). 명리학에 있어서 중화의 문제.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일(2006). 명리학의 사회적 동향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국제문화 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장영(1997). 사주와 리더십 자질이론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장호(1986). “동양에서의 상담. 심리치료적 접근”. 상담심리학 입문, 박영사.
- 이재연(2014). 중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정(2001). 남녀공학 공업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진로 성숙도관련 환경변화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2001). 진로 신념검사의 변안과 문항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문정(2007). 명리이론을 활용한 초등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상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재(2009). 명리의 선천 직업적성과 실제 직업유형과의 상관성연구.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문규(1997). 고대 중국인의 하늘에 대한 천문학적 이해.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규(1994). 명리학 원론. 명문당.
- 이석영(1996). 사주첩경. 한국역학교육학원.
- 이영일(2006). 명리학의 사회적 동향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국제문화대학원 대학
석사학위논문.
- 이희백, 이현림(1999). 한국진로상담학회지. Vol4, No.1, pp.83-100
- 이희정(2003). 진로성숙과 상담. 학지사.
- 유경진(2005). 실정법 위반에 관한 명리학적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유시옥(2005). 자폐아에 관한 명리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진(2008). 명리학 용신도출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동방대학원 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장경미(2014). 자편진전의 형.충.회.합론에 관한연구. 대구한의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선철(2008). 특별기고: 노인상담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사회과학 논청, 23(2) 1-22.
- 정국용(2003). 성격특성의 예측을 위한 사주명리학에 관한연구. 동의대학교 대학 박사학위논문.
- 정성희(2001). 조선후기의 우주관과 역법.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의록(2010). 명리학의 직업이론과 적성에 관한 연구. 동방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재현(2011). 명리학의 육친론 연구; 가족관계 변동을 중심으로.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하룡(2010). 명리학의 성격유형 분류연구; MBTI유형별 사주분석을 중심으로.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규문(2005). 사주명리학에 적용된 음양오행 연구. 공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득자(2010). 자영업도 구조조정 필요하다. Weekly경향, 통권 906호. pp44-45 석사학위논문.
- 조성호(2003). 상담심리학 연구동향: 상담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
- 조용준(2012). 사주명리학의 형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 치료, 15(4),811-832..
- 한국진로상담학회, 인력개발원. 4(11), 163-183.자영업자, 폐업후에도 빈곤 못 벗어난다. 2006-2010 패널조사 (2013).
- 한동석(1966). 우주 변화의 원리. 대원 출판.
- 조향, 김계현, 이자명(2009). The Korea Journal ofCounseling, vol10, No4, 2099-2113.
- 최성수(2010). 사주 명리학을 활용한 거주자 맞춤형 디자인 방법론 연구, 디지털 디자인 연구,Vol.10.No4,28호 ,p122.
- 최은경(2012). 명리학 육친론의 상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찬주(2013). 명리학의 명과 운에 관한 연구. 원광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 정(2003). 명리학교실. 가교출판.
- Howard Gardener, Intelligence Reframed(2006). 문용린 역. 다중지능 인간지능의 새로운 이해.서울; 김영사.
- Krumboltz,J.D.(1994a). The career belief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ement,72,424-428.
- Norman E. Amundson Joann Harris-Bowlsbey. SpencerG.Niles 공저.

이동혁.임은미공역(2013). 학지사.
Super, D. E.(1965). The preliminary appraisal in vocational counseling.
Personnel.
선천적성검사 연구소 사이트; [http// www.aatest.co.kr](http://www.aatest.co.kr).
통계청(2014). 고용동향.
한국 MBTI연구소 사이트; <http://www.mbti.co.kr>.

<Abstract>

Meungrisaju Analysis for the career counseling of failed Businessman

Ha, Eun-Hee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im, Sung-B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verify how a decade of Fortune and a year of Fortune, Sajuwonguk affect to the failed Businessman.

This study is for using a inventory of career counseling, based on Meungrihak that is one of the oriental idealism, fatalism theory originated by long history.

The past history of western career counseling, the best idea was a Matching theory like Holland inventory. but these days, it is focused environment of yourself like Super says. According to your environment, you'll choose your own career.

I'd like to recommend Meungrisaju analysis, because it has both of them. it has not only hobby, personality, characteristics but also personal environment. it has good idea. it needs just your birthday, month, year, and time exactly. According to Fatalism, It will predict to your life history like that Life, Death, Money, Study, Career and all your family relationships. It consists in Sajuwoonguk and a decade of Fortune and a year of Fortune. it shows detailedly direction of life system.

there are a lot of good points of Meungrisaju Analysis.

One of them, specially I'll research for a decade of fortune and a year of fortune, Sajuwonguk of 100 persons failed businessman.

I would like to show you why they had to put off their business.

Comparing a decade of fortune and a year of fortune, Sajuwonguk, you should know the fact their interaction with each other. why They had experienced not successful

business.

The result of study is like this:

< Hypothesis 1 >

In the Sajuwonguk, the power of Business ability was a three kind of weak and terrible condition. It means you don't have to own your Business. This tells in the classical the oriental idealism, fatalism theory.

< Hypothesis 2 >

The failed Businessman have weak point in a decade of fortune. Yongshin gives a valance for life system. but Yongshin couldn't be functioning and didn't play the role.in the for a decade of Fortune by Yongshin's Hap, Hyung, Chung. Yongshin's Hap, Hyung, Chung mean it is bad condition that doesn't play the role by itself.

< Hypothesis 3 >

The failed businessman have weak point in the for a year of Fortune. Yongshin gives a valance for life system. but Yongshin couldn't be functioning and did not play the role in the for a year of fortune by Yongshin's Hap, Hyung, Chung

< Hypothesis 4 >

The failed businessman have Woulgi's Hap, Hyung, Chung.
it means you'll have to change your job

According to this study, I would like to suggest Mungrisaju analysis gives a new and good Idea to inventory of career counseling instead of western style does.

부록목차

부록1. 연구사례 1 군집쟁채 사주분석	87
부록2. 연구사례 2 군집쟁채 사주분석	88
부록3. 연구사례 3 신약재약 사주분석	89
부록4. 연구사례 4 재다신약 사주분석	90
부록5. 연구사례 5 신강재강 사주분석	91
부록6. 설문지 1	92
부록7. 명리사주분석표 1	94
부록8. 연구 대상자 100명의 사주원국과 대운·세운	95
부록9. 용어 해설	105

연구사례 1 군겁쟁재 (群劫爭財) 사주

<p>사주 원국</p>	<p>癸 癸 庚 庚 亥 亥 辰 戌</p>	<p>여자/ 46세 1970년 03월08일 22시 30분 오후 (음력) 군겁쟁재 (群劫爭財) 사주 용신(用神)은 숯토(戌土)</p>
<p>대운 (大運)</p>	<p>73 63 53 43 33 23 13 3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p>	<p>33병자(丙子)대운은 월지에서 자진(子辰)합(合)으로 강한 수국(水局)이 형성되어 더욱 일간을 비대하게 하여 대운에서 흉하게 작용함. 대운에서 월지 합(合)으로 직업변동 예측</p>
<p>세운 (歲運)</p>	<p>己丑 2009년</p>	<p>세운 己丑 2009년에 축술형(丑戌刑)으로 용신(用神)을 형(戌)하여 세운도 흉하게 작용함. 40세 2009년 식당업을 하다가 폐업.</p>

본 사례는 폐업 당해년도만의 재성의 대운.세운에서의 희기를 논하였으므로 인생 전체를 대표하는 해석이 아님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사례 2 군겁쟁재 (群劫爭財) 사주

<p>사주 원국</p>	<p>辛 辛 己 己 卯 卯 巳 酉</p>	<p>여자 / 47세 1969년 04월 01일 06:20오전(음력) 군겁쟁재 (群劫爭財) 사주 용신(用神)은 사화(巳火)</p>
<p>대운 (大運)</p>	<p>77 67 57 47 37 27 17 7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p>	<p>37세 계유(癸酉)대운은 월지에서 유축(酉丑) 합(合)으로 강한 금국(金局)이 형성되어 더욱 더 일간을 비대하게 함. 대운에서 흉하게 작용함. 대운에서 월지 합으로 직업변동 예측.</p>
<p>세운 (歲運)</p>	<p>임진(壬辰) 2012년</p>	<p>세운 임진(壬辰) 2012년 용신(用神)을 진유(辰酉) 육합(六合)으로 합하여 금(金)의 기운이 더욱 비대해짐. 일간을 더욱 강하게 하여 세운도 흉하게 작용함. 43세 2012년 유통업을 하다가 폐업.</p>

본 사례는 폐업 당해년도만의 재성의 대운.세운에서의 회기를 논하였으므로 인생 전체를 대표하는 해석이 아님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사례 3 신약재약 (身弱財弱) 사주

<p>사주 원국</p>	<p>壬 乙 癸 丙 午 未 巳 午</p>	<p>여자/ 50세 1966년 04월 17일 11시 30분 오전(음력) 신약재약 (身弱財弱) 사주 용신(用神)은 계수(癸水)</p>
<p>대운 (大運)</p>	<p>80 70 60 50 40 30 20 10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p>	<p>30경인(庚寅)대운은 인오(寅午)삼 합(三合)으로 강한 화국(火局)이 형성되어 식상이 너무 비대하게 밀어 극신약(極身弱)한 일간(日干)을 더욱 설기시켜 대운에서 흉하게 작용함.</p>
<p>세운 (歲運)</p>	<p>무인(戊寅) 1998년</p>	<p>세운 1998년 무인(戊寅) 1998년에 무계(戊癸)합(合)하여 기신(忌神)으로 작용함. 월지에서도 인사형(寅巳刑)으로 형살(刑殺)작용하여 세운도 흉하게 작용함. 33세 1998년 홈페이지를 하다가 폐업. 대운.세운에서 월지 형(刑)작용으로 직업변동 예측.</p>

본 사례는 폐업 당해년도만의 재성의 대운.세운에서의 회기를 논하였으므로 인생 전체를 대표하는 해석이 아님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사례 4 재다신약 (財多身弱) 사주

<p>사주 원국</p>	<p>庚 乙 己 己 辰 未 巳 酉</p>	<p>남자 / 47세 1969년 04월 05일 07시30분오전(음력) 재다신약 사주 용신(用神)은 진토(辰土)중 계수(癸水)</p>
<p>대운 (大運)</p>	<p>75 65 55 45 35 25 15 5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戊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p>	<p>35 을축(乙丑)대운은 월지에서 사유축(巳酉丑) 삼합(三合)으로 강한 금국(金局)이 형성되어 극신약(極身弱)한 일간(日干)을 더욱 약하게 함. 기신(忌神)으로 작용하여 대운에서 흉하게 작용함.</p>
<p>세운 (歲運)</p>	<p>己丑 2009년</p>	<p>세운 己丑 2009년도 사유축(巳酉丑) 삼합(三合)으로 강한 금국(金局)이 형성되어 세운 역시 극신약(極身弱)한 일간(日干)을 더욱 약하게 함. 기신(忌神)으로 흉하게 작용함. 41세 2009년 유통업을 하다가 폐업. 대운.세운 월지 합(合)으로 직업변동 예측.</p>

본 사례는 폐업 당해년도만의 재성의 대운.세운에서의 회기를 논하였으므로 인생 전체를 대표하는 해석이 아님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사례 5 신강재강(身強財強) 사주

사주 원국	壬 己 丙 戊 申 巳 辰 戌	여자/ 58세 1958년 03월 04일 17:00 오후 (음력) 신강재강(身強財強) 사주 용신(用神)은 진토(辰土)중 을목(乙木)
대운 (大運)	76 66 56 46 36 26 16 6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36임자(임자)대운은 월지에서 천간에서 병임충(丙壬沖) 자진(子辰)합(合) 으로 나쁘지 않으나, 직업변동 예측.
세운 (歲運)	무인(戊寅) 1998년	세운 1998년 무인(戊寅) 1998년에 인진(寅辰) 합(合)하여 기신(忌神)으로 흉하게 작용함. 41세인 1998년 홈패션업을 하다가 폐업.

본 사례는 폐업 당해년도만의 재성의 대운.세운에서의 희기를 논하였으므로 인생 전체를 대표하는 해석이 아님을 약속드립니다.

9. 귀하의 폐업의 가장 큰 이유는?
 1) 사업부진 2) 건강 3) 가정문제 4) 공부 5) 기타
10. 내가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은?
 1) 사업부진 2) 건강 3) 가정문제 4) 공부 5) 기타
11.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
 1) 돈 2) 사랑 3) 건강 4) 학업 5) 기타
12. 그래도 현재 내 삶에서 안정적인 부분은?
 1) 돈 2) 사랑 3) 건강 4) 학업 5) 기타
13. 내가 앞으로 일하고 싶은 직종은?
 1) 사업 (자영업) 2) 학생 (공부) 3) 종교인 4) 직장인 5) 기타
14. 내가 다시 직업을 갖게 될 때까지의 예상 소요시간은?
 1) 1년이내 2) 3년이내 3) 5년이내 4) 10년이내 5) 기타
15. 지금 나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1) 돈 2) 사랑 3) 건강 4) 학업 5) 기타
16. 귀하는 사주나 운명감정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1) 항상 참고한다. 2) 여러번 3) 한 두번 4) 없다. 5) 기타
17. 명리학적 분석에 대한 생각?
 1) 전혀도움이 되지못한다. 2) 그저그렇다. 3) 도움 4) 약간도움 5) 아주 도움
18. 귀하는 사주팔자를 믿습니까?
 1) 철저히 믿는다 2) 약간 믿는다 3) 믿는다 4) 믿지 않는다 5) 전혀 믿지않는다.
19. 명리학적 분석으로 귀하의 진로에 정확한 정보를 준다면 참고 하시겠습니까?
 1) 철저히 참고 2) 약간은 참고 3) 참고하겠다. 4) 안하겠다. 5)모르겠다.
20. 귀하는 정확한 진로상담을 위해 누구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까?
 1) 철학관 2) 관공서의 상담센터 3) 친구나 가족 4) 점집(보살집) 5) 기타

◆ 진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성함: 연락처:)

성의있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주 분석표 1

구분/사례	1	2	3	4	5	6	7	8	9	10
성별										
나이										
일간										
격국										
용신										
신강/신약										
재성	신약재약 무재성									
	군겁 쟁재									
	재다 신약									
	신강 재강									
대운세 운에서	합									
	형									
용신이	충									
대운세 운에서 일지가	합									
	현									
	충									
대운	길/흉									
세운	길/흉									

연구대상자의 사주원국과 대운.세운

연구대상자	성별 나이	생년/월/일/.시	사주원국	대운	세운	폐업 년도
1	여 43	1973.06.21 09:00(음력)	甲 丁 己 癸 辰 巳 未 丑	76 66 56 46 36 26 16 6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戊 子	2008년
2	남 59	1957.10.17. 03:00(음력)	乙 甲 壬 丁 丑 寅 子 酉	71 61 51 41 31 21 11 1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辛 巳	2001년
3	여 40	1976.09.01 04:30(음력)	甲 戊 戊 丙 寅 申 戌 辰	75 65 55 45 35 25 15 5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丁 亥	2007년
4	남 59	1957.02.01 07:50(음력)	丙 癸 壬 丁 辰 酉 寅 酉	79 69 59 49 39 29 19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丁 丑	1997년
5	여 34	1982.04.19 02:00(음력)	丙 乙 乙 壬 戌 未 巳 戌	72 62 52 42 32 22 12 2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甲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甲 午	2014년
6	여 49	1967.07.15 16:00(음력)	丙 丙 戊 丁 申 辰 申 未	76 66 56 46 36 26 16 6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己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壬 午	2002년
7	남 52	1964.06.16 13:30(음력)	辛 甲 辛 甲 未 戌 未 辰	75 65 55 45 35 25 15 5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壬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甲 午	2014년
8	여 58	1958.07.20 10:00(음력)	丁 癸 庚 戊 巳 未 申 戌	79 69 59 49 39 29 19 9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庚 寅	2010년
9	남 49	1967.02.11 02:00(음력)	乙 甲 癸 丁 丑 申 卯 未	75 65 55 45 35 25 15 5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癸 巳	2013년
10	여 49	1967.05.01 02:00(음력)	癸 癸 丙 丁 丑 卯 午 未	80 70 60 50 40 30 20 10 甲 癸 壬 辛 庚 己 戊 丁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癸 巳	2013년

연구 대상자	성별 나이	생년/월/일/.시	사주원국	대운	세운	폐업 년도
11	남 51	1965.01.02 02:00(음력)	癸 戊 丁 甲 丑 子 丑 辰	71 61 51 41 31 21 11 1 乙 甲 癸 壬 辛 庚 己 戊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甲午	2014년
12	남 43	1973.03.16 08:00(음력)	戊 甲 丙 癸 辰 申 辰 丑	74 64 54 44 34 24 14 4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甲午	2014년
13	여 55	1961.09.03 08:30(음력)	丙 戊 戊 辛 辰 寅 戌 丑	79 69 59 49 39 29 19 9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己 午 巳 辰 卯 寅 丑 子 亥	丙戌	2006년
14	여 46	1970.03.08 22:30(음력)	癸 癸 庚 庚 亥 亥 辰 戌	73 63 53 43 33 23 13 3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己丑	2009년
15	여 44	1972.08.20 04:30(음력)	庚 辛 己 壬 寅 酉 酉 子	77 67 57 47 37 27 17 7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戊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乙酉	2005년
16	여 56	1960.05.12 12:30(음력)	庚 甲 辛 庚 午 子 巳 子	80 70 60 50 40 30 20 10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庚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壬辰	2012년
17	여 47	1969.03.17 18:00(음력)	辛 戊 戊 己 酉 寅 辰 酉	71 61 51 41 31 21 11 1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己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丙戌	2006년
18	남 57	1959.05.05 23:30(음력)	甲 癸 庚 己 子 亥 午 亥	71 61 51 41 31 21 11 1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丁丑	1997년
19	남 61	1955.10.29 23:30(음력)	壬 丁 戊 乙 子 未 子 未	71 61 51 41 31 21 11 1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丁丑	1997년
20	여 58	1958.05.13 04:00(음력)	壬 丁 戊 戊 寅 丑 午 戌	78 68 58 48 38 28 18 8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丁丑	1997년

연구 대상자	성별 나이	생년/월/일/시	사주원국	대운	세운	폐업년도
21	여 57	1959.03.14 06:00(음력)	乙 癸 戊 己 卯 酉 辰 亥	75 65 55 45 35 25 15 5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己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甲午	2014년
22	여 53	1963.09.08 18:00(음력)	乙 庚 壬 癸 酉 子 戌 卯	75 65 55 45 35 25 15 5 庚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午 巳 辰 卯 寅 丑 子 亥	壬辰	2012년
23	여 49	1967.08.24 22:10(음력)	乙 甲 己 丁 亥 午 酉 未	74 64 54 44 34 24 14 4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巳 辰 卯 寅 丑 子 亥 戌	壬辰	2012년
24	여 47	1969.04.01 06:20(음력)	辛 辛 己 己 卯 卯 巳 酉	77 67 57 47 37 27 17 7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壬辰	2012년
25	남 50	1966.05.15 06:50(음력)	乙 癸 甲 丙 卯 亥 午 午	71 61 51 41 31 21 11 1 壬 辛 庚 己 戊 丁 丙 乙 寅 亥 子 丑 戌 酉 申 未	辛卯	2011년
26	남 51	1965.07.23 18:10(음력)	乙 乙 甲 乙 酉 巳 申 巳	74 64 54 44 34 24 14 4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辛卯	2011년
27	여 57	1959.03.03 12:10(음력)	丙 壬 戊 己 午 戌 辰 亥	79 69 59 49 39 29 19 9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己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癸巳	2013년
28	여 53	1963.03.19 20:10(음력)	丙 乙 丙 癸 戌 酉 辰 卯	78 68 58 48 38 28 18 8 甲 癸 壬 辛 庚 己 戊 丁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壬辰	2012년
29	여 50	1966.04.17 11:30(음력)	壬 乙 癸 丙 午 未 巳 午	80 70 60 50 40 30 20 10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戊寅	1998년
30	남 60	1956.07.19 17:00(음력)	庚 癸 丙 丙 申 亥 申 申	75 65 55 45 35 25 15 5 甲 癸 壬 辛 庚 己 戊 丁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庚寅	2010년

연구 대상자	성별 나이	생년/월/일/시	사주원국	대운	세운	폐업년도
31	여 47	1969.06.06 16:40(음력)	甲乙辛己 申未未酉	77 67 57 47 37 27 17 7 己戊丁丙乙甲 癸 壬 卯寅丑子亥戌 酉 申	甲申	2004년
32	남 41	1975.07.02 09:00(음력)	壬丙癸乙 辰戌未卯	80 70 60 50 40 30 20 10 乙丙丁戊己 庚 辛 壬 亥子丑寅卯 辰 巳 午	庚寅	2010년
33	여 50	1966.03.21 16:40윤(음력)	甲庚癸丙 申午巳午	72 62 52 42 32 22 12 2 乙丙丁 戊 己庚辛壬 酉戌亥 子 丑寅卯辰	丁亥	2007년
34	여 49	1967.11.14 10:00(음력)	丁癸壬丁 巳丑子未	77 67 57 47 37 27 17 7 庚己戊丁 丙 乙甲癸 申未午巳 辰 卯寅丑	戊子	2008년
35	여 46	1970.05.30 11:20음력)	己甲壬庚 巳申午戌	79 69 59 49 39 29 19 9 甲乙丙丁戊 己 庚辛 戌亥子丑寅 卯 辰巳	癸未	2003년
36	남 64	1952.11.09 12:10(음력)	壬乙壬壬 午巳子辰	74 64 54 44 34 24 14 4 庚己 戊 丁丙乙甲癸 申未 午 巳辰卯寅丑	壬辰	2012년
37	여 63	1953.03.10 16:00(음력)	壬甲丙癸 申辰辰巳	74 64 54 44 34 24 14 4 甲癸壬 辛 庚己戊丁 子亥戌 酉 申未午巳	甲申	2004년
38	여 63	1953.03.29 08:00(음력)	丙癸丁癸 辰亥巳巳	78 68 58 48 38 28 18 8 乙甲癸壬 辛 庚己戊 丑子亥戌 酉 申未午	己卯	1999년
39	남 49	1967.08.04 08:00(음력)	戊甲戊丁 辰戌申未	80 70 60 50 40 30 20 10 庚辛壬癸甲 乙 丙丁 子丑寅卯辰 巳 午未	癸未	2003년
40	여 49	1967.10.30 16:00(음력)	壬己辛丁 申亥亥未	72 62 52 42 32 22 12 2 己戊丁丙 乙 甲癸壬 未午巳辰 卯 寅丑子	壬午	2002년

연구 대상자	성별 나이	생년/월/일/.시	사주원국	대운	세운	폐업 년도
41	여 57	1959.12.03 05:00(음력)	甲 戊 丙 己 寅 子 子 亥	72 62 52 42 32 22 12 2 甲 癸 壬 辛 庚 己 戊 丁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庚寅	2010년
42	여 41	1975.11.19 23:50(음력)	庚 辛 戊 乙 子 丑 子 卯	75 65 55 45 35 25 15 5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己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庚寅	2010년
43	여 47	1969.09.02 17:50(음력)	乙 庚 甲 己 酉 申 戌 酉	79 69 59 49 39 29 19 9 壬 辛 庚 己 戊 丁 丙 乙 午 巳 辰 卯 寅 丑 子 亥	甲午	2014년
44	여 45	1971.09.26 21:30(음력)	辛 壬 己 辛 亥 寅 亥 亥	78 68 58 48 38 28 18 8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子	庚辰	2000년
45	여 47	1969.02.03 05:00(음력)	丙 甲 丁 己 寅 午 卯 酉	75 65 55 45 35 25 15 5 乙 甲 癸 壬 辛 庚 己 戊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戊子	2008년
46	여 47	1969.11.24 22:00(음력)	己 辛 丙 己 亥 巳 子 酉	72 62 52 42 32 22 12 2 甲 癸 壬 辛 庚 己 戊 丁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	甲午	2014년
47	남 46	1970.05.27 08:00(음력)	壬 辛 壬 庚 辰 巳 午 戌	72 62 52 42 32 22 12 2 庚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乙亥	1995년
48	여 39	1977.03.23 02:30(음력)	辛 丁 乙 丁 丑 卯 巳 巳	79 69 59 49 39 29 19 9 癸 壬 辛 庚 己 戊 丁 丙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壬辰	2012년
49	여 46	1970.08.21 23:00(음력)	乙 甲 乙 庚 亥 辰 酉 戌	74 64 54 44 34 24 14 4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庚寅	2010년
50	여 40	1976.02.24 12:00(음력)	壬 乙 辛 丙 午 亥 卯 辰	76 66 56 46 36 26 16 6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庚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癸巳	2013년

연구 대상자	성별 나이	생년/월/일/.시	사주원국	대운	세운	폐업 년도
51	여 50	1966.10.21 03:00(음력)	丁 乙 己 丙 丑 未 亥 午	78 68 58 48 38 28 18 8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辛 卯	2011년
52	여 46	1970.05.09 05:00(음력)	甲 癸 壬 庚 寅 亥 午 戌	72 62 52 42 32 22 12 2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戊 子	2008년
53	남 51	1965.02.05 13:50(음력)	癸 庚 己 乙 未 申 卯 巳	71 61 51 41 31 21 11 1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戊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庚 寅	2010년
54	남 60	1956.02.27 01:00(음력)	甲 甲 壬 丙 子 辰 辰 申	79 69 59 49 39 29 19 9 庚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丙 子	1996년
55	남 61	1955.10.26 02:30(음력)	乙 甲 戊 乙 丑 辰 子 未	71 61 51 41 31 21 11 1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丁 丑	1997년
56	남 54	1962.02.06 01:05(음력)	壬 戊 癸 壬 子 申 卯 寅	78 68 58 48 38 28 18 8 辛 庚 己 戊 丁 丙 乙 甲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戊 子	2008년
57	남 56	1959.12.21 17:40(음력)	丁 丙 丁 己 酉 午 丑 亥	74 64 54 44 34 24 14 4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丙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丁 卯	1987년
58	여 50	1966.11.16 12:00(음력)	壬 庚 庚 丙 午 申 子 午	77 67 57 47 37 27 17 7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戊 子	2008년
59	남 47	1969.04.18 22:00(음력)	癸 戊 己 己 亥 申 巳 酉	79 69 59 49 39 29 19 9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戊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甲 申	2004년
60	남 45	1971.05.21 17:00(음력)	壬 己 甲 辛 申 巳 午 亥	72 62 52 42 32 22 12 2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癸 巳	2013년

연구 대상자	성별 나이	생년/월/일/.시	사주원국	대운	세운	폐업 년도
61	남 42	1974.06.05 07:30(음력)	庚 乙 辛 甲 辰 丑 未 寅	75 65 55 45 35 25 15 5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壬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辛 卯	2011년
62	남 75	1941.05.11 22:00(음력)	乙 甲 癸 辛 亥 申 巳 巳	80 70 60 50 40 30 20 10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丁 丑	1997년
63	여 46	1970.04.08 09:30(음력)	乙 壬 辛 庚 巳 辰 巳 戌	72 62 52 42 32 22 12 2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庚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乙 酉	2005년
64	여 56	1960.10.17 06:30(음력)	癸 丁 丁 庚 卯 卯 亥 子	79 69 59 49 39 29 19 9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丙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庚 辰	2000년
65	남 40	1976.12.01 10:00(음력)	癸 丙 辛 丙 巳 子 丑 辰	75 65 55 45 35 25 15 5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壬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壬 午	2002년
66	남 47	1969.04.05 07:30(음력)	庚 乙 己 己 辰 未 巳 酉	75 65 55 45 35 25 15 5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戊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己 丑	2009년
67	여 58	1958.03.04 17:00(음력)	壬 己 丙 戊 申 巳 辰 戌	76 66 56 46 36 26 16 6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戊 寅	1998년
68	여 42	1974.01.08 23:30(음력)	庚 辛 乙 癸 子 未 丑 丑	72 62 52 42 32 22 12 2 癸 壬 辛 庚 己 戊 丁 丙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庚 寅	2010년
69	여 50	1966.12.26 07:00(음력)	己 庚 壬 丁 卯 子 寅 未	80 70 60 50 40 30 20 10 庚 己 戊 丁 丙 乙 甲 癸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卯	癸 未	2003년
70	여 43	1973.09.17 11:00(음력)	癸 辛 壬 癸 巳 巳 戌 丑	79 69 59 49 39 29 19 9 庚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午 巳 辰 卯 寅 丑 子 亥	癸 未	2003년

연구 대상자	성별 나이	생년/월/일/시	사주원국	대운	세운	폐업 년도
71	여 49	1967.01.06 01:00(음력)	甲己壬丁 子酉寅未	77 67 57 47 37 27 17 7 庚己戊丁丙乙甲癸 戌酉申未午巳辰卯	乙亥	1995년
72	여 47	1969.06.24 21:00(음력)	壬癸辛己 戌丑未酉	71 61 51 41 31 21 11 1 己戊丁丙乙甲癸壬 卯寅丑子亥戌酉申	己卯	1999년
73	남 48	1968.02.26 03:00(음력)	癸癸乙戊 丑巳卯申	74 64 54 44 34 24 14 4 癸壬申庚己戊丁丙 亥戌酉申未午巳辰	辛巳	2001년
74	남 47	1969.04.03 19:00(음력)	辛癸己己 酉巳巳酉	74 64 54 44 34 24 14 4 辛壬癸甲乙丙丁戊 酉戌亥子丑寅卯辰	癸未	2003년
75	남 50	1966.02.16 05:40(음력)	己乙辛丙 卯丑卯午	80 70 60 50 40 30 20 10 己戊丁丙乙甲癸壬 亥戌酉申未午巳辰	己丑	2009년
76	남 45	1971.07.09 08:00(음력)	壬丙丙辛 辰戌申亥	77 67 57 47 37 27 17 7 戊己庚申壬癸甲乙 子丑寅卯辰巳午未	癸酉	1993년
77	여 53	1963.09.17 02:00(음력)	乙己壬癸 丑酉戌卯	72 62 52 42 32 22 12 2 庚己戊丁丙乙甲癸 午巳辰卯寅丑子亥	己卯	1999년
78	남 46	1970.08.12 07:00(음력)	丁甲甲庚 卯子申戌	79 69 59 49 39 29 19 9 壬辛庚己戊丁丙乙 辰卯寅丑子亥戌酉	丁亥	2007년
79	남 53	1963.11.10 16:00(음력)	戊丁癸癸 申巳亥卯	71 61 51 41 31 21 11 1 乙丙丁戊己庚辛壬 卯辰巳午未申酉戌	辛卯	2011년
80	여 59	1958.02.06 04:30(음력)	丙甲甲戊 寅寅寅戌	71 61 51 41 31 21 11 1 丙丁戊己庚辛壬癸 午未申酉戌亥子丑	壬辰	2012년

연구 대상자	성별	생년/월/일/시	사주원국	대운	세운	폐업 년도
81	남 41	1975.11.28 09:10(음력)	庚 庚 戊 乙 辰 戌 子 卯	77 67 57 47 37 27 17 7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甲 午	2014년
82	남 49	1967.02.24 11:00(음력)	乙 丁 癸 丁 巳 酉 卯 未	79 69 59 49 39 29 19 9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甲 午	2014년
83	남 69	1947.06.18 23:30(음력)	戊 乙 丁 丁 子 卯 未 亥	79 69 59 49 39 29 19 9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甲 戌	1994년
84	여 45세	1971.09.25 08:00(음력)	壬 辛 己 辛 辰 丑 亥 亥	79 69 59 49 39 29 19 9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子	丙 戌	2006년
85	여 49	1967.04.12 04:10(음력)	丙 甲 乙 丁 寅 申 巳 未	76 66 56 46 36 26 16 6 癸 壬 辛 庚 己 戊 丁 丙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辛 卯	2011년
86	남 58	1958.04.13 05:00(음력)	甲 戊 丁 戊 寅 申 巳 戌	72 62 52 42 32 22 12 2 乙 甲 癸 壬 辛 庚 己 戊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壬 辰	2012년
87	남 49	1967.09.09 06:10(음력)	丁 乙 庚 丁 卯 酉 戌 未	71 61 51 41 31 21 11 1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丁 亥	2007년
88	여 58	1958.09.21 06:10(음력)	乙 癸 壬 戊 卯 未 戌 戌	78 68 58 48 38 28 18 8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乙 酉	2005년
89	남 49	1967.09.09 06:10(음력)	丁 己 庚 丁 卯 酉 戌 未	71 61 51 41 31 21 11 1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甲 午	2014년
90	여 54	1962.04.16 03:50(음력)	丙 甲 甲 壬 寅 申 辰 寅	74 64 54 44 34 24 14 4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癸 巳	2013년

연구 대상자	성별	생년/월/일/시	사주원국	대운	세운	폐업 년도
91	여 65	1951.03.19 01:40(음력)	癸 戊 辛 辛 丑 午 卯 卯	76 66 56 46 36 26 16 6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壬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乙 亥	1995년
92	여 45	1971.01.06 03:14(음력)	辛 丁 己 庚 丑 巳 丑 戌	78 68 58 48 38 28 18 8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甲 午	2014년
93	여 46	1970.10.21 23:30(음력)	甲 癸 丁 庚 子 卯 亥 戌	74 64 54 44 34 24 14 4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丙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癸 巳	2013년
94	여 46	1970.09.19 21:30(음력)	己 辛 丙 庚 亥 未 戌 戌	73 63 53 43 33 23 13 3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己 卯	1999년
95	여 59	1957.11.24 23:00(음력)	丁 庚 癸 丁 亥 寅 丑 酉	77 67 57 47 37 27 17 7 辛 庚 己 戊 丁 丙 乙 甲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丁 丑	1997년
96	여 57	1959.04.16 18:30(음력)	乙 乙 己 己 酉 巳 巳 亥	75 65 55 45 35 25 15 5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壬 辰	2012년
97	남 41	1974.11.27 20:30(음력)	丙 乙 丁 甲 戌 卯 丑 寅	78 68 58 48 38 28 18 8 乙 甲 癸 壬 辛 庚 己 戊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辛 卯	2011년
98	여 42	1974.08.01 15:00(음력)	己 戊 丙 甲 未 子 子 寅	72 62 52 42 32 22 12 2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丁 亥	2007년
99	남 61	1955.07.23 08:30(음력)	丙 癸 乙 乙 辰 酉 酉 未	71 61 51 41 31 21 11 1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辛 巳	2001년
100	남 61	1954.12.27 16:00(음력)	丙 辛 丁 甲 申 巳 丑 午	75 65 55 45 35 25 15 5 乙 甲 癸 壬 辛 庚 己 戊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癸 巳	2013년

용어해설

<ㄱ>

- 갑목(甲木):** 10개의 천간중 첫째. 큰 나무로 목(木)의 성정을 갖음.
- 겁재:** 비견과 같은 의미로 형제. 친구. 경쟁자를 의미. 일간인 나와 음양이 다름.
- 격국(格局):** 사주의 대외적, 사회성과 관련한 그릇의 크기를 나타냄. 격국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사주의 부귀빈천이 결정됨.
- 격국용신(格局用神):** 천간에 투출된 것이 좋고 월지에 뿌리를 내려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음.
- 경(庚):** 하늘의 기운인 천간중 일곱째로서 큰 광산등 금(金)의 성정을 갖음
- 계(癸):** 하늘의 기운인 천간중 마지막로서 작은 물인 수(水)의 성정을 갖음.
- 계수(癸水):** 12지지중 마지막 지지 작은 수(水)를 의미.
- 공망(空妄):** 공허하고 무력하다는 의미.
- 관설(官洩)하다:** 관성의 힘을 빼내어 없어지게 하다.
- 관성(官星):** 정관과 편관을 말함. 관직을 의미.
- 구신(仇神):** 기신을 도와 나의 기운을 빼거나 극하여 흉하게 작용.
- 귀살(鬼殺):** 흉하게 작용하는 살(殺)의 기운.
- 금국(金局):** 방국(方局)의 하나. 금(金)의 형국
- 기(己):** 하늘의 기운인 천간중 여섯째로서 작은 논밭등의 토(土)의 성정을 갖음.
- 기신(忌神):** 용신과 반대로 나쁘게 작용하는 역할로 나의 힘을 빼거나 극하는 역에 의해 사주의 부귀빈천이 결정됨.

<ㄷ>

- 대운(大運):** 10년의 나의 환경
- 동주(同柱)하다:** 같이하다. 함께 위치하다.
- 득지(得支):** 지지를 얻어 기운을 얻음.

<ㄹ>

- 목국(木局):** 방국의 하나. 목(木)의 형국
- 묘(卯):** 땅의 기운인 12지지중 네째로서 목(木)의 성정을 갖음.

묘지(卯地): 12운성의 하나로 사람이 죽어서 묘지로 들어간 형국으로 한밤중의
고요한 상태로 비유.

무토(戊土): 하늘의 기운인 천간중 다섯째. 큰 태산이나 대지등 토(土)의 성정

미(未): 땅의 기운인 12지지중 여덟째로서 토(土)의 성정을 갖음.

<ㅂ>

방국(方局): 방위를 중심을 결집하는 같은 세력끼리의 집단으로 향우회, 재향군
인회, 동창회로 비유. 인묘진(木局), 사오미(火局), 신유술(金局), 해자축(水
局)이 있음.

병화(丙火): 하늘의 기운인 천간의 세번째로서 큰 불인 화(火)의 성정을 갖음.

병지(病地): 12운성의 하나로 쇠약하고 병들어 원기가 없는 상태로 해가 서산에
지는 상태로 비유.

비견: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친구, 경쟁자, 형제를 의미. 나와 음양이 같
음.

<ㅅ>

사(巳): 땅의 기운인 12지지중 여섯째로서 화(火)의 성정을 갖음.

사주원국: 사주팔자 즉 년주, 월주, 일주, 시주의 네기둥과 천간과 지지에 각각 4
자씩 구성되며 직업적성이나 재물의 크기, 생노병사, 가족관계를 알 수 있다.
개인의 환경은 알 수 없음.

사유축(巳酉丑): 삼합의 하나로 큰 금(金)의 형국.

사지(死地): 12운성의 하나로 죽은 상태로 해가 저서 어두워진 상태로 비유.

삼신일유(三申一酉): 3개의 신금(申金)과 1개의 유금(酉金).

삼합: 같은 가치관이나 목적을 가진 집단으로 해석. 신자진(申子辰), 해묘미(亥卯
未), 인오술(寅午戌), 사유축(巳酉丑)이 있음. 각각이 합하여 큰 힘을 발휘
하는 형국.

상관(傷官): 일간인 내가 생하는 육신으로 일간과 음양이 다름. 여자에게 자식을
의미.

세운(歲運): 1년의 나의 환경

생극제화(生剋制和): 생해주고 극하고 제거하고 조화롭게 하는 모든 작용.

소이(所以)로써: 그것으로써

식신(食神): 일간인 내가 생하는 육신으로 음양이 나와 같음. 남자에게는 장모.
조카, 손자를 여자에게는 자식과 손자를 뜻함.

식·재·관(食財官): 식신, 상관, 재성, 관성을 의미
신(申): 땅의 기운인 12지지중 아홉째로서 금(金)의 성정을 갖음.
신자진(申子辰): 삼합의 하나로 큰 수(水)의 형국.
십이신살(12神殺): 지살, 도화,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안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겁살, 재살, 천살.
십이지지(12地支):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로 땅의 기운을 12개의 동물과 오행으로 표현
십이운성(12運星): 태어나서 자라고, 결실맺고 후에 모체는 병들어 없어지는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명리사주를 분석할 때 선천적인 환경등을 파악하는데 참고. 절·태·양·생·육·대·록·왕·쇠·병·사·묘의 순으로 변화함.
십성(十星): 육친, 육신의 다른 명칭으로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재, 편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으로 나눔.
십천간(10天干):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로 하늘의 기운을 10가지로 표현.
수국(水局): 방국의 하나. 수(水)의 형국.
술(戌): 땅의 기운인 12지지중 열한번째로서 토(土)의 성정을 갖음.

<○>

아극자(我剋者): 나를 극하는 존재나 역할. 나를 힘들게 하는 자.
역마살(驛馬殺): 이사.유통업.외교.이민.운수.무역.관광여행과 관련된 살(殺)작용.
원진(怨嗔): 싸우고 난 후에 미워지는 형국.
월운(月運): 한달의 나의 환경.
왕지(王地): 12운성의 하나. 인간의 각종 능력이 최고조에 달함. 가장 왕성한 상태.
육친: 사주팔자 여덟글자에서 일간인 나와 나머지 7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파악함. 혈연관계를 표현함. 십신.십성.육친으로도 표현. 식신.상관.편관.정관.재성.인성으로 나눔.
왕지(王地): 12운성의 하나. 인간의 각종 능력이 최고조에 달함. 가장 왕성한 상태
오(午): 땅의 기운인 12지지중 일곱째로서 화(火)의 성정을 갖음.
오시(午時): 말의 시간대. 오전 11시-오후1시를 말함.
오행(五行): 목, 화, 토, 금, 수.
용신(用神): 사주의 균형과 중화를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역할.
월지(絕地): 사주(四柱)에서 월주의 지지를 말함. 직업적 성분을 파악할 때 쓰임.
월지(月支)의 심천(深泉): 월주의 지지인 월지의 깊고 얇은 상태.

유(酉): 땅의 기운인 12지지중 열번째로서 금(金)의 성정을 갖음.
 유정하다: 정(情)이 있다. 통한다.
 을(乙): 하늘의 기운인 천간중 둘째로서 작은 나무인 목(木)의 성정을 갖음.
 인(寅): 땅의 기운인 12지지중 세째로서 목(木) 성정을 갖음.
 인성(印星): 인(印)이란 도와 진리 및 자격등을 의미하며 학문, 스승, 인품, 문서, 서류, 시험, 자격증을 의미.
 인오술(寅午戌): 삼합의 하나로 큰 화(火)의 형국.
 일간(日干): 나 즉, 사주의 주인공
 일운(日暈): 하루의 나의 환경으로 하루의 운세인 일진을 볼 때 쓰임.
 일주(日主): 사주(四柱)인 년주,월주,일주,시주중의 하나로 사주의 본체. 일간과 일지로 구성되며 사주팔자중 가장 중요한 역할.
 일지(日支): 일간인 내가 앉아있는 자리로 배우자 자리를 판단할 때도
 임수(壬水): 하늘의 기운인 천간중 아홉째. 큰 바다나 대양등의 수(水)의 성정

<ㅈ>

자(子): 땅의 기운인 12지지중 첫째로서 수(水)의 성정을 갖음. 쥐를 상징함.
 자월(子月): 음력 11월.
 장생(長生): 12운성의 하나로 사람이 태어나고 식물이 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이 무(無)에서 유(有)가 발생하는 상태로 갓난아기가 막 태어난 상태로 비유.
 재살(材殺): 12신살의 하나로 큰 형벌을 받는다는 뜻으로 감옥외에 송사등 관재 구설도 포함.
 절지(絶支): 일부 자극에 쉽게 동요되거나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모든 인연이 끊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인연이 다시 생겨나는 의미.
 정관(正官): 남자에게는 자식과 조카, 여자에게는 남편과 조모를 의미함. 명예와 질서를 존중하는 군자의 곧은 성정을 의미함.
 정인: 남녀 공히 어머니를 의미. 지혜와 자애, 학문과 인정을 의미함.
 정재: 남자에게 부인, 여자에게는 시어머니를 의미함. 차곡차곡 벌어들이는 재물.
 정화(丁火): 하늘의 기운인 천간중 네째로서 작은 불인 화(火)의 성정을 갖음.
 절지(絶地): 12운성의 하나. 기운이 완전히 끊어져 자취도 없어진 가장 약한 상태.
 주역: 음양의 원리와 천지 만물의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한 유교경전.
 중화(中和): 균형을 이루는 일.
 지장간(支藏干): 지하에 묻혀있는 지지글자에 담긴 하늘인 천간의 의미.
 지살(地殺): 고향을 등지는 상으로 원행, 출장, 이사등 변화를 주관하므로 지살운

에는 이동이나 변화할 일이 생김.
지지(地支): 땅의 기운
진(辰): 땅의 기운인 12지지중 다섯째로서 토(土)의 성정을 갖음.

< ㅈ >

천간(天干): 하늘의 기운.
청탁(淸濁) 사주의 깨끗하고 탁한 정도.
축(丑): 땅의 기운인 12지지중 둘째로서 토(土)의 성정을 갖음.

< ㅊ >

태과불급(太過不及): 너무 과하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됨을 의미.
태기(太基): 그것이 가장 크다.

< ㅍ >

편재: 남자에게 아버지와 첩. 여자에게는 아버지를 의미함. 비정상적인 투기성 재물.
편관: 남자에게 자식, 여자에게 남편이나 애인, 강권과 억제 개혁과 투쟁을 의미.
편인: 남녀공히 어머니, 서모, 계모를 의미. 사기와 위선, 병난과 이별을 뜻함.
파(破): 잘못된 부분을 정리한다, 다듬는다, 분리한다, 파괴한다는 의미.

< ㅎ >

형충회합(刑沖會合) : 형하고 충하고 합하는 관계.
해수(亥水): 땅의 기운인 12지지중 열두번째로서 수(水)의 성정을 갖음.
해자축(亥子丑): 방합중의 하나로서 수(水)의 형국.
해(害): 육합등의 합작용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작용.
해묘미(亥卯未): 삼합의 하나로 큰 목(木)의 형국.
희신(喜神): 용신을 돕는 역할.
희기(喜忌): 즐거운 것과 슬픈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